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 됩니다.

☎ 031-257-1841

제175호 2020년 06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328-0211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기관, '난민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 워크숍

▲중도입국청소년 등 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수도권 3개 기관이 공동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협의회(이하 '이창협')는 지난 5월 22일 수원시글로벌발성소년드림센터에서 난민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회원 간 공동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시글로벌발성소년드림센터(센터장 설동주), 안산시글로벌발성소년드림센터(센터장 이승미), 서울온드림교육센터(센터장 김수영)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창협은 지난 2018년 3개 기관이 뜻을 같이해 발족했다. <관련 기사> 11면 <이제는 기자

경기도, 다문화가족에도 유용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도내 비정규직 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1600명을 대상으로 총 4억원 규모의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민선7기에서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중 대리운전기사, 퀵배달 등 '플랫폼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기간제노동자, 시간제노동자, 파견 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대상이다. 한국에 거주하

는 다문화가족들은 방과후교사,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통번역가, 가사 육아도우미 등 특수고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경기도의 휴가비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가 15만 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형성해 이를 휴가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된다.

대상자들은 적립금 40만원 범위 내에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제휴 패키지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

와 차원에서 도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지역행사, 맛집 등 경기도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한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지친 노동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힐링 음악회, 명상 숲, 테라피 체험 등의 예술치료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 노동자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추첨을 통해 16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비교적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여가문화생활 보장

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1-853-8188, 818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위해 '청년면접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면접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내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수당 최대 21만원(면접 1회 3.5만원, 최대 6회)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기도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12, 13, 16, 17, 47 일본어(Japanese) 日本語 26, 43, 45, 48 영어(English) 6 네팔어(Nepali) नेपाल 19 인도네시아어(Indonesian) 35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0, 24, 36 라오어(Lao) ພາສາລາວ 5 캄보디아어(Khmer) ខ្មែរ 14

섹션별
지면 안내

생활정보 Information 19, 20 육아 Child Care 14 인권 Human Rights 5, 6, 27 복지 Welfare 4, 10, 13, 17, 29, 36, 42, 47, 48 코로나19 Corona 19 39, 46 인터뷰 Interview 30 경제 Economy 35 한국어 Korean 7 취업 Job 8 비자 Visa 4, 13, 16, 17, 24, 25, 26, 43, 44, 45 기본소득 Basic Income 2, 7, 22 기고 Column 23, 26 노동 Labor 1 법률상담 Legal Advice 13 이주배경청소년 1, 11, 12

경기도민 60%,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 추가 지급 '찬성'

경기도, 도민 1천명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긴급 여론조사 실시



지난 4월 20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의 재난기본소득과 5월 4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차례로 지급된 가운데 경기도민 60%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경험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

(93%)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 대다수(88%)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0%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반대' 여론은 38%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예산 사용과 관련한 물음에, 도민들은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42%)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53%)는 쪽에 더 동의했다.

또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도민들은 '가구 단위'(40%)보다는 '개인 단위'(54%) 지급을 더 선호했다.

이외에도 도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 '잘하고 있다'(85%)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 결과(86%)와 비슷한 수치다.

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최근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자영업 매출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고, 도민들 역시 소비 활성화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0조3,685억 원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가 상당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송하성 기자

경기도가 도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막는다

박옥분 여성가족위원장,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안 제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수원 2, 더민주)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박옥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이라는 익명성과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과 윈스톱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 의료 지원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윈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박옥분 위원장은 지난 4월 7일 전국 최초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도내 해바라기센터 및 1366센터, 수원 여성의 전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추진했고 이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만나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박옥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기며, 우리의 일상생활인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수많은 이용자, 소지자 등을 양산했다"며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범행방법 및 피해양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2차, 3차 이상으로 피해가 거듭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코로나19로 끊겼던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5일 재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어린이집 휴원으로 공급이 연기됐던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을 15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신선한 제철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도내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판로기반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내 어린이 36만7천명에게 배, 사과, 수박, 참외, 포도, 멜론, 감귤, 단감, 토마토 등의 과일 과채류를 주 1-2회 다양하게 제공해 왔다. 어린이들은 어린이집 1만1,281곳(34만4천명), 지역아동센터 793곳(2만2천명), 그룹홈 141곳(1천명)을 통해 과일간식으로 이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린이집 등이 휴원하자 올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연기해 왔다. 도는 최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올해는 총 43회분의 과일간식을 공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가정교육 어린이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 건강과일은 지원 대상에 따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1-2회 배송된다. 어린이집에는 원아당 1회 100g의 건강과일을 제공하며 초등학교생이 대부분인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에는 1회당 150g을 공급한다.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엄선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과일을 고루 접할 수 있도록 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은 국내산 과일로 제공한다. 이지은 기자



외부 인구 유입 이민도시 고양시, 다문화사회 대한 더 많은 성찰 필요

고양시 인구추계와 정책수립 방향 ... 고양시정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



고양시정연구원은 지난 27일 킨텍스 제2전시장 302호에서 ‘고양시 인구추계와 정책수립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양시 인구 현실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종합적 예측을 통해 고양시의 비전과 지속가능한 단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발표자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의 마스크 착용 하에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전원 발열 체크, 물리적 거리 확보를 감안한 자리 배치 등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 준수 하에 개최되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와 중앙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인구 107만명의 수도권 대도시인 고양시의 경우 단기적으로 인구감소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향후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동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성결대학교 임형백 교수는 ‘한국의 인구이동의 특징과 고양시의 대응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하였으며, 고양시정연구원 윤신희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인구추계 모형을 활용하여 고양시 39개 행정동 단위의 ‘고양시 장래 인구추계’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중 고양시가 장래 인구추계를 실시한 두 번째 도시라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고양시정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에는 고양시 이재준 시장 이하 덕양

구·일산동구·일산서구청장 및 고양시의회 이규열 부의장 이하 상임위원장, 고양시 관내대학인 한국항공대학교 이강웅 총장, 중부대학교 엄상현 총장, 연구협력기관인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 용인시정연구원 전준경 원장과 고양시 산하 공공기관장 및 고양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특히 고양시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과 고양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채우석 의원은 종합토론에 참석하여 명지대학교 기정훈 교수, 국토연구원 민성희 연구위원, 한밭대학교 오진호 교수와 함께 해당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축사를 통해 “고양시의 미래는 인구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전국에 소멸하는 도시가 많은데, 다행히 고양시는 그러한 불안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지만 출산율이 0.9밖에 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인구문제에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다. 개원 3년차인 고양시정

연구원이 앞으로도 인구문제를 비롯한 고양시 정책과정 수립에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고양시의회 이규열 부의장은 “고양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젊은 연령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양시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시와 함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정연구원장은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15년간 150조 이상의 정부 재원이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율 증가를 위해 투입되었는데, 사람 우선이 아닌 정책 중심이었기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고양시는 외부 인구가 유입된 이민도시라는 특징이 있는데 다문화사회에 대한 더 많은 성찰이 필요하며, 이번 세미나가 고양시 인구정책에 관한 본격적인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고양시, 유네스코와 평생학습 협력 네트워크 ‘경제 사회 교육적 회복정책’

이재준 고양시장, UNESCO GNLC 회원도시들의 적극적 연대와 공동 노력 제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유네스코에서는 UIL(평생학습연구소)을 중심으로 전 세계 학습도시들과 코로나19 관련 비상 계획 및 해결책을 논의하고 공유하고 있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UNESCO측의 요청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웨비나(웹 세미나, 이하 웨비나)에 참석해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코로나19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활동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 UNESCO GNLC 회원도시들의 적극적 연대와 공동의 노력 제안

지난 4월 22일 UNESCO UIL(유네스

코 평생학습 연구소)와 약 15분간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의 코로나19 현황과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의 표준운영 모델로 자리 잡은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 등 고양시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교육적으로 직면한 과제와 기조에 관한 질문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 교육방식에서 필수적인 ‘학습장’이라는 공간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교육자와 학습자·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단됨을 뜻하고, 이는 인간성장의 중요한 동력인 ‘관계 맺기’가 빈곤해짐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교육 분야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관계 맺기의 회복”임을 강조했다. 특히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이란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연대의 대상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위기 대응과 인류 보편의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성 강화의 필요성’을 GNLC 회원도시들에게 주문했다.

웨비나서 코로나 19 대응과 경제 사회

교육적 회복정책 공유

지난 5월 2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8시, ‘코로나 19로부터의 경제·사회·교육적 회복’을 주제로 제13차 UNESCO GNLC(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웨비나가 열렸다. C40 Cities(도시 기후 리더스 그룹)·이탈리아 피렌체 대학·타타지 이노베이션·이탈리아 밀라노·고양시가 발표자로 참여한 이번 웨비나는 전 세계 교육관계자·국제기구 등 280명이 온라인 접속을 하였으며, 1시간 50분간 진행됐다.

고양시 김호석 교육전문위원(평생학습센터 팀장)은 열감지 카메라 지원·교육현장 방역을 위한 인력지원 등 고양시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사업들과 긴급재난지원금·알바 6000 등 다양한 고양시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평생학습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에 참여했다.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의 파울루 교수는 평생학습을 통한 관계회복과 연대를 강조한 고양시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

며 상호학습 확대정책을 제안했고, UIL 프로그램 전문가인 마리는 고양시의 발표와 토론이 오늘 웨비나를 관통하는 큰 통찰을 주었다며 일상의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생학습 성과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UNESCO 시범사업 추진

지난해 10월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열린 제4차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에서 ‘교육계획, 모니터링 평가’ 부문의 리더 도시로 선정된 고양시는, 현재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고양시정연구원·한국개발조사연구소와 함께 UNESCO GNLC 학습도시 지표를 기반으로, 고양시의 평생학습 사회지표·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6월부터 본격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한 도시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내외 학습도시 및 관계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송하성 기자

关于在韩登记外国人离韩前应办理在入境许可, 并“再入境”时提交诊断证明

외국인주민은 한국을 떠나기 전 입국허가를 신청하고 재입국시 진단서 제출해야



韩国政府从6月1日起开始实施的最新出入境政策,有登陆证的外国人离开韩国时,必须先申请“再入境许可”,再重新回到韩国时务必备“诊断证明”才可以入境,如果未办理再入境许可离韩则注销其在韩外国人登记。

此次措施只限2020年6月1日以后出国再入境的外国人,6月1日以前没有申请再入境许可而出去的外国人,即使没有再入境许可证明和诊断证明也可以入境,但是符合下列条件之一(㉠或㉡或㉢)的无须办理再入境许可及无需持有并提交诊断证明,

离境后可以直接”再入境”韩国。

㉠ 外交 A-10, 公务 A-2), 协定(A-3), 在外同胞 F-4)等签证的滞留资格持有者;

㉡ 持韩国驻外使馆出具的“免隔离证明”人员。

㉢ 以商务活动、采访、学术为目的入韩的“免签证明”持有人。

※申请再入境时外国人提交的资料:

护照, 外国人登陆证, 综合申请表, 再入境许可申请表和再入境时提交诊断证明同意书及再入境情况说明。

2020年6月1日至6月30日期间,无须提前预约可直接前往辖区出入境外国人厅(事务所,办事处)

离境当天也可直接到离境的机场港口办事大厅办理,无须提前预约。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입국 허가를 신청하고 재입국시 진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월 1일부터 한국 정부가 시행 한 최신 이민 정책, 등록 증명서를 소지 한 외국인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하며,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진단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없이 한국을 떠나면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 조치는 2020년 6월 1일 이후에 다시 입국 한 외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해외에 입국 한 외국인은 재입국 허가 증명서와 진단 증명서가 없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의 조건 (㉠ 또는 ㉡ 또는 ㉢)은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진단 증명서를 소지하고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출국 후 한국을 직접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외교 (A-10, 공무 (A-2), 계약 (A-3), 외국 동포 (F-4) 등) 체류자격 소지자

㉡ 해외 주한 대사관에서 발행 한 "격리없는 증명서" 소지자.

㉢ 비즈니스 활동, 인터뷰 및 학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 한 "비자 면제 증명서"소지자.

※ 재입국 신청시 외국인이 제출 한 서류 : 재입국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종합신청서, 재입국 허가 신청서, 진단서 제출 및 재입국 상황 설명 동의.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없이 관할 구역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 가시면 됩니다.

사전 예약없이 출발 당일 출발한 공항(항구) 사무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지역사회서비스사업 하반기 이용자 모집

다문화가정 자녀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7월 1일(수)부터 7일(화)까지 5일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반기 신규이용자 약 2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장애인·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서비스는 △우리 아이심리지원서비스 100명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00명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30명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20명 등 총 4가지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모집기간 내에 신분증과 서비스 별 필수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되며, 이번에 선발되지 않으면 다음 모집 때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새소식 및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월에서 8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를 제공기관과 보건 등의 협의를 통해 9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도서관 www.bookhg.com 국내최대 매장확보

세계 각지의 다양한 서적을 만나보세요!

- 도서납품(외국도서, 국내도서)
- 교과서납품(전 세계국가, 국내)
- 다문화전자책 납품 국내유일
- 비도서(DVD, CD, 잡지) 납품(전세계)
- MARC DATA 구축, 장비, 태깅, 배가작업

경기 부천시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2동 403호
전화 : 032-325-4755 팩스 : 032-325-4772
E-mail : hope6401@hanmail.net Website : www.bookhg.com

NOTE

ຂ້າພະເຈົ້າສະໜັບສະໜູນຄວາມເປັນຂອງແຮງງານຕ່າງປະເທດ.

ຄົນຕ່າງປະເທດ ລະບົບອະນຸຍາດຈ້າງງານ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06 ສູນບໍລິການສຸກເສີນສໍາລັບແມ່ຍິງຕ່າງປະເທດ (ສູນສຸກເສີນດານຸລິ)

ປະກັນໄພແຮງງານຕ່າງປະເທດແມ່ນຫຍັງ?

ນາຍຈ້າງຕ່າງປະເທດປະກັນໄພ

ປະເທດ	ປະກັນໄພຕ່າງປະເທດ	ປະກັນໄພພັດທະນາການເດີນທາງ-ເຮືອສົມ
ຈຸດປະສົງອອກແຮງຈູງງານ	ແຮງງານຕ່າງປະເທດກັບຄືນເຮືອສົມໄດ້ຈຳນວນ	ຈຳນວນເດືອນ ແລະ ຕໍາລິຍັບສູງສຸດຂອງແຮງງານຈຳນວນ
ຜູ້ສຳຜັດ	ນາຍຈ້າງ	
ເວັບໄຊທ໌ສະໜັບສະໜູນ	- ບ່ອນເຮັດວຽກທີ່ບໍ່ໄດ້ຮັບການຄຸ້ມຄອງໂດຍ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ການຄຸ້ມຄອງຈັດການ - ບ່ອນເຮັດວຽກທີ່ບໍ່ໄດ້ຮັບການຄຸ້ມຄອງຈັດການ - ບ່ອນເຮັດວຽກທີ່ບໍ່ໄດ້ຮັບການຄຸ້ມຄອງຈັດການ	ສະໜັບສະໜູນ ກຳລັງ 1 ຄົນ ຫຼື ສູນບໍລິການ 300 ຄົນ
ຍົກລົງສະຖານທີ່ເຮັດວຽກ	ການໃຊ້ແຮງງານຕ່າງປະເທດຍົກລົງຈ້າງງານ (ກົດໝາຍມາດຕາ 12 ວັນ 1)	
ຜູ້ສຳປະກັນໄພ ຫຼື ຜູ້ຮັບຜິດຊອບໂທດ	ແຮງງານຕ່າງປະເທດ	
ເອກະສານສຳຄັນຈຳນວນປະກັນໄພ	- ການຈຳນວນປະກັນໄພກຳລັງຈ້າງງານ - ສູນບໍລິການສຸກເສີນດານຸລິ - ກຳລັງຈ້າງງານຕ່າງປະເທດ - ການຈຳນວນປະກັນໄພ - ບ່ອນເຮັດວຽກທີ່ບໍ່ໄດ້ຮັບການຄຸ້ມຄອງຈັດການ	ເຮັດວຽກບ່ອນເຮັດວຽກສູງກວ່າ 1 ປີ ແຮງງານຕ່າງປະເທດທີ່ບໍ່ໄດ້ຮັບການຄຸ້ມຄອງຈັດການ (ບໍ່ມີເອກະສານເດີນທາງສູນບໍລິການ)
ຂັ້ນຕອນການສະໜັບສະໜູນ	ເມັງຕູນ 14	ເມັງຕູນ 16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ການຈ້າງງານ ແລະ ສິນຄ້າຂາຍແຮງງານຕ່າງປະເທດ
ຖ້າແຮງງານຕ່າງປະເທດມີວິຊາ E-9 ຫຼື H-2 ຕາມມາດຕາ 13, 15 ແລະ 23

ປະກັນໄພແຮງງານຕ່າງປະເທດ

ປະເທດ	ປະກັນໄພອຸບັດຕິເຫດ	ປະກັນໄພກັບປະເທດ - ເຮືອສົມ
ຈຸດປະສົງອອກແຮງຈູງງານ	ການສະໜັບສະໜູນໃນເວລາທີ່ເຮັດວຽກ - ການຍ້ອນກັບແຮງງານ	ເຮືອສົມປະກັນໄພໃນເວລາກັບບ້ານ
ຜູ້ສຳຜັດ	ແຮງງານຕ່າງປະເທດ	
ເວັບໄຊທ໌ສະໜັບສະໜູນ	ບ່ອນເຮັດວຽກ ຫຼື ທຸລະກິດທີ່ຈ້າງແຮງງານຕ່າງປະເທດ	- ປະເທດອິນໂດເນເຊຍ, ປະເທດຟີລິບປິນ, ປະເທດໄທ, ປະເທດຈີນ ແລະ ປະເທດອື່ນໆ - ບ່ອນເຮັດວຽກ: 400,000 ວອນ - ບ່ອນເຮັດວຽກ: 600,000 ວອນ - ສິນຄ້າ: 800,000 ວອນ
ຍົກລົງສະຖານທີ່ເຮັດວຽກ		
ຜູ້ສຳປະກັນໄພ ຫຼື ຜູ້ຮັບຜິດຊອບໂທດ	ແຮງງານຕ່າງປະເທດ	
ເອກະສານສຳຄັນຈຳນວນປະກັນໄພ	ການເຮັດວຽກ ຫຼື ພັດທະນາການເດີນທາງເຮັດວຽກ	ແຮງງານຕ່າງປະເທດອອກຈາກປະເທດ (ບໍ່ມີເອກະສານເດີນທາງສູນບໍລິການ) ກຳລັງຈ້າງງານຕ່າງປະເທດ ຫຼື ຖືກຍ້ອນ
ຂັ້ນຕອນການສະໜັບສະໜູນ	ເມັງຕູນ 15	ເມັງຕູນ 18

6-1 ປະກັນໄພສໍາລັບການບໍ່ຈ່າຍເງິນເດືອນຊັກຊ້າ

ປະກັນໄພສໍາລັບການບໍ່ຈ່າຍເງິນເດືອນຊັກຊ້າແມ່ນຫຍັງ?

ການຮັບຄ່າປະກັນໄພມີດັ່ງນັ້ນ

ຂັ້ນຕອນການຍົກລົງ

ໄດ້ຮັບຈ້າງງານຈຳນວນເໝາະສົມໃນເວລາທີ່ກຳລັງເຮັດວຽກ ເຮັດວຽກຕ່າງປະເທດ ຫຼື ຮັບຈ້າງງານຕ່າງປະເທດ (ການສະໜັບສະໜູນໃນເມັງຕູນຈ້າງງານ)

ສົ່ງເສີມປະກັນໄພ (ເຮັດວຽກ ຫຼື ປະກັນໄພຈ້າງງານ)

ເອກະສານທີ່ຈຳເປັນມີດັ່ງນັ້ນ

ສູນບໍລິການສຸກເສີນດານຸລິ ແລະ ແຮງງານ ☎ 1350 ສູນບໍລິການໄພສຸກເສີນດານຸລິ ☎ 02-777-6689

6-2 ປະກັນໄພອຸບັດຕິເຫດ

ປະກັນໄພອຸບັດຕິເຫດແມ່ນຫຍັງ?

ການຮັບຄ່າປະກັນໄພມີດັ່ງນັ້ນ

ກະຊວງສະໜັບສະໜູນສະຖານທີ່ຈ້າງງານ

ສະໜັບສະໜູນໂທລະສັບ ສູນບໍລິການສຸກເສີນດານຸລິ

ກຳລັງເຮັດວຽກ	ກຳລັງເດີນທາງ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ໃນສະໜັບສະໜູນປະກັນໄພ ② ໃນເມັງຕູນປະກັນໄພ ③ ໃນເມັງຕູນປະກັນໄພ ④ ສໍາລັບຄ່າປະກັນໄພສະໜັບສະໜູນ ⑤ ສໍາລັບຄ່າປະກັນໄພສະໜັບສະໜູນ ⑥ ສໍາລັບຄ່າປະກັນໄພສະໜັບສະໜູນ ⑦ ສໍາລັບຄ່າປະກັນໄພສະໜັບສະໜູນ ⑧ ສໍາລັບຄ່າປະກັນໄພສະໜັບສະໜູນ ⑨ ສໍາລັບຄ່າປະກັນໄພສະໜັບສະໜູນ ⑩ ສໍາລັບຄ່າປະກັນໄພສະໜັບສະໜູ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ໃນສະໜັບສະໜູນປະກັນໄພ ② ສໍາລັບຄ່າປະກັນໄພສະໜັບສະໜູນ ③ ສໍາລັບຄ່າປະກັນໄພສະໜັບສະໜູນ ④ ໃນເມັງຕູນປະກັນໄພສະໜັບສະໜູນ

ສູນບໍລິການສຸກເສີນດານຸລິ ແລະ ແຮງງານ ☎ 02-2261-8400

6-3 ຄ່າປະກັນໄພການເດີນທາງທົດອາຍຸ

ຄ່າປະກັນໄພການເດີນທາງທົດອາຍຸແມ່ນຫຍັງ?

ຄ່າປະກັນໄພການເດີນທາງທົດອາຍຸ

ສູນບໍລິການສຸກເສີນດານຸລິ ແລະ ແຮງງານ ☎ 02-2261-8400

ຄ່າປະກັນໄພ	ຖານະ
ຄ່າປະກັນໄພ 1 ປີ	100.0%
ຄ່າປະກັນໄພ 2 ປີ	90.0%
ຄ່າປະກັນໄພ 3 ປີ	80.0%
ຄ່າປະກັນໄພ 4 ປີ	102.3%

ສູນບໍລິການສຸກເສີນດານຸລິ ແລະ ແຮງງານ ☎ 02-2261-8400

ສະໜັບສະໜູນປະກັນໄພການເດີນທາງທົດອາຍຸ

ສູນບໍລິການສຸກເສີນດານຸລິ ແລະ ແຮງງານ ☎ 1350 ສູນບໍລິການໄພສຸກເສີນດານຸລິ ☎ 02-777-6689

ເອກະສານທີ່ຈຳເປັນ

ການເຮັດສະໜັບສະໜູນ

ການຍົກລົງສະຖານທີ່ເຮັດວຽກ

ສູນບໍລິການສຸກເສີນດານຸລິ ແລະ ແຮງງານ ☎ 02-2261-8400

6-4 ຄ່າປະກັນໄພການກັບຄືນປະເທດ

ຄ່າປະກັນໄພການກັບຄືນປະເທດແມ່ນຫຍັງ?

ຄວບຄຸມລະອຽດຂອງການຍົກລົງສະຖານທີ່ເຮັດວຽກ

ສະໜັບສະໜູນໂທລະສັບ ສູນບໍລິການສຸກເສີນດານຸລິ

ຄ່າປະກັນໄພ	ຖານະ
ຄ່າປະກັນໄພ 1 ປີ	100.0%
ຄ່າປະກັນໄພ 2 ປີ	102.0%
ຄ່າປະກັນໄພ 3 ປີ	104.7%
ຄ່າປະກັນໄພ 4 ປີ	107.4%

ສູນບໍລິການສຸກເສີນດານຸລິ ແລະ ແຮງງານ ☎ 02-2261-8400

07 ສິ່ງທີ່ເຮັດໃຫ້ຮູ້ວ່າທ່ານຢູ່ປະເທດເກົາຫຼີ

ສູນບໍລິການສຸກເສີນດານຸລິ ແລະ ແຮງງານ ☎ 1350 ສູນບໍລິການໄພສຸກເສີນດານຸລິ ☎ 02-777-6689

ວິທີໂທ

ວັນ	ເວລາ	ວັນ	ເວລາ
1	ເກົາຫຼີ	2	ຈີນ
3	ໄທ	4	ຝຣັ່ງ
5	ເອີລົບຕາເວັນຕົກ	6	ໄທ
7	ອິນໂດເນເຊຍ	8	ຝຣັ່ງ
9	ມົງໂກລ	10	ອຸຍັກຊານ
11	ກຳປູເຈຍ	12	ບຽງຄານ
13	ປາກໄທ	14	ເບຍນາ
15	ມຽນມາ	16	ຟີລິບປິນ
17	ຝີລິບປິນ		

ສະຖານທຸລະກິດວຽກວຽກເຮັດງານ
ໂທລະສັບ: 02-796-1713
ທັງ: 30-4 ສິຕາປິ, ຕະຫຼອດໂລກ ປະຊາກອນ (04401)
ເວັບໄຊ: laembseoul.blogspot.com

Talking to Kids About Racism, Early and Often

인종차별에 대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As protests over the killing of George Floyd (and Ahmaud Arbery and Breonna Taylor) spill into a second week, many parents are wondering how to talk about the deaths and unrest with their children. But just as important in the long run, especially for nonblack parents, is how to keep the conversation about race and racism going when we're not in a moment of national outrage, and to make sure all children see black people as heroes in a wide range of their own stories, and not just as victims of oppression.

In this moment, try to address the killings and protests honestly and in an age appropriate way, said Y. Joy Harris-Smith, Ph.D. a lecturer at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and the co-author of the forthcoming "The ABCs of Diversity: Helping Kids (and Ourselves!) Embrace Our Differences."

You can start having conversations about race in preschool, said Jacqueline Douge, M.D., a pediatrician and child health advocate based in Maryland - children can internalize racial bias between the ages of 2 and 4, according to an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rticle that Dr. Douge co-wrote.

With preschool-age children, you should start by discussing racial differences in a positive way, said Marietta Collins, Ph.D., a clinical psychologist at Morehouse School of Medicine and the co-author of "Something Happened in Our Town: A Child's Story About Racial Injustice," which is a book for children about a police shooting.

Dr. Collins gave the example of a white child asking why another child had brown skin. A parent can take this opportunity to explain what melanin is, and to talk about how wonderful it is that the world has so many different kinds of people.

Older children will be much more

aware of what's going on right now. So find out how much your child knows about the protests, Dr. Harris-Smith said, because kids may know more than we think they do from overhearing the news, their parents talking, or simply noticing what is going on outside in their neighborhoods.

Once you assess what they know, you can have a conversation about the violence against black people without being too explicit with elementary-age children.

Dr. Douge suggested starting with something like: "There are things happening in the news that are upsetting us. Unfortunately there were police officers that made bad choices for the wrong reasons because of the color of our skin." Dr. Collins said that with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you should focus on how unfairly black and brown people have been treated throughout American history to the present day, because fairness is something all children can understand.

If you live someplace where people are actively protesting and your children have observed some destruction, "First and foremost, reassure them you're there to keep them safe," Dr. Douge said. But also explain why people are protesting, and show them positive images of protesting now and from history, she suggested.

Make sure to create space for your child to feel however they need to feel about what you're discussing? they may be angry, sad or scared. "When we're not validated in how we feel, it makes it difficult for us to be active participants in our lives," Dr. Harris-Smith said. Dr. Collins suggested that parents can let their children know, "The important adults in her life are working really hard to make sure these injustices don't continue to happen in our city, country and world." Respect your children's feelings if talking about it is too upsetting, but make sure to leave the door open for future conversations, she continued.

In addition to keeping an open dialogue about racism, a way to raise children who are anti-racist is by making sure your home library has books with black people at the center of their

stories. Christine Taylor-Butler, the prolific children's author and writer of The Lost Tribes Series, said that she got into children's literature because she wanted to see more stories of black joy. "I want stories about kids in a pumpkin patch, and kids in an art museum," she said. "Not only do we want our kids to read, but we want white kids to see? we're not the people you're afraid of."

"I see students clamoring for books that speak to heart, not oppression based on civil rights," Taylor-Butler added. And she is also a fan of books that tell stories of black triumph and invention, like "Whoosh! Lonnie Johnson's Super-Soaking Stream of Inventions," by Chris Barton and illustrated by Don Tate, which is about the black engineer behind the Super Soaker water gun.

With that in mind, I asked several authors and Times editors to offer

suggestions of books to read to children. Some are explicitly about racism, but others are stories with nonwhite protagonists. They are broken down roughly by age range.

Ultimately, words and books should not be the end of your child's education about race and racism. "The best advice I can give parents is to be models for the attitudes, behavior and values that they wish to see in their children," said Nia Heard-Garris, M.D., an attending physician at the Ann and Robert H. Lurie Children's Hospital of Chicago.

"It is not enough to talk about racism, you must strive to be anti-racist and fight against racist policies and practices," Dr. Heard-Garris said. If you have the privilege, "make space, speak up or amplify issues of inequity and injustice." Children see everything.

By Jessica Grose, The New York Times

입국주기별 정보제공
다국어 6개 국어 확대

너의 폰에 마이지뉴스를 다운로드 받아줘

경기다문화뉴스 앱 '마이지뉴스' 개발!!!

다운로드 방법

step.01



안드로이드 - Play스토어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한다.

step.02



애플 - 앱스토어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한다.

step.03



검색 결과 확인 후 설치를 누르고 편리하게 어플을 사용한다.

경기다문화뉴스가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생활 정보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마이지뉴스'를 개발했습니다.

이제 경기다문화뉴스를 스마트폰에서 쉽게 읽어보세요.

더 많은 한국 사회와 복지, 생활, 취업, 교육, 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태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번역기사도 많아요^^

경기다문화뉴스 홈페이지 www.danews.kr 도 방문해 주는 센스!

* 자세한 사항은 경기다문화뉴스 031-8001-0211로 문의하세요 *

고양시 외국인주민 재난기본소득 지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코로나 극복 함께!

고양시(시장 이재준)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도 확대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한 배경으로는 결혼이민자의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취득과 영주가능성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가 고려됐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 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어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으로 결정됐다.

지원인원은 약 4,220여 명이며, 외국인주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다르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지원대상은 '20.4.1.(수) 24시 현재 고양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20.5.4.(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이다. 또한, 지급금액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0만원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은 5만원으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류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본인 신청이 원칙으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및 부득이한 사정에서 한해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서명 된 신청서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 위임자가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 지참해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양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콜센터(☎ 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87. 진수성찬

대화-경로당에서



안진숙

은숙 : 오늘 100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니까 서둘러야 해.
 메이 : 저도 열심히 도와 드릴게요. 오늘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왔어요.
 민정 : 아파트 부녀회 임원들이랑 고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고 있어서 다행이야.
 메이 : 전에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큰 효도잔치를 한 적이 있나요?
 은숙 : 매년 이렇게 크게는 안 하는데 작년에는 5월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취소가 되었어. 그래서 올해 더 크게 하는 거야. 두 사람은 실력이 좋으니까 걱정 안 해.
 민정 : 오늘 총 몇 가지 음식을 하는 거예요?
 은숙 : 일단 갈비, 불고기, 잡채, 잔치국수, 육개장, 조기찜, 동태전, 홍어찜을 만들 거야. 그리고 떡이랑 과일 음료수는 따로 주문을 해 놓았어.
 민정 : 정말 진수성찬이네요. 어른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메이 : 저는 아직 홍어찜은 못 먹어 봤어요, 나중에 먹어보고 싶어요.
 민정 : 메이 씨는 먹어보면 깜짝 놀랄 거야. 나중에 맛보고 이야기해 줘.
 메이 : 오늘 잔치는 음식만 먹나요?
 민정 : 관리사무소에서 가수랑 난타공연 팀, 마술사를 불러서 공연을 한다고 했어.
 메이 : 그럼 우리도 빨리 음식 준비 마치고 구경해요.
 민정 : 음식 재료 꺼내 와서 시작해요.
 은숙 : 내가 학생 2명 보조로 데려 왔으니까 도움이 될 거야.
 민정 : 그럼 오랜만에 실력 발휘 한번 해 보자.
 은숙 : 11시까지 준비해야 해. 그 때부터 음식을 배식한다고 방송을 했어.
 메이 : 걱정마세요.

해설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실입니다. 오늘 대화에 나온 '진수성찬'은 '푸짐하게 잘 차린 맛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한국은 큰 잔치나 행사를 하면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모여 나눠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이나 행사의 특징을 고려해서 음식이 준비됩니다.

오늘의 표현 - 진수성찬

푸짐하게 잘 차린 맛있는 음식

- 제가 왔다고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 주셔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 이번 어머님 생신잔치는 형제들끼리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축하해 드리고 했어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잔치나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잔치나 행사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을 위한 잔치 개최하는 것은 효도의 좋은 실천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에게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한국문화 - 병역 제도

홍어 요리는 한국의 전라도 지방에서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홍어를 삭혀 먹는 독특한 방식으로 코를 톡 쏘는 알싸한 맛과 향기로 인해 호불호가 나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주로 홍어찜이나 홍어무침으로 먹는데 최근에는 홍어삼합이라고 홍어와 돼지고기, 김치를 함께 먹는 방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족 코로나-19 심리지원 프로젝트]

가족뮤지컬 - 피터팬 "아주 특별한 이야기"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들고 지친 다문화가족의 몸과 마음에 위로가 되어줄 가족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

마법의 섬 '네버랜드' 여러분의 상상은 곧 현실이 됩니다~!!!

☆ 일 시 : 2020. 6. 20.(토) 15:00~17:00
 ☆ 장 소 : 뚝대백화점 9층 문화홀
 ☆ 대 상 : 다문화가족 100명
 ☆ 신청방법 : ☎ 031-938-9805 정수정 사회복지사
 ☆ 협력업체 : 극단자유마당, 뚝대백화점

* 단, 6월 15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가 강화될 경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일자리 고민, 안산형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해결해요

안산시, 7월부터 11월까지 보육도우미 등 73개 분야 공공일자리 4천명 투입



일자리 고민하는 다문화 가족이라면 ‘안산형 뉴딜 일자리사업’에 참여해보세요.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맞춰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안산형 뉴딜 일자리사업’에 시동을 건다.

안산시에 따르면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안산형 뉴딜 일자리사업은 오는 7월부터 11월

까지 5개월 동안 실직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직과 취업난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주 대상이며, 정부가 취약계층의 공공일 자리를 확대하는 방침에 맞춰 마련됐다.

안산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인 ‘뉴딜일자리사업 TF팀’을 신설하는 한편, 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42개 부서에서 ▲생활방역 및 안전 ▲골목상권, 소상공인 회복 ▲문화, 예술분야 환경개선 ▲긴급 공공업무 지원 등 73개 공공일자리 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일자리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인력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불법 주정차 지도 ▲문화재 보존정비 등이다.

안산시는 이달 중 정부의 제3차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국비를 포함해 모두 176억 원이 소요되는 일자

리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해 취약계층, 실직자, 휴·폐업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 4000여 명을 모집해 추진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등 막대한 시민이 늘고 있다”라며 “취약계층 생계안정 및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산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일자리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42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해 관내 병원과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제2단계 희망일자리사업도 1단계보다 50여 명 증가한 425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한국어 공부에 더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김영의 기자

윤화섭 시장 “도움 필요한 시민에게 언제든 찾아가겠다”

민선7기 2주년, 시흥, 광명시장과 SKB 한빛방송 특집 대담 진행해 눈길

윤화섭 안산시장은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시흥, 광명시장과 함께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의 ‘포스트 코로나, 지방자치의 힘’ 특집대담 방송에 출연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언제든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시흥시 오이도박물관에서 진행된 녹화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도 출연해 민선7기 취임 2주년을 맞은 소감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상황을 공유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앞으로의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윤화섭 시장은 취임 2주년 소감을 밝히며 “전국 최초로 추진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사업을 비롯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을 추진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한 데 이어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도 처음으로 운행에 나섰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시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을 지원하는 등 시민체감형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이다.

윤 시장은 이어 “6년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시 인구는 시민과 함께 이뤄낸 희망의 메시지”라며 “도시 곳곳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균형을 맞추며 도시 전체를 재설계할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현재 산발

적으로 감염 사태가 다시 발생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시민 등 모두의 노력 ‘덕분에’ 다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며 “집단감염 및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향후 지방자치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녹화된 프로그램은 오는 19일 본방송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일주일간 매일 5회씩(10:30, 14:30, 18:30, 22:30, 00:30)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방역 사각지대 없도록' 동포교회 쉼터 긴급점검

안산시, 쉼터 등 9개소 외국인 지원시설 집중 방역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수도권에 집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가 중국동포교회 이주민 쉼터로까지 이어지자 선제적으로 관내 유사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과 방역을 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 9일 민간생활방역단 등 3개조 13명을 투입해 구세군다문화센터교회 등 관내 중국인동포교회 9개소를 긴급 점검하고, 외국인 지원시설 등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중국동포교회 쉼터에서 9명의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유사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내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활동을 진행했다.

안산시는 이어 밀폐되고 밀집, 밀접한 생활환경에 쉽게 노출돼 감염에 취약한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등의 안전과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다문화마을특구 내 다문화거리 일대 상가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대한 방역과 방역수칙 준수 홍보활동을 벌였다.

전날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안산시는 원곡동 소재 인력시장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50여 개소에 대한 합동점검과 방역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등 집단감염 사태 예방에 방역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전파는 다양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밀집해 밀접한 접촉을 하는 환경에 노출돼 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사각지대를 특별히 경계하며 연쇄감염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산화폐 다운 사용하면 10% 특별 인센티브 드려요

다문화가족도 슬기로운 가정경제를 위해 안산화폐 '다운'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자.

안산화폐 다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특히 사용되고 있다.

우선 안산시민 모두에게 10만원(외국인 주민 7만원)씩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다운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 다운으로 지급되면서 올해 확정된 다운 발행규모만 2천5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와 경기도 등이 다운을 통한 정책발행분이 확대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카드충전 또는 지류식 화폐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일반발행분 지원계획도 마련 중이어서 올해 발행액은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화섭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운 발행액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며, 10% 특별 인센티브 정책은 오는 7월까지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 다운 일반발행분 1천240억 원에 대한 예산도 이미 확보된 상태다.

김영의 기자

김영의 기자

꿈빛학교 경기도 교육청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 모집 안내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란?

-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 위탁 기간 동안의 학력이 인정되어 원적학교에 복귀해도 진급이나 졸업 가능

모집대상

-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학사운영

- 가. 학사기간 :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2학기, 주5일, 32주 과정)
- 나. 편성 - 오전 (09:00 ~ 13:50) : 한국어 및 보통교과
- 오후 (14:00 ~ 17:00) : 대안교과(한국어 제외)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될 때까지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진행)

- 가. 적응교육
 - 기초학력(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및 한국어 능력 평가, 학교생활안내, 상호이해 및 자기목표 설정
- 나. 보통교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중·고등학교 기본 공통과정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국사
- 다. 대안교과
 - 한국어 학교현장에서 사용되는 어휘 및 한국어 학습을 통해 공교육 적응력 향상
 - 미술 미술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표현력 향상
 - 표현 및 창작운동 극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 습득
 - 노작활동 생태이론, 원예, 목공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각 생태의 기능 이해
 - 인간관계 집단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기술 개발
- 라. 창의적 체험활동
 - 진로활동 다각적 진로지도·자아탐색을 통해 자기이해 증진 및 진로의식 향상을 도모
 - 봉사활동 나눔활동을 통한 개인의 심리정서적 성장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
 - 자율활동 학생의 인지·정서적 사고활동 증대 및 자기 주도적인 기회 제공
 - 동아리활동 자발적인 활동을 통한 소질 및 적성 계발 및 심미적 역량 함양

031 - 599 - 1770 (담당자)
031 - 599 - 1785 (진로개발팀장)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꿈빛학교 경기도 교육청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京畿道教育厅委托型多文化代案学校

什么是委托型多文化代案学校?

- 为在校学习中遭遇适应困难的多文化·中途入境学生准备的代案学校
- 委托期间的学历得到认可, 即使回到原籍学校也可以晋级或毕业

招生对象

- 在适应中遇到困难의京畿道内的初中·高中的多文化·中途入境的青少年

教务管理

- 가. 教务期间 : 4月至12月 (全年2个学期, 每周5天, 32周课程)
- 나. 课程 - 上午 (09:00 ~ 13:50) : 韩语及基本科目
- 下午 (14:00 ~ 17:00) : 代案科目 (韩语除外) 及创意性体验活动

教育课程

(为防止新冠疫情扩散实行高强度的保持社交距离结束为止,将进行在线视频授课)

- 가. 适应教育
 - 基础学历 (国语, 英语, 数学, 社会, 科学) 及韩语能力评估, 学校生活指南, 相互理解及自我目标设定
- 나. 普通科目 为增进基础学历的初中·高中学校的基本共同课程 国语, 英语, 数学, 社会, 科学
- 다. 代案科目
 - 韩语 通过在学校现场使用的词汇及韩语的学习, 提高公共教育的适应能力
 - 美术 通过美术了解学生的心理状态和提高表达能力
 - 表演及创作活动 通过戏剧活动表达自己的感情, 学习积极的沟通技巧
 - 园艺劳作 通过生态理论, 园艺, 木工等活动, 了解生活在环境中的人类和各个生态功能
 - 人际关系 通过集体活动形成良好的人际关系, 提高社交技巧
- 라. 创意性体验活动
 - 前途活动 通过多角度的前途指导·自我探索增进自我理解, 谋求提高前途意识
 - 爱心活动 通过分享活动实现个人的心理情感的增长和形成社区共同体意识
 - 自律活动 增加学生的认知·情绪上的思考活动及提供自我主导的机会
 - 社团活动 通过自发性的活动发掘天赋及培养审美感性力量

031 - 599 - 1770 (负责人)
031 - 599 - 1785 (前途开发组长)

安山市国际青少年中心



코로나시대, 이주민 안전 위한 계도 활동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와 시민단체 참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검진 및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신고 독려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이번 계도 활동은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서광

석) 및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에는 안산 다문화거리에서 채보근, 이병철, 왕수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계도 활동이 진행됐다.

송하성 기자

นโยบายสวัสดิการของGyeonggi-doเพื่อช่วยให้เอาชนะโคโรนากับภาวะเศรษฐกิจที่ยากลำบาก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 도와주는 경기도복지정책

หลายคนในGyeonggi-do รวมทั้ง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 กำลังดิ้นรนกับการว่างงาน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ของไวรัสโคโรนา 19 ดังนั้นGyeonggi-do จึงรองรับวิกฤตเศรษฐกิจของบุคคลที่อาศัยอยู่ในGyeonggi-do ผ่านนโยบาย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จัดสวัสดิการต่างๆเรามองที่นโยบายของGyeonggi-do อย่างไร

โครงการ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ชั่วคราวผู้มีรายได้น้อยคืออะไร?

นี่เป็นธุรกิจชั่วคราวที่ให้คู่ปกครองบริโภค(บัตรกำนัล)แก่ผู้รับชีวิตขั้นพื้นฐานและชนชั้นสูงขึ้นไปเพื่อเพิ่มความมั่นคง

คงและการใช้ชีวิตในครอบครัวที่มีรายได้น้อยในภาวะเศรษฐกิจตกต่ำในสภาวะโคโรนา 19 บัตรกำนัลมูลค่า 1,108,000 ~ 1,400,000 วอนจะถูกจ่ายให้กับครอบครัวพื้นฐานทั้งหมด 1,690,000 ครอบครัวเป็นเวลา 4 เดือน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มี 4คนเป็นต้นไป

○ช่วงเวลารับสมัคร : เมษายนถึงปลายเดือนกรกฎาคม 2563 (4 เดือน)

○สมัครที่ : 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การปกครองเขตที่อยู่

○ผู้มีคุณสมบัติเหมาะสม : ผู้รับชีวิตขั้นพื้นฐานและผู้พลัดถิ่นที่ถูกต้องกฎหมาย

○เนื้อหาการสนับสนุน : 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ที่แตกต่างกันตามคุณสมบัติเงินเดือนและจำนวนของ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

- ผู้รับตามหลักการของผู้รับเองแต่เป็นไปได้ที่จะได้รับสำหรับคนที่ยากลำบากและยากต่อการเข้าชม รายได้จากภัยพิบัติขั้นพื้นฐานในGyeonggi-do คืออะไร?

นี่คือเงินเดือนที่จ่ายเงิน100,000 วอนเป็นคู่ปกครองท้องถิ่นสำหรับผู้อยู่อาศัยในGyeonggi-doรวมถึงครอบครัว

ทามนฮวา(F6)และผู้อยู่อาศัยถาวร(F5)เพื่อรักษารายได้อันตรายของครัวเรือนในภาวะวิกฤตและเอาชนะภาวะเศรษฐกิจตกต่ำในภัยพิบัติ

○ช่วงเวลารับสมัคร: 20 เมษายน - 31 กรกฎาคม 2563

○สมัครที่ : 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การปกครองเขตที่อยู่หรือธนาคารNonghyup

○ผู้มีคุณสมบัติเหมาะสม : ใครที่อาศัยในGyeonggi-do

○เนื้อหาการสนับสนุน: 100,000 วอนจากคู่ปกครองท้องถิ่น - คุณ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และสมัครแทนสมาชิกในครอบครัวGyeonggi-doสินเชื่อสินเชื่อดำพิเศษคืออะไร?

เป็นธุรกิจที่ปล่อยสินเชื่อดำพิเศษใน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ต่ำ 1% เพื่อช่วยเหลือโคโรนา 19 ที่อาศัยอยู่ในGyeonggi-do

○ช่วงเวลารับสมัคร:10 เมษายน 2020 ~ จนกว่าเงินจะหมด

○วิธีสมัคร:ออนไลน์“แพลตฟอร์มสวัสดิการGyeonggi”หรือ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การปกครองที่ได้รับการแก้ไข

○ผู้มีคุณสมบัติเหมาะสม : ผู้อาศัยในGyeonggi-do พร้อมอันดับความน่าเชื่อถือ 7 หรือต่ำกว่า

○เนื้อหา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งินให้สินเชื่อขนาดเล็กสูงสุด 3 ล้านวอนสำหรับกองทุนเพื่อการดำรงชีวิตฉุกเฉิน

이아리 기자

안산 소상공인 특례보증, 다문화가족도 도전해요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위해 시중은행과 경영정상화 협약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KEB하나은행·NH농협은행과 협력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보증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청 제1회의실에서 지난 5월 28일 열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보증료 지원 업무협약식’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해당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에 뜻을 모았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보를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119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는 등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천531명의 소상공인에게 594억 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올해는 시 자금을 투입해

2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했으며, 이를 포함해 ▲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기업은행 초저금리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협약보증 ▲경기도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자금 등의 보증상품으로 안산시 소상공인에게 모두 7천949건 2천81억 원이 지원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원 실적인 2천24건, 478억 원보다 4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시와 협약 참여 기관들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와 보증료 지원에도 나선다.

안산시는 대출이자와 보증료 지원을 위해 모두 5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관내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융자금을 협약은행(하나은행, 농협은행)에서 신규 대출할 때 연 4% 이내 대출이자와 연 1% 보증수수료를 1년간 지원한다. 경기신보는 보증수수료 지원 업무를 맡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및 보증료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안산시청 홈페이지(www.ansan.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소상공인 다문화가족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이자와 보증료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압박을 완화해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이주배경청소년지원협의체, 이사회 및 운영진 꾸리고 22일 공동워크숍 진행

중도입국청소년 등 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수도권 3개 기관이 공동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협의체(이하 '이청협')는 지난 5월 22일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난민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회원 간 공동교육을 진행했다.

이청협은 지난 2018년, 서울온드림교육센터(김수영 센터장)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설동주 안드레아 신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이승미 센터장) 등 3개 이주배경청소년 전문 사회복지시설이 뜻을 같이하여 발족한 단체다.

해마다 각 센터별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사업의 방향 등을 공유하는 공동워크숍을 진행해 왔으며 2020년 마침내 이청협의 회칙을 수립하고 4월 온라인 총회를 통해 이사진과 운영진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발족 이후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운영법인이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으로 변경되고 새로운 센터장이 발령받아 운영에 박차를 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날 공동워크숍에서는 각 센터별 직원과의 만남, 이사진과 운영진 소개, 이청협의 역할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하나가 되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난민과 체류에 대한 정보, 사회복지사로서 난민들을 대하는 자세와 역할, 난민 당사자가 직접 전하는 난민을 신청하게 된 사유, 난민인정자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인천공항에서 278일간 머물게 된 6인의 난민가정 사례발표 등이 진행됐다.

지난 3년 남짓 난민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의 사업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서로 소통하

고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본격적인 워크숍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회를 통해 선출된 김수영 회장은 “그간 3개 센터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으나 이제 회원들이 이렇게 많아졌고 대표와 이사진, 운영진을 꾸려 활동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으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청협은 올 하반기 공동사업으로 각 센터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청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만방에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지는 기자



SNS 채널 통한 도민들과의 만남 시작!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개소 4주년 행사 열어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가 11일 개소 4주년을 맞아 이벤트를 실시했다.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상상캠퍼스는 옛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를 생활문화와 창업 창직의 현장으로 조성 및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기존 팔로워 뿐만 아니라 신규 팔로워도 이벤트에 참여했다. OX퀴즈, 초성퀴즈, 응원댓글 달기 등 채널별로 다채로운 이벤트가 실시됐다.

상상캠퍼스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에서 진행되며 팔로워들과 더욱 폭넓게 소통했다.

이벤트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추첨을 통해 커피,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기프트콘을 증정했다.

한편, 경기상상캠퍼스는 오는 8월 '디자인1978' 개관을 끝으로 약 4년여에 걸친 공간 조성이 완료된다. 디자인1978은 경기도 내 지역, 환경, 문화, 다문화, 역사적 특성에 기반한 디자인 콘텐츠를 개발, 실험하고 공유, 확산시키는 경기도디자인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상상캠퍼스는 2016년 6월 처음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숲 속 모두의 놀이터 '포레포레' ▲지역문화인력 양성과정 '다사리문화기획학교' ▲누구나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상상X메이커' ▲창업 창직 활동을 펼치는 '입주단체 & 라운지멤버' 등을 모집하는 등 문화 예술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며 작년까지만 해도 누적 8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유희공간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지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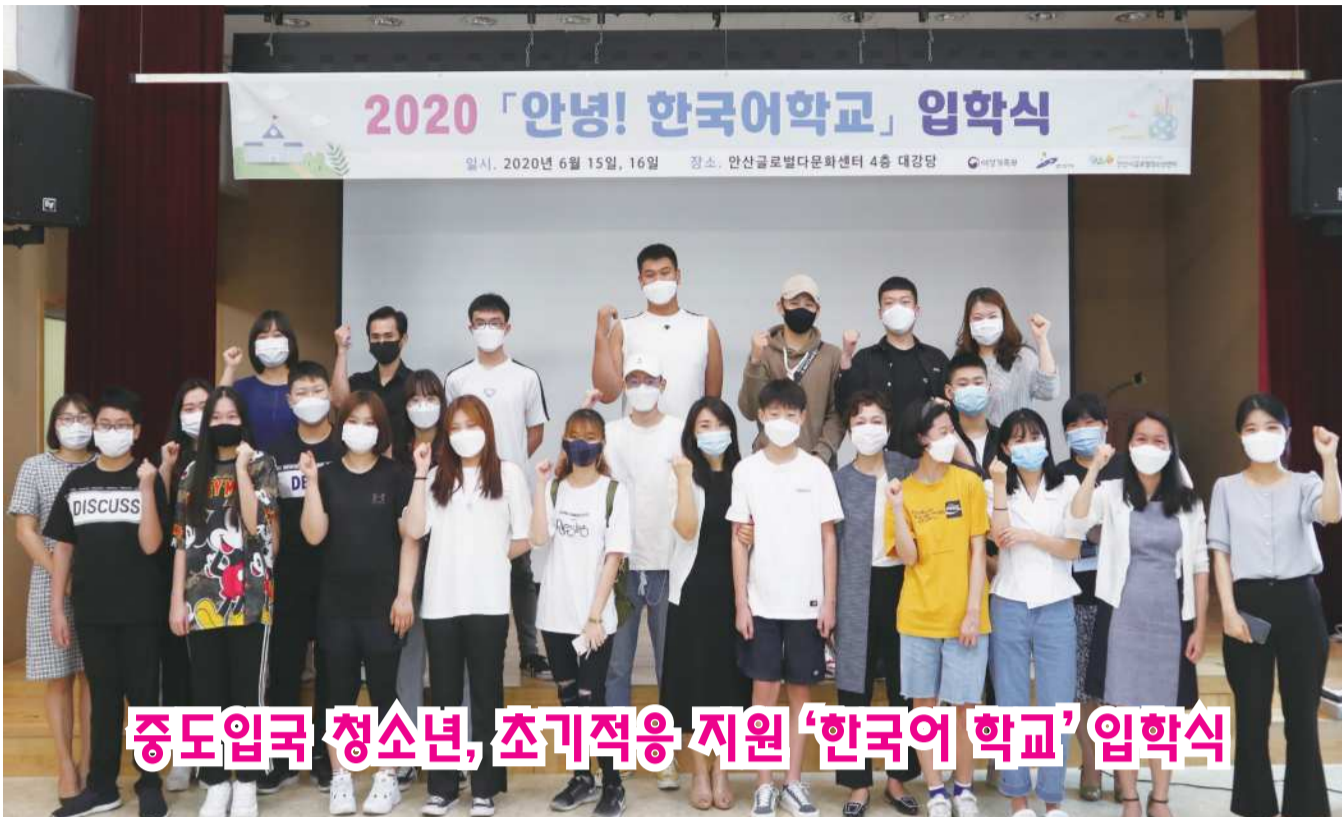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30일까지 안산시 SNS 통해 진행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시민들의 가정폭력 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오는 30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은 ▲주라 주라 관심주라, 보라 보라 바라보라 ▲LOOK AGAIN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 등을 슬로건으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기발견 등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새올행정 포털시스템 '직원게시판'을 이용해 캠페인 동참 댓글달기 솔선수범 참여를 시작으로 시민들과 페이스북 등 안산시 SNS를 통해 댓글달기 참여 운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에는 민·관·경 10개 기관으로 구성된 안산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관내 4개 가정폭력 상담소, 안산시 성인지 강사, 촘촘안전망 서포터즈 등이 동참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안산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안산역, 중앙역, 상록수역,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에 홍보 배너를 설치·게시해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지는 기자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온라인 수업 중 이틀 입학식 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이승미)는 6월 15일과 16일 양일 간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안녕! 한국어 학교’ 및 ‘안녕! 한국어 예비 학교’ 입학식을 진행했다. ‘안녕!한국어 학교’는 국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안녕!한국어 예비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지정 한국어인증과정으로 주로 국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지원하는 과정이다.

양일 간 진행된 입학식에는 중국(1명), 러시아(12명), 우즈베키스탄(3명), 카자흐스탄(3명), 베트남(3명), 몽골(1명), 태국(1명)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중도입국 청소년 40여명과 그 가족이 참석했다.

중도입국 청소년과 가족들은 입학식을

통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안녕! 한국어(예비)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 및 일과시간, 그리고 학교 생활지침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 입학식 후 반 배정을 위한 ‘한국어 듣기와 쓰기’ 시험을 보았으며, 한국어 수준에 따라 각자 4개의 반에 배정될 예정이다.

입학식에 참여한 한 중도입국 청소년은 “온라인으로만 공부하고 센터의 학교에 오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입학식을 위해 학교에 나오니 너무 좋다”며 “한국어 공부 빨리 하고 싶다. 다니고 싶은 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센터에서 배울 한국어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3월 27일부터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안

녕! 한국어학교’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초기적응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라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부모님이 모두 일을 하러 나가는 가정의 많은 아이들이 혼자서 온라인 수업을 받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생활방역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학생·학부모 대상 가정 내의 철저한 방역 지침을 교육했으며, 센터 내에서도 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안산시, 코로나 접촉자 관리 노하우 세계 알린다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정책인 ‘K-방역’을 전 세계에 알리는 ‘K-방역 웹세미나’에 참석해 지역사회에서의 방역 노하우를 전달한다.

10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K-방역 제5차 웹세미나’에 박건희 상록수보건소장이 참석해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19 접촉자 조사’를 주제로 지자체에서 확진자 접촉자 조사 방법 및 관리 방식을 세계에 알린다.

박건희 소장은 그간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경험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접촉자 조사 및 관리 방안을 전세계 방역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쉽게 설명한다.

전국 최고의 다문화도시로 평가받는 안산시는 코로나19 감염 초기 많은 외국인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감염에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를 받아왔으나, ‘안산형 방역 혁신정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안산시는 특히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특별 관리,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방역을 펼치고 있다. 한 외국인 주민은 안산시의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해 “배려와 보살핌에 감사하다”고 개인 SNS에 글을 게재하면서 한일 양국에서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안산시는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인구대비 확진자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5차로 진행된 웹세미나는 ‘역학조사 및 격리자 관리’ 경험을 전 세계에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박건희 소장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국제사회의 ‘K-방역’ 경험 공유 요청에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정부부처 등의 참여로 지난달 4일부터 추진된 웹세미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된 1~4차 웹세미나에는 최대 73개 국가의 902명이 참여해 실시간으로 방역과 관련한 문의를 주고받는 등 K-방역을 적극 알리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민안전을 위해 추진 중인 ‘안산형 방역 혁신정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关于在韩登记外国人离韩前应办理在入境许可，并“再入境”时提交诊断证明 등록외국인 출국할 때는 미리 재입국허가 신청해야

韩国政府从6月1日起开始实施的最新出入境政策，有登陆证的外国人离开韩国时，必须先申请“再入境许可”，再重新回到韩国时务必备“诊断证明”才可以入境，如果未办理再入境许可离韩则注销其在韩外国人登记。

此次措施只限2020年6月1日以后出国再入境的外国人，6月1日以前没有申请再入境许可而出国的外国人，即使没有再入境许可证明和诊断证明也可以入境，但是符合下列条件之一 (㉠或㉡或

㉢) 的无须办理再入境许可及无需持有并提交诊断证明，离境后可以直接”再入境“韩国。

㉠ 外交 (A-10, 公务 (A-2), 协定 (A-3), 在外同胞 (F-4) 等签证的滞留资格持有者;

㉡ 持韩国驻外使馆出具的“免隔离证明”人员。㉢ 以商务活动、采访、学术为目的入韩的“免签证明”持有人。

※申请再入境时外国人所提交的材

料:

护照, 外国人登陆证, 综合申请表、再入境许可申请表和再入境时提交诊断证明同意书及再入境情况说明。2020年6月1日至6月30日期间, 无须提前预约可直接前往辖区出入境外国人厅(事务所, 办事处)离境当天也可直接到离境的机场(港口)办事大厅办理, 无须提前预约。

〈한글 기사 17면〉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법률상식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 초청

결혼이민자는 부모와 가족을 방문동거(F-1)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초기 정착 지원단계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최초 입국일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한 부모에게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용해줍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용하는데,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한정됩니다.

결혼이민자의 가족 방문동거(F-1) 비자 초청은 만 18세 이상 사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됩니다.

결혼이민자의 임신과 출산이 입증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부모의 출산 및 양육지원이 어려운 경우, 결혼이민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허용됩니다. 다만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한정됩니다.

다만 자녀가 없더라도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어 간병이 필요하거나,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이 지났더라도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이 방문동거 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및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귀화자의 경우 외국국적 부모(최대 2명) 및 4촌 이내 여성 혈족(최대 1명)을 방문동거(F-1) 사증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4촌 이내 여성 혈족은 귀화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에 한해서만 초청이 가능하며, 입양으로 친척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邀请结婚移民的父母及家人

结婚移民者可以邀请他们的父母和家人来韩国与他们同居，即可申请探亲同居(F-1)签证。

结婚移民者在最初的韩国定居阶段，政府允许从结婚移民者最初入境之日起一年内让其父母可在韩国和其子女共同生活。此外，为照顾结婚移民者的怀孕和分娩、抚养子女等目的允许父母在韩国停留。期限最长为4年零10个月。将出生子女的年龄限制在7周岁那年的3月末为期限。结婚移民者的探亲同居(F-1)签证邀请，除了邀请父母以外在特殊情况下还可邀请1名18周岁以上表亲以内的女性。比不当结婚移民者的怀孕、生育情况被证实而需要照顾的情况下，若其父母已去世或年满65周岁以上高龄等原因，难以照顾的时候韩国政府允许其表亲的来访照顾(但事实上比邀请父母时难度大的多)。停留时间也是同样最长可停留4年零10个月，期限也定为出生子女的年龄到7周岁那年的3月末。另外，即使没有子女，结婚移民者或其配偶患有重症疾病，需要看护；即使子女年满7周岁的3月底已过，但若其子女有残疾而结婚移民者独自抚养子女有困难；抚养3人以上多子女家庭等情况时，根据人道主义原则，政府允许让结婚移民者的父母及家属持探亲同居签证滞留在韩国。

而且，即使不属于上述理由，对于归化者(取得韩国国籍的人)，可以邀请外籍父母(最多2人)和4寸以内的女性血亲(最多1人)的访问同居(F-1)签证。此时也同样对邀请4寸以内的女性血亲，只有在归化者的父母去世或年满65岁以上高龄的情况下才可以邀请。以领养的形式而形成亲戚关系的家庭情况除外。

김예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주 및 비자 전문 변호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주여성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수원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 등 다문화 가족 및 결혼 이주여성 관련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个体户和特殊雇佣多元文化家庭，可申请紧急雇佣稳补贴金

“每人150万韩元” 在线申请一周之内申请人数聚集33万名，7月1日起实施离线申请（访问申请）

针对从事特殊雇佣(特雇)工作的人员，如因新型冠状病毒感染症(新冠肺炎)而受害的学习辅导老师和自由工作者，小规模个体经营户，无薪休假者等为对象政府发放“新冠肺炎紧急雇佣稳定补贴金”。在线申请的一周之内约有33万人报名。

8日，据雇佣劳动部统计，申请“新冠肺炎紧急雇佣稳定补贴金”件数，以前一天为准，达到了32万8千126件。

紧急雇佣稳定补贴金是处在雇佣保险死角地带的特殊雇佣者等为对象，每人支援150万韩元的生活费。

在韩国居住的多文化家庭大多数是从事自营业(个体户)或放学后辅导老师，补习班讲师，传销售货员，保险设计师，旅游服务人员，翻译人员，

家政服务，学习指导教师等工作。因此，此次紧急雇佣稳定补贴金将起到很大的帮助作用。

尤其是以本国人为支援对象的支付原则将破例扩大到结婚移民者，使其也能得到补贴金。

劳动部从本月1日起通过专用网站(https://covid19.ei.go.kr)受理紧急雇佣稳定支援金申请。

到6月12日为止，根据出生年份的尾数适用5部制接受申请。星期一接受出生年份尾数为1或6的人的报名申请(与购买公共口罩方式相同)。7月1日开始接受线下申请(访问申请)。

要想申请补贴金，则需提交未加入雇佣保险证明(如：特殊雇佣职业，自由工作人员，小规模个体户等)。另外，还要证明今年3~4月的收入或销售额

要比对照期间(去年12月等)减少25%以上的事实。

无薪休假者是指就职在未满50人企业的雇佣保险加入者，其范围是从今年3月份到5月份，处于一定时间段无薪休假者。

如果被选定为紧急雇佣稳定补贴金领取者，将从申请日起2周内得到100万韩元，并于下个月再得到50万韩元。劳动部推算，补贴金支付对象约为114万人。

另外，为领取政府维持雇佣补贴金，向劳动部申报休业·休职计划的企业从今年年初开始到本月5日为止达到了7万892家。雇佣维持补贴金是指对于在经营困难的情况下，也没减少工作人员而采取带薪休业或带薪停职措施的企业，政府将支援一部分休业或休职津贴的制度。

“미등록 이주아동, 차별받지 않고 행복할 권리 보장해야”

김현삼 도의원, 이주아동 지원 법제화 방안 마련 건의안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현삼(안산7,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이주아동 중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아동으로서의 기본 인권을 존중,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 부여할 방안을 법제화하고, 아동으로서의 복지 및 권리를 보

장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삼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의 인권 보장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도덕적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까지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권밖에 머물 수 없는 실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우리 국민과 같은 언어, 문화, 생활환경 등 정체성을 습득해왔음에

도 불구하고, 이들을 단순히 불법체류자로 취급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반인권적, 반인도적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아동으로서의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을 개정하여 출생등록 방안을 법제화하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산시는 독거노인, 요양병원 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부터 방문 서비스 요청을 받으면 담당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담 인력이 대상자 확인 후 생활안정지원금, 경기도 및 정부 재난지원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과 사회복지 관련 시설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직원, 채납조사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방문 전담 인력을 구성해 취약계층 불편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안산화정영어마을, 중·고등학생 위한 영어토론반

온라인 ROUND TABLE 모집, 학년 구분 없이 20명 선착순



안산시(시장 윤화섭) 화정영어마을은 관내 중·고등학생의 영어학습을 위해 ‘영어토론반 온라인 ROUND TABLE’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온라인 ROUND TABLE 프로그램은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지구촌 다양한 주제의 영어뉴스를 읽어보고 내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공유함으로써 사고력과 표현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

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관내 거주 중·고등학생 중에서 영어로 수업참가가 가능하고 화상회의 앱 ‘줌(ZOOM)’을 이용해 화상·음성수업이 가능한 학생의 신청을 받아 영어인터뷰를 통해 학년 구분 없이 한 반에 10명씩 최대 2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수업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8시 한 시간 동안 총 4회 진행될 예정이다.

민진영 안산화정영어마을 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바람에 발맞춰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

된 후에도 다양한 연령층과 학습목표에 부응하는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모집은 안산화정영어마을 홈페이지(www.ahev.g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안산화정영어마을 기획행정팀(031-484-6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문화가족들도 자녀의 영어공부를 위해 이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한편 안산화정영어마을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어학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 시민에게 친숙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 평생학습관, 청년 위한 청춘다락방

안산시(시장 윤화섭) 평생학습관은 청년들을 위한 문화를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 사업인 ‘청춘다락방’의 ‘안산시청춘문화기획단’ 제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평생학습관은 2018년부터 평생교육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청년프로젝트 ‘청설피팅’을 운영, 청년들의 요구와 관심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선제해 제공하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청년들의 네트워킹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청설피팅은 청년들이 스스로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문화를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 사업인 ‘청춘다락방’을 운영한다. 문의 031-409-1877

이지은 기자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외국인주민 간 관계 형성 및 지역사회 적응지원 도와요”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주민 국가별 공동체 대표 임명장 수여식 개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5월 31일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야외주차장에서 코로나 19로 연기되었던 '2020년 외국인주민 국가별 공동체 대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명장 수여식 외에도 국가별 국기 게양식 및 제13회 세계인의 날 기념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종교)는 특히 코로나 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소규모 인원으로 실외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참여자 전원 증상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진행된 행사는 제13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매년 5월 20일)를 코로나 19로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자 10명(경기도지사 1, 시장 5, 의장 2, 국회의원 2)에게 표창장이 전달됐다. 또 국가별 공동체 대표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국가별 국기 게양식으로 행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행사에 참여한 공동체 대표들은 “국기 게양식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소감을 표했다.

이종교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침체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시흥시 외국인 주민과 마음 놓고 교류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생활방역을 실천하며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주민 간의 관계형성 및 지역사회 적응지원을 위해 네팔, 몽골, 미얀마 등 총 12개국의 공동체 자조모임 및 문화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 중심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활성화하고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对4月12日前入境的短期滞留者暂时允许改签结婚移民签证

4월 12일 이전 입국한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비자 변경 일시 허용

法务部表示, 为了抑制新冠肺炎的流入并为解除国际婚姻家庭的苦衷, 从2020年5月25日起, 将暂时允许以短期滞留资格入境的外国人在韩国改签结婚移民(F-6)资格。原本以短期签证入境的外国人除了分娩等人道主义情况以外, 是不能在韩国国内改签结婚移民(F-6)资格。该措施是, 防止以短期签证入境的外国人在出境后获得结婚移民签证而再次入境时流入新冠肺炎的可能性, 并解除国际婚姻家庭的苦衷。

这项措施只限于在2020年4月12日之前以短期签证入境的韩国人的配偶。即在2020年4月12日之前进入

韩国的外国人, 以短期签证进入韩国之前已结婚或以短期签证进入韩国后结婚超过90天的人。

但即使属于资格变更申请对象, 如果不能满足结婚移民签证发放条件, 也不能获得变更许可。换句话说, 允许改签的人也必须满足在海外的外交领事馆申请结婚移民(F-6)签证时的相关法规及程序标准。即必须符合《出入境管理法实施条例》第9条第4款(以结婚同居目的邀请外国人的程序)第9条第5款(以结婚目的发放签证规定。)才能申请改签。

将日期定于4月12日的理由是因为从4月13日开始

入境的人是充分意识到由于新冠肺炎韩国开始强化发放签证措施, 使得外国人出入境会有困难的情况下没有选择结婚签证而选择了短期签证入境。

法务部的负责官员说: “此举只是说明可以申请改签资格, 但这并不意味着简单地通过申请就可以得到变更许可。”他还说: “这次允许改签对象不包括非法滞留外国人。”

这项措施将从2020年5月25日生效, 到有另行通知日为止。

翻译: 京畿道SNS记者 朱英

<한글 기사 44면>

등록외국인, 출국할 때는 미리 재입국허가 신청해야

안하면 재입국 못하고 외국인등록도 말소돼, 입국시 진단서 의무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이 출국하려면 사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다시 입국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국내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허가 면제가 중단되고, 이를 대신해 재입국허가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코로나19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이후 1년 이내(영주자격 소지자는 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가 면제됐다.

하지만 6월부터는 출국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를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외국인등록 자체가 말소 처리된다. 등록이 말소되면 기존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도 소멸한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거소신고자는 예외다. 기존과 같이 재입국이 가능하고,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법무부는 또 6월 1일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할 경우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해야 한다.

현지 탑승 때와 입국심사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허된다.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돼야 한다.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돼야 하고, 발열·기침·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과 검사자, 검사 일시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위변조된 진단서를 허위제출할 경우에는 강제출국 조치되고, 추후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재외공간이 발급한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 등 경우에는 진단서가 없어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치는 6월1일 0시부터 시행됐으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어 12면, 일본어 45면〉

이지은 기자

每户领取45万韩元劳动津贴... 向107万户家庭共支付4829亿韩元

각 가정에 45만원씩 근로장려금... 107만가구에 4829억원 지급한다

从6月10日开始, 韩国政府支付了2019年下半年的工作津贴。

韩国国税厅当天表示, 在今年3月申请半年度劳动津贴的184万户中, 已完成审核149万户, 并向107万户家庭支付了4829亿韩元。每户平均领取额为45万韩元。之前在3月末申请劳动津贴的家庭共有184万户, 申请金额达到7074亿韩元。

在当天发放劳动津贴的107万户中, 单人家庭66万户, 占全体户数的61.7%, 单职工家庭37万户, 占34.6%。双职工家庭为4万户, 占3.7%。

今年3月规定的劳动津贴法定支付期限是7月20日, 但考虑到COVID-19(新冠肺炎)等情况, 决定提前到6月发放。

具体支付日期为: 对提前完成审核部分, 于6月10日支付; 第一次补充审核部分, 于6月15日支付; 第二次补充审核部分, 于6月19日支付。6月10日没有收到付款的申请家庭, 最好等到15日和19日再办理。5月份定期申请部分将在8月份审核后发放。劳动津贴半期支付时, 最大支付额为: ▲单人家庭52.5万元; 单职工家庭91万元; 双职工家庭105万元。“2020年劳动津贴”电脑查询方法为: 查询 MyHometex - 劳动、子女津贴申请及决定明细 - 查询/发放 - 劳动津贴 - 查询劳动、子女津贴 - 半期劳动津贴 - 查询审核进行情况。

除此之外, 在手机主页(sontax)上点击申请/提交后, 点击劳动津贴(半年) - 审查进行现状查询即可确认。劳动津贴申请资格条件是, 每个家庭只

能1个人申请并领取劳动·子女补助金。收入条件为: 2019年有劳动, 事业, 宗教人士收入的家庭, 夫妻合计年收入应低于一定标准。

按家庭形态划分的劳动津贴收入上限标准为: ▲单口人家庭收入2000万元; 单职工家庭收入3000万元; 双职工家庭收入3600万元。

财产条件以2019年6月1日为基准, 家庭成员所有的住宅、土地、建筑物、存款等财产合计不得超过2亿韩元。多元文化家庭如果符合支付标准, 当然也可以得到劳动津贴。

6월 10일부터 2019년 하반기 분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가구 중 149만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07만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5만원이다.

앞서 3월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총 184만가구로, 신청금액은 7074억원에 달한다.

이날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107만가구는 단독가구가 66만가구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으며 홑벌이가구는 37만가구로 34.6% 비중을 차지했다. 맞벌이가구는 4만가구로 3.7%를 나타냈다.

지난 3월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한 사람들로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법정 지급기한은 7월 20일이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심사기간을 앞당겨 6월 중 조기지급키로 했다.

세부 지급일정은 조기 심사 완료분에 대해서는 6월 10일, 1차 추가검토분 6월 15일, 2차 추가 검토분 6월 19일이다. 10일에 지급을 받지 못한 신청가구는 15일과 19일까지 기다려보면 좋겠다. 5월 정기 신청분은 8월 중 심사 후 지급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시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2020 근로장려금' PC 조회방법은 My 홈텍스-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 조회/발급-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 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로 진행하면 된다.

이외에 모바일 홈텍스(손택스)에서는 신청/제출을 클릭 후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문화가족도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당연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더 넓은 세계로” 청소년 진로탐색 돕는다

시흥시, 중고생 글로벌특강-멘토와의 만남 강연



세계여행,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제의 국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꿈의 멘토’를 직접 학교로 초청하여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하고 더 넓은 세계에서 진로탐색의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일정이 다소 연기되었으나 총 15개교 학교에 강사를 초청할 예정이다. 강연은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 상반기에는 실시간 라이브 영상 특강으로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된 정왕중학교에서는 1학년 250명 대상 ‘꿈의 직업, 국제기구 진로’라는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 전 세계 국제기구의 현황과 하는 일, 진로 및 취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국제적 시각을 잃지 않고 다양한 진로에서의 꿈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시간 라이브 특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0년 글로벌 특강-멘토와의 만남’ 강연을 진행한다.

‘2020년 글로벌특강-멘토와의 만남’은 지난 9일 정왕중학교를 시작으로 시흥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글로벌특강-멘토와의 만남’은 2014년부터 시작한 시흥시 대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으로 해외봉사,

“다문화가족도 신청해요”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0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332명을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모집한다. 다문화가족 중 대상자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참여해보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24개월 동안 근로 활동을 유지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2년 후 약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모집 공고일(2020. 6. 9.)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b.net>)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9월경 경기도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1899-4270 김영의 기자



2020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모집인원 9,000명

신청대상
공고일(06.09.)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만 34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 직장가입자 외 지역가입자(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등) 포함

지원내용
매월 10만원씩 24개월 저축 시 본인저축액 포함 580만 원 상당 지원(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신청기간
2020.06.23.(화) 09:00~
2020.07.06.(월) 18:00
(선착순 선발이 아니며, 신청 '첫째날'과 '마지막날'은 신청이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9,000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account.jobabab.net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세부내용
경기도·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공고문 필수 확인
문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899-4270
경기도 콜센터 031-120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공고문 참조)

기타 사항

-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금액 등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 선발
- 유사 자선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등 신청 제외 대상자는 공고문 참조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종류

시간제 서비스

-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제공서비스
 - * 임시보육 및 놀이활동
 - *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 * 준비된 간식 챙겨주기
- 시간당 9,890원
- * 정부지원 유형별 요금 차등 지원
- * 연 720시간 지원

중일제 서비스

- 만3개월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제공서비스
 - * 이유식 먹이기
 - * 기저귀 갈기
 - * 질병소독
 - * 목욕 등
- 시간당 9,890원
- * 정부지원 유형별 요금 차등 지원
- * 월 최대 200시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지원 신청

국민행복 카드 발급

홈페이지 회원가입

서비스 신청 및 대기

아이돌보미 연계


이용료 사전 결제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 실시

· 홈페이지 이용자명, 정부지원 신청자명, 국민행복카드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후 정회원승인 및 이용시간 파악을 위해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1-317-4516(선택번호 1번)
홈페이지 : <https://idolbom.go.kr>



(3) सामाजिक संघ संस्थाहरू

• विद्यालय हिंसा रोकथाम SOS समूह

युवाहिंसारोकथामसंघले सञ्चालन गर्ने विद्यालय हिंसा रोकथाम SOS समूहले विद्यालय हिंसाका पीडित तथा पीडक र परिवार तथा विद्यालयको निमित्त रोकथाम र समस्या समाधान गर्न निम्न कार्यक्रम सञ्चालन गर्छ। देशव्यापी विद्यालय हिंसा परामर्श को लागि 1588-9128 (सहयोगी हात, युवा हिंसा रोकथाम संघ), अनलाइनमा(www.jikim.net) भ्रमण गर्नुहोस्।

- विद्यालय हिंसा एकिकृत सहायता केन्द्र: पीडित तथा पीडक विद्यार्थी को लागि मनोवैज्ञानिक, स्वास्थ्य तथा कानूनी, छात्रवृत्ती लगायतका बहुपक्षीय सेवा उपलब्ध गराएर विद्यालय हिंसा सम्बन्धित व्यवसायिक संस्थासित सम्बन्ध राख्न सहायता प्रदान गर्दछ।
- विद्यालय हिंसामा पारखी परामर्श केन्द्र: पीडित तथा पीडक विद्यार्थी र परिवारलाई मनोवैज्ञानिक परामर्श, उपचार, अन्तर्वार्ता परामर्श, सामूहिक परामर्श, साइबर परामर्श, घुमिन्त परामर्श सेवा, शिविर, शिक्षा, आदि सञ्चालन।
- विद्यालय हिंसा विवाद समाधान तथा द्वन्द्व समाधान केन्द्र: पीडित, पीडक, परिवार तथा विद्यालय बिचको सम्बन्ध पुनस्थापना विवाद समाधान गर्नको लागि समझदारी, द्वन्द्व व्यवस्थापन कार्यक्रम, प्रशिक्षण, परामर्श, कानूनी सल्लाह आदि प्रदान गर्दछ।

• हेल्पकल- युवाको फोन

पीडित विद्यार्थी एवम् अविभावकहरूले 1388 नम्बरमा फोन गरी आवश्यक परामर्श एवम् कानूनी उपचार प्राप्त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परामर्श केन्द्रमा विद्यालय हिंसाबाट बच्न र भविष्यमा त्यस्ता हिंसाजन्य अपराध हुन नदिन दोषी विद्यार्थीहरूको लाठी तालिम पनि प्रदान गर्दै आईरहेको छ।

• साइदामी मित्र

इन्टरनेट पोर्टल Daumkakao-Kb बैंक- कोरियाली खुला चिकित्सक समाजको अग्रसरतामा मोबाइल फोन र इन्टरनेट मार्फत विद्यालय हिंसा सम्बन्धित परामर्श तथा उपचार सेवा प्रदान गर्दछन्। स्मार्टफोनमा माई पिपुल एप डाउनलोड गरेका विद्यार्थीहरूले साइदामी मिसका साथी बनी आफ्नो समस्या लेखी मेसेज पठाएमा व्यवसायिक परामर्शदाताको सुझाव प्राप्त गर्न सकिन्छ। परामर्शको क्रममा फेलापरेका विधिपत विद्यार्थीहरूलाई कोरियाली खुला चिकित्सक समाजले उपचार गरिदिन्छन्। उनीहरूले विदेशी स्वयम सेवाका कार्यहरूमा भाग लिएर पुन स्वस्थ हुने मौका पनि दिन सक्छ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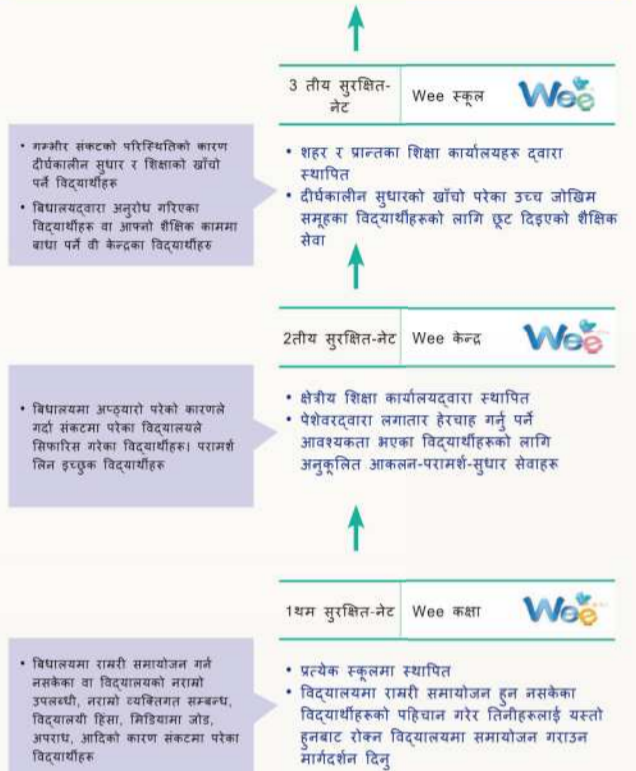
(4) विद्यालय हिंसाका बारेमा उजुरी दिनेबारेमा जानकारी

क्षेत्रको कोड डायल नगरी १११७ (विद्यालय हिंसा उजुरी तथा परामर्श केन्द्र)मा सम्पर्क गर्नुहोस् (मोबाइल फोनबाट क्षेत्रको कोड +117) विद्यार्थीले तुरुन्तै आपत्कालीन उद्धार, सुरक्षा वा परामर्श 24घण्टा 365 दिन प्राप्त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यसका साथै (विद्यालय हिंसा रोकथाम घर दोरानदोरान (www.dorandoran.go.kr) मार्फत अज्ञात अनलाइन उजुरी गर्न वा परामर्श प्राप्त गर्नु संभव छ, विद्यार्थीहरूले #0117(छोटो सन्देश) वा 117CHAT(एप्लिकेशन) मार्फत पनि उजुरी गर्न सक्नेछन्। उनीहरूले विद्यालयको उजुरी पेटिबाट वा विद्यालयको प्रहरी अधिकृतमाफत उजुरी गरे पनि हुन्छ।

जानी राखौं।

विद्यालयमा समस्या विद्यार्थी वा संकटमा परेका विद्यार्थीहरूका लागि "Wee प्रोजेक्ट"।
"Wee"को अर्थ " We + education", "We + emotion" हो।

शैक्षिक कार्यमा रुकावट जस्ता संकटमा परेका विद्यार्थीहरूलाई अनुकूल कार्यक्रम प्रदान गरेर मानव संसाधनको हानि रोकनुहोस्



04 माध्यमिक विद्यालयशिक्षा

उच्च विद्यालय शिक्षाको पाठ्यक्रम तीनवर्षे हुन्छ। माध्यमिक शिक्षा उत्तिर्ण गरेका वा माध्यमिक शिक्षा तह सरहको परीक्षा उत्तिर्ण विद्यार्थीहरूले उच्च विद्यालयमा भर्ना हुन पाउँछन्। विद्यालयहरूलाई साधारण, विशेष उद्देश्य, विशेषता र स्वतन्त्र गरी चार भागमा वर्गीकरण गरिएको छ। भर्ना प्रकृया शहर र प्रान्त अनुसार फरक हुन्छ। उच्च विद्यालय शिक्षा अनिवार्य भने होइन तसर्थ हरेक घरले भर्ना शुल्क, मासिक शुल्क जस्ता खर्च जुटाउनु पर्दछ। विद्यालयका शुल्कहरू पनि विद्यालयका विशेषता एवम् क्षेत्र अनुसार फरक पर्दछन्। साधारण उच्च विद्यालयहरूमा सामान्यतया १.२ मिलियनदेखि १.५ मिलियनसम्म लाख वन खर्च हुन्छ। विशेष उद्देश्यका र स्वतन्त्र एवम् निजी उच्च विद्यालयहरू अझ बढी महंगा हुन्छन्। यद्यपि आर्थिक रूपमा पिछडिएका परिवारलाई विद्यालयको खर्चमा आंशिक वा पूर्ण सहयोग प्रदान गरिन्छ।

1. शिक्षा विषयवस्तु

उच्च मा विमा माध्यमिक विद्यालयको उपलब्धीको आधारमा विद्यार्थीको चरित्र र चाहसंग मिल्ने जिवनपथ पहिल्याउने क्षमता र विश्व नागरिकको रूपमा खुबीको विकास गर्न जोड दिन्छ। 1घण्टाको कक्षा 50 मिनेट हुन्छ र विद्यार्थीले सिक्ने पाठ्यक्रममा राष्ट्रिय भाषा, गणित, अंग्रेजी, सामाजिक शिक्षा (इतिहास/नैतिक शिक्षा), विज्ञान, खेलकुद, कला (संगीत/कला), प्रविधि, परिवार/दोश्रो भाषा/चिनियाँ साहित्य/ ललित कला आदि छन्। विद्यार्थीले आफुले सिक्न मन लागेको विषय चुन्न पाउँछन्। सृजनात्मक कृयाकलापमा पाठ्यक्रम बाहेकको अतिरिक्त कृयाकलाप अन्तर्गत स्वतन्त्र रूपमा गरिने क्रियाकलाप, विद्यार्थी क्लब गरिविधी, भविष्यको करिअर सम्बन्धि गतिविधी र स्वयंसेवा आदि कृयाकलापमा स्वतस्फूर्त रूपले भाग लिन्छन्। यी सारा कृयाकलाप मार्फत विद्यार्थीले बाड्ने बानी सिकेर, व्यक्तिगत खुबी र क्षमता सुधार गर्दै अघि बढ्छन् भन्ने अभिलाषा छ।



2. उच्च माविका किसिम

(1) सामान्य उच्च माध्यमिक विद्यालय	विधि क्षेत्रमा सामान्य शिक्षा प्रदान गर्ने उच्च मावि हुन्। सामान्य उच्च मावि समय उच्च माविको अधिकतम संख्या ओगटेको छ। आफ्नो क्षेत्रअनुसार कम्प्युटर प्रयोग गरेर लटअनुसार विद्यार्थी छानिन्छन् वा विद्यालयद्वारा विद्यार्थीहरूको परीक्षाको नम्बर वा ग्रेड (जीपीए) का आधारमा चयन गरिन्छन्।
(2) विशेष उद्देश्य उच्च माध्यमिक विद्यालय	यस उच्च माविले व्यवसायिक शिक्षा प्रदान गर्ने लक्ष्य लिएको हुन्छ। विज्ञानमा उत्कृष्टहरूलाई (विज्ञान उच्च मावि), विदेशी भाषामा उत्कृष्ट प्रतिभाहरूका लागि (विदेशी भाषा उच्च मावि), अन्तराष्ट्रिय प्रतिभालाई प्रवर्द्धन गर्ने विद्यालय (अन्तराष्ट्रिय उच्च मावि), कलाकारहरूलाई प्रवर्द्धन गर्ने विद्यालय (कलाउच्च मावि), खेलाडीहरूलाई प्रवर्द्धन गर्ने विद्यालय (खेलकुद उच्च मावि) र उद्योग सित प्रत्यक्ष रूपमा सम्बन्धित विद्यालय (उद्योग अनुकूल उच्च मावि) विशेष उद्देश्य उच्च माविमा पर्दछन्। विद्यार्थीको विद्यालयको अभिलेख, शिक्षकको सिफारिस, अन्तर्वार्ता, प्रयोगात्मक परीक्षफल आदिमा झल्किने विद्यार्थीको लगन र अध्ययनमा लगावको आधारमा छानिन्छन्। महत्त्वपूर्ण रूपमा विज्ञान, विदेशी भाषा तथा अन्तराष्ट्रिय विद्यालयले 20% विद्यार्थी सामाजिक संरक्षण दिनुपर्ने समूहबाट छान्ने गर्दछन्।
(3) विशेष उच्च माध्यमिक विद्यालय	समान प्रतिभा, झुकाव तथा दक्षता भएका विद्यार्थीहरूलाई उडै समूहमा राखेर यस प्रकारको विद्यालयले विद्यार्थीलाई निश्चित क्षेत्रमा प्रशिक्षण गर्ने लक्ष्य लिएको हुन्छ। अवलोकन भ्रमणलगायत यसले अनुभवजन्य व्यवसायिक शिक्षा पनि प्रदान गर्दछ। यस्ता विद्यालयहरूले फिल्डको प्रत्यक्ष अभ्यासजस्ता अनुभवमा आधारित व्यवसायिक शिक्षा प्रदान गर्छन्। विद्यालयको प्रकृतिअनुसार विद्यार्थीहरूले नियमित पाठ्यक्रम जस्तै कोरियन भाषा, गणित, अंग्रेजी, सामाजिक शिक्षा जस्ता विषयका अतिरिक्त कृषि, उद्योग, माछा मार्ने सीप, घरायसी ज्ञान, व्यापारजस्ता विविध सौपमूलक तालिम लिन सक्छन्। विद्यालयका ग्रेड, अन्तर्वार्ता तथा प्रयोगात्मक परीक्षाका आधारमा विद्यार्थीहरू छानिन्छन्।
(4) स्वतन्त्र उच्च माध्यमिक विद्यालय	यस विद्यालयले आफ्नो व्यवस्थापन र पाठ्यक्रम अरुभन्दा स्वतन्त्र रूपमा सञ्चालन गराउदछ। विद्यालय सञ्चालनमा स्वायत्त र जिम्मेवारि दिएकोले विद्यालय अनुसार विधि तथा विशेष शैक्षिक कार्यक्रम सञ्चालन गर्छन्। सार्वजनिक उच्च माध्यमिक विद्यालय र स्वायत्त निजी उच्च माध्यमिक विद्यालय छन्। स्वायत्त सार्वजनिक विद्यालयमा विद्यार्थीहरू क्षेत्रअनुसार कम्प्युटरको प्रयोग गरी वा विद्यालयको ग्रेड वा परीक्षाको अंकका आधारमा छनौट गरिन्छन्। स्वायत्त निजी माध्यमिक विद्यालयहरूले हरेक विद्यार्थीको आत्मनुशासित सिकाइ क्षमताको मूल्यांकनका आधारमा छनौट गरिन्छन्। यसमा विद्यालयको अभिलेख, शिक्षकका सिफारिस, अन्तर्वार्ता, प्रयोगात्मक परीक्षाका अंक आदि पर्दछन्।

Pautang ng pambansang pensyon para sa panganganak

National Pension Service(1355)

- **Mga maaaring Magparehistro** : May dalawa o higit na anak na pamilya na miyembro ng National Pension Service.
- **Pamantayan sa pagpili**
 - Mga miyembro ng pambansang pensyon na nagsilang ng higit sa dalawang bata mula noong 2008
 - (Mga legal na bata na maaaring suportahan)Ang isang bata na ipinanganak sa panahon ng pag-aasawa, , Kinikilalang anak, Ampon, Ampon na ginagamit ang apelyido ng ama
- **Mga tulong** : Depende sa bilang ng mga bata, ang pambansang panahon ng pambansang pensyon ay idadagdag
 - (2 bata) 12 Mga Buwan ng Pagdaragdag
 - (3anak pataas) Magdagdag ng 18 buwan para sa bawat tao na higit sa 12 buwan + 2 bata
 - ※ Pinakamataas na 50 buwan
- **Paano mag apply** : Bumisita, sumulat o bumisita sa homepage ng National Service Pension



Suportang benepisyong medikal ng pangangalaga sa kalusugan para sa mga sanggol at bata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1577-1000)

- **Mga Maaaring Magparehistro** : Ang lahat ng mga sanggol na wala pang 6 taong gulang na karapat-dapat para sa mga benepisyong medikal
- **Mga Suporta**
 - Pag-iwas sa mga abnormalidad sa paglaki, pagdevelop, labis na katabaan, aksidente sa kaligtasan,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abnormalidad sa pagdinig, paningin, pagkasira ng ngipin.
 - Ang mga item sa pag-check up sa kalusugan ng sanggol ay isinasagawa sa talatanungan na tiyak na edad (kabilang ang mga tanong sa paningin at pandinig), pagsusuri at pisikal na laki (taas, timbang at posisyon ng ulo).
 - Suporta sa 9 na uri ng edukasyon pangkalusugan, pagsusuri at pagpapayo sa pagdevelop ng bata(Maliban sa 4 na buwan)
- **Panahon ng Pagsusuri** : 4 na buwan / 9 na buwan / 18 na buwan / 30 na buwan / 42 na buwan / 54 na buwan / 66 na buwan

16 17

Pagbubuntis · Panganganak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Suporta para sa pamilya na my higit sa dalawang anak

(Each)Administration Office

Pangalan	Target	Mga nilalaman ng pagbubukod	Panahon ng aplikasyon at pamamaraan	Kagawaran na namamahala
bayad sa kuryente	- Simula Dec.1,2016 Pamilyang may anak na wala pang isang taong gulang - 3 o higit pang anak - 5 o higit pang miyembro ng pamilya	30% pagbawas bawat buwan para sa isang taon na nagssimula mula sa buwan ng aplikasyon(hindi talaas ng 16,000 won)	Sa anumang oras at sa loob ng isang taon ng kapanganakan (Sa pamamagitan ng telepono at fax)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123)
Bayad sa Gas	- Mga batang wala pang 18 taong gulang 3 o higit pang mga miyembro ng pamilya	laki ng ginagamit para sa pagluluto at heater(Sa panahon ng taglamig, 6,000 won/buwan, 1,650 won/buwan)	Samchully City Gas at bawat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Tumawag at bumisita)	Samchully City Gas (1544-3002)
Pagpaparehistro ng kotse at buwis sa pagrehistro	- Mga batang wala pang 18 taong gulang 3 o higit pang miyembro ng pamilya	Eksempson sa acquisition tax sa pagbili ng isang sasakyang hanggang taong 2021(Sa kaso ng sasakyan batay sa kapasidad)	Vehicle Registration Office (Bistahin)	Collection and Vehicle Tax Team (310-5152)
Gastos Medikal, Bayad, atbp, Sa Health Center	- pamilyang may 3 o higit pang anak na hindi lalampas sa 15 taong gulang	Eksempson	kahit kailan	Health Policy Division (310-5817)
Bayad sa Tubig	- pamilyang may 3 o higit pang anak na hindi lalampas sa 15 taong gulang	Ang rate na naaayon sa 10m ³ ng kasalukuyang rate ng tubig sa buwan	kahit kailan	Waterworks (310-6113)
Bayad sa pampublikong paradahan	- pamilyang may 3 o higit pang anak na hindi lalampas sa 15 taong gulang	Pagbawas ng 50% sa kabayaran matapos ang 2 oras na libreng paggamit ng pampublikong paradahan	Gyeonggi I-plus Card Sasakyan	Siheung City Corporation Transportation Business Team (488-6877)
Bayad sa edukasyon atbp	- pamilyang may 3 o higit pang anak na hindi lalampas sa 15 taong gulang	Libre o pagbawas ng 50% na bayad sa paggamit o charge (Hinihiling na magtanong muna sa bawat pasilidad)	- Community Center - Women's Vision Center - Siheung ABC Happy Learning Town - Sports facility - Lifelong Learning Center	Lifetime (310-2513) Women (310-6003) ABC (310-2063) Physical Education (310-2145)

Suportang gastos para sa Emergency Welfar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Customized Welfare Team

- **Mga Maaaring Magparehistro** : Kung ang pamilya ay tumatanggap ng agarang ulong (bayad sa tirahan) miyembro ng pamilya na nanganak (manganganak)
 - ※ **Sa kaso ng krisis**
 - Kung ang pangunahing kumikita ay nawalan ng kita dahil sa pagkamatay, pagtakas, nawawala, o pagkakulong sa bilanguan
 - Magkaroon ng isang malubhang sakit o pinsala
 - Sumailalim sa domestic o sexual assault ng mga miyembro ng pamilya
 - Kung ng dahil sa sunog, atbp ay nahirapan kang manirahan sa isang bahay o gusali
 - ※ **Iba pang mga kaso na tinukoy ng Ministro ng Kalusugan at Kapakanan**
 - Kung nakipag-diborsyo mula sa pangunahing kumikita
 - Kung naputulan ng kuryente
 - Kung mahirap gumawa ng pamumuhay dahil sa mga aktwal na kahirapan sa negosyo, tulad ng isang pag-iwan ng kawalan, pagsasara o sunog
 - Kung ang pangunahin o pangalawang kumikita ay makaranas ng hirap sa pamumuhay dahil sa kawalan ng trabaho
 - Pagkakaroon ng problema sa pamumuhay matapos lumabas sa correctional institution
 - Kawalan tirahan dahil sa pagpapabaya, pag-abanduna, o kahirapan sa pamumuhay
- **Pamantayan sa pagpili**
 - Pamantayan sa kita: Sa ibaba 75% ng kita sa panggitna (1.13 milyon won para sa isang tao, 3.65 milyon won para sa 4 na tao)
 - Pamantayan sa pag-aari



Rehiyon	Malaking Lungsod	Maliit na Lungsod	Rural na lugar
karaniwang halaga	188 milyonwon	118 milyon won	100 milyon won

- **Nilalaman ng Suporta** : 700,000won para sa mga gastos sa panganganak (1.4 milyongwon para sa kambal)

18 19

Pagbubuntis · Panganganak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Suporta para sa sikolohikal na therapy para sa mga pamilya ng foster

Family Foster Support Center (1577-1406)

- **Mga maaaring magparehistro**
 - Ang mga bata na nasa pangangalaga ng foster para sa isang buwan o higit pa (karaniwang 2 ~ 18 taong gulang)
 - Ang mga bata na hindi tumatanggap ng medikal na suporta mula sa pampubliko o pribadong sektor (hindi kasama ang dobleng suporta)
 - Ang mga bata na may nakaraang psychotherapy ngunit hindi pa nalutas ang problema
 - Ang mga bata na pinagamot sa nakaraan ngunit may iba pang mga problema
- **Nilalaman ng Suporta**
 - Sinusuportahan ang mga bata na lumaki sa pangangalaga ng foster upang lumaki ng malusog
 - Pagsasaayos ng mga kinakailangang programa at gastos sa paggamot ayon sa mga sintomas ng bata
 - ※ (Programa) Play therapy, art therapy, music therapy, group therapy, cognitive therapy, speech therapy, atbp.
- **Paano magparehistro** : Mag-apply upang bisitahin ang isang lokal na Foster Care Center
- **Mga Kalapit na Pasilidad**

Pangalan ng institusyon	Lugar
Children's Foundation Gyeonggi Family Consignment Support Center	7F, Seorin Plaza, Yeongtong-ro 214beon-gil,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Gyeonggi Northern Government Consignment Support Center	2nd floor, 30-11 Simin-ro 19beon-gil, Uijeongbu-si, Gyeonggi-do
Central Family Consignment Support Center	2F, 119, Baekbeom-ro, Mapo-gu, Seoul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Pilipino



시민이 꿈꾸는 '미래' 실현할 것

임병택 시장, "미래 도시 시흥 구축"



임병택 시흥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 특집대담에 출연했다.

지난 4일 시흥오이도박물관에서 열린 이번 대담은 '포스트 코로나, 지방자치의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임병택 시흥시장과 윤화섭 안산시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출연해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민선7기 2주년에 대한 소회를 나눴다.

올해 세 시장의 특별대담은 취임 첫해인 2018년 이후 세 번째다.

임 시장은 먼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시민 불안 해소를 가장 중점에 뒀으며, 이를 위해 철저한 방역과 신속, 투명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세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정부 최초로 확진 환자 발생 지역에 천막시장실을 운영하며 시민으로부터 위기 극복의 희망을 발견했던 일을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임 시장은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지역 곳곳의 평범한 영웅들의 등장"이라며 "마스크 제작 재능 기부, 밤낮없는 방역 봉사, 기부 릴레이, 자발적인 임대료 운동 등 시민의 선한 영향력이 코로나19 극복의 힘이 되고 있

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한 의사 결정 방식 시스템화 ▲재난담당부서 권한 강화 ▲방역의 생활화 ▲강화된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비롯해 경제 방역을 위한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기준 완화 ▲시흥화폐 시루 특별할인 기간 확대 등을 언급했다.

민선 7기 취임 2주년에 대한 소회도 이어졌다.

임병택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시장이라는 자리의 무게와 책임감을 절실히 느꼈다"라며 "시정 전반기에 '민생'을 앞에 두고 달려왔다면 후반기에는 시민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8월 임시 개장을 앞둔 인공서핑 웨이브파크를 포함한 '시흥밸리' 조성을 통해 4차 산업 시대를 이끄는 미래 도시 시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무엇보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먼저"라며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고 시민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의 방역을 이어갈 테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힘내 주시라"고 당부했다.

한빛방송 특별대담 '포스트 코로나, 지방자치의 힘'은 오는 19일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을 통해 방영된다.

다문화가족도 지역사회에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방송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김영의 기자

경유차 가진 시흥 다문화가족, LPG화물차로 교체 시 지원받아요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중 LPG화물차로 교체계획이 있다면 시흥시의 지원을 받아보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제3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시흥시에 사용 분거지를 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시민에게 4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9월 기준 잔여 물량 총 68대로 1대당 400만원씩 총 2억7,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애초에는 대상자 선정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난 4월 지침이 개정되면서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를 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해당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 (031-310-3884~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스마트시티 시흥 리빙랩' 추진

다문화가정 학생 소통 지원 등 시민이!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민이 중심이 돼 시흥의 삶을 바꾸는 혁신과 변화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시티 시흥 리빙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흥시는 지난 5월 27일 '스마트시티 시흥 리빙랩' 프로젝트팀원들과 시흥시 도시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솔루션 아이디어 방향을 도출하는 프로젝트별 팀 활동을 시작했으며, 6월 중 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별 팀 활동은 지난 2월 '시민의 체감도 높은 리빙랩 주제 발굴'을 위해 진행한 '주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 주제로 ▲Io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시흥시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유독물 운반차량 사고 발생 시 대응 시스템 등 총 5개의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프로젝트별 10명 이내로 구성된 각 팀은 시흥시 스마트시티에 관심 있는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됐으며 주제별 문제 파악을 위한 필드&데스크 리서치, 핵심 이슈 도출, 핵심 이슈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모임 등의 과정을 통해 솔루션 방향을 도출한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니즈와 관심도가 높은 사업 주제를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한 리빙랩 사업의 일환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함께 도출한 결과물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오픈이노베이션 과정의 후보주제로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날 팀 프로젝트에 참가한 시민은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 속의 불편함,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부터 아이디어를 내는 것까지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새롭고 관심이 매우 컸었다.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 시흥 리빙랩과 시민참여단(별칭 '시너지')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시티 시흥 리빙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17일 2차 팀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



코로나의 고통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재난기본소득 지원 부천 '인산인해'

통합지원센터 설치해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신청 받아, 2번 이전 우여곡절도

전국 최초로 설치된 부천시의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가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센터가 2차례 이전하는 등 우여곡절도 겪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6월 1일 부천시청 옆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2층에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경기도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부천시가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재난지원금 5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록외국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급 대상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 외의 등록외국인이며, 등록 구분에 따라 지원 금액은 조금씩 다르다.

지난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등록되어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의 경우, 경기도 지원금 10만 원과 부천시 지원금 5만 원이 더해져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부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그 외의 외국인'은 부천시 지원금 5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지급받는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다.

신청 방법은 센터 내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수 첫째 주(6.1.~6.5.)에는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이 출생연도의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했다.

둘째 주부터는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 센터는 관공서 운영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부천시주민지원센터와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와 통역요원들이 많이 투입돼 원활한 신청을 돕고 있다.

하지만 최초 설치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에 이주민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우려로 8일 부천시의회 1층으로 접수장소를 변경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0일 부천 140번 확진자 A씨(64남)가 지난 8일 오후 부천시의회에 마련된 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

져 방역당국이 센터를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했다.

A씨는 외국인 아내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위해 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와 접촉한 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천시는 외국인들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위해 16일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해당 센터를 다시 운영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 거주 외국인들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세금도 내는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코로나19는 함께 겪고 있는 고통이다. 외국인들에게도 지원해서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슬기로운 한국어 생활 Part 2. 너에게 보내는 편지>

“코로나로 그동안 공부한 한국어, 잊어버리지는 않았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사가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띄우는 편지



〈편지1〉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지요?

겨울을 지나 봄이 오고 이제 한낮은 여름 날씨처럼 덥습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여 여러분을 만날 수 없어서 정말 속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 선생님과

그동안 공부했던 한국어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기 낳은 학생이 아기 사진 찍어 보내면서 “우리 아기 이쁘죠! 저 닮았어요.”라고 톡을 보내기도 하고, 코로나 조심하시라는 안부 인사를 하는 학생도 있고, 한국어 공부를 언제 시작하느냐고 묻는 학생도 있어서 모두 건강하게 잘 있고, 한국어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선생님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집에만 있으니 많이 답답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몸도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는 곧 서로 건강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집에서 우리 학생들 생각을 아주 많이 하면서 지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어떤 한국어 책이 새로 나왔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집안일 하느라 바쁘시지만, 그동안 공부했던 한국어책을 다시 꺼내보면서 선생님 생각을 조금만 하

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서 같이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만나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웃는 얼굴로 만나요, 사랑합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사 백인선



〈편지2〉안녕, 제스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새 학년을 제대로 맞이하지도 못하고 집에서도 생활하기 힘들지? 운동장 화단 어딘가에 있는 너와 닮은 새싹들, 연한 초록빛 나뭇잎, 수줍은 꽃들을 보고 느끼면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장난도 치며 지내야 할 시기인

데 말이야.

선생님도 제스퍼가 너무 보고 싶어. 학교는 역시 개구쟁이 같은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있어야 진정한 학교지. 그래서 더욱더 너와 같이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추억들이 많이 생각나고 그래.

너와 마이클, 케빈, 이렇게 세 명의 엄마가 모두 필리핀에서 오셨지. 그래서 너희들도 삼총사처럼 지냈어. 친했지만 서로 싸울 때는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지.

분반되어 마이클과 케빈은 같은 반이 되고 너는 선생님과 공부하게 되었어. 싸우기는 했어도 삼총사가 떨어져서 공부했던 것이 너는 정말 속상했을 거야. 혼자인

것 같고.

선생님은 너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 의기소침해 있을 너에게 선생님도 마음이 많이 쓰였단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어 수업시간에 너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렸지. 그리고는 슬그머니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 철사였지. 꽃다발을 만들 때, 꽃을 고정할 수 있게 묶는 초록색 테이프로 싸인 철사 말이야. 철사가 뽀족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선생님은 조금은 의아하기도 했어.

‘제스퍼가 저 철사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 궁금했지. 너는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

‘사랑해.요’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철사의 특성을 가지고 겨우 받침 있는 글자를 배우고 있는 네가 글자의 모양 새를 만들었지. 배시시 웃으면서 말이야. 감동이었어. 그리고 다시 모음 ‘아아어어...’를 만들었지. 그러면서 선생님께 떠들떠들 말하면서 문제를 냈지.

‘선생님, 세종대왕이 좋아하는 우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아어어우우 우유’ 그 때 우리 많이 웃었던거 생각나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네가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구불구불한 철사로 너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았어. 정말 고마웠어.

제스퍼! 앞으로도 선생님과 지금과 같이 잘 지내보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2020. 6월의 어느 날, 개구쟁이 제스퍼를 하루빨리 만나고 싶은 한국어 선생님.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사 이미옥

“대학생 자녀 둔 다문화가족, 여름방학 행정체험 신청하세요”

부천시, 취약노동자엔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접수 12월 11일까지 신청

부천시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대학생들에게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체험 부업대학생’ 10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포함)이다. 선발 인원은 ‘가’분야(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의료급여대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 그 자녀,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 20명, ‘나’분야(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순) 20명, ‘다’분야(일반 학생) 60명 등 총 100명이다. 선발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개 추첨으로 진행된다.

선발된 대학생은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하루 7시간 행정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1일 수당은 2020년 부천시 생활임금인 시

급 10,400원을 기준으로 교통비 포함 7만5천800원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부천시 홈페이지(www.bc.go.kr)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부천시는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생계부담 없이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6월 4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취약노동자로,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진단 결과 통보일까지 1~3일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의료진의 소견 없이 자비로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 노동자, 택배기

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노동종사자와 요양보호사 등을 말한다. 신청한 취약노동자는 1인당 소득손실보상금 23만 원을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과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격확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bucheonlabor@korea.kr) 또는 우편(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단 검사를 받고 14일이 지난 후 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방문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시정소식’·코로나19극복지원정책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와 일자리정책과(032-625-27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현장지원팀 응원해요”

손인환 한의원 대표원장 부천이주민지원센터에 성금

사단법인 부천이주민지원센터(이사장 임영담, 센터장 손인환)는 부천시 외국인 기본재난소득 현장 행정지원 업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센터 활동가들에게 중식 지원이 안 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원미동 소재 손인환한의원(대표원장 손인환)은 부천시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현장 지원팀의 중식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손인환 센터장은 “부천이주민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지만, 센터 활동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중식을 챙겨주는 것 밖에 없어 오히려 가슴 아프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지난 일요일 코로

나19 확진자가 재난기본소득 현장을 방문하여 김봉경 사무국장과 시청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며 “더욱 철저한 방역으로 4만2천여명의 신청 대상자와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의 건강이 최우선되도록 해달라”고 부천시에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는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종합운동장 2층(부천시 소사로 482)으로 이전해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운영되지 않는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 카네이션 비누꽃으로 사랑 전해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즐거운 가정생활 프로그램



다문화가족들은 약속 시간에 센터를 방문해 원예 키트를 받은 후 가족들과 함께 플라워박스를 예쁘게 만들어 완성된 플라워박스 인증샷을 담당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 가족들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 아이들이 답답해했는데 원예키트를 받아 가족이 함께 활동하다 보니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지고 활동 틈틈이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 간 정도 깊어지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센터에 모여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키트를 나눠준 후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이 비누꽃을 함께 만들고 사랑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이 즐거워하시고 만족도도 컸다”라고 전했다. 즐거운 가족생활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원예키트 무료나눔으로 진행됐으며 웅달샘힐링원에 교육협동조합법인이 함께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랑도 전할 수 있는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5월 14일과 15일 즐거운 가정생활 프로그램으로 <원예키트 만들기>를 진행했다.

비누꽃으로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리 접수한 다문화가족 15가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ชั่วคราวของวีซ่า
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สำหรับผู้อาศัยระยะสั้น
เพื่อแต่งงานที่มาถึงก่อนวันที่
12 เมษายน**

**4월12일 이전 입국한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비자 변경 일시 허용**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ประกาศว่าเมื่อวันที่ 25 พฤษภาคม 2563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ในฐานะที่พำนักระยะสั้นได้รับอนุญาตให้เปลี่ยนสถานะการแต่งงานของผู้พวยพชาวเกาหลี (F-6) ชั่วคราวเพื่อรองรับการไหลเข้าของโคโรนา 19 ในเกาหลีและแก้ไขปัญหา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เดินทางมาถึงด้วยวีซ่าระยะสั้นไม่สามารถเปลี่ยนสถานะการอยู่อาศัยของพวกเขาด้วยวีซ่าแต่งงาน (F-6) ได้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วันแต่ว่าจะมีสถานการณ์ด้านมนุษยธรรมเช่น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มาตรการนี้จัดทำขึ้นเพื่อป้องกัน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ที่โคโรนา 19 จะไหลเข้าสู่เกาหลีซึ่งอาจเกิดขึ้นได้เมื่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ที่เดินทาง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ด้วยวีซ่าระยะสั้นกลับเข้าประเทศอีกครั้งหลังจากออกวีซ่าผู้พวยพเข้าประเทศแบบแต่ง

งานเป้าหมายของมาตรการนี้คือคู่สมรส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ในฐานะผู้พำนักระยะสั้นก่อนวันที่ 12 เมษายน 2563

กล่าวอีกนัยหนึ่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เข้าเกาหลีก่อนวันที่ 12 เมษายน 2020 ซึ่งแต่งงานก่อนเข้าเกาหลีในสถานะระยะสั้นหรือผ่าน 90 วันหลังการแต่งงานหลังจากเข้าเกาหลีโดยสถานะระยะสั้นและผ่านการยกเว้นวีซ่า (B-1) และการ

ท่องเที่ยว (B-2) การเยี่ยมชมระยะสั้น (C-3) ฯลฯ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แม้ว่าคุณจะมีสิทธิ์ได้รับการเปลี่ยนสถานะคุณไม่สามารถขอใบอนุญาต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เว้นแต่ว่าคุณมีคุณสมบัติตรงตามข้อกำหนดในการออกวีซ่าผู้พวยพเข้าประเทศโดยการแต่งงาน

กล่าวอีกนัยหนึ่งเมื่อยื่นขอวีซ่าผู้พวยพเข้าประเทศ (F-6) ในภารกิจทางการทูต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ขอบังคับการบังคับใช้ของ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การเข้าเมืองมาตรา 9-4 (ขั้นตอนการเชิญชาวต่างชาติร่วมกันสมัคร) มาตรา 9-5 (มาตรฐานการออกวีซ่า) ต้องเป็นไปตามตามกฎระเบียบตามที่กำหนด

กำหนดวันมาตรฐานไว้ในวันที่ 12 เมษายนผู้ที่เข้าเกาหลีหลังวันที่ 13 เมษายนเมื่อมีการบังคับใช้มาตรการคัดกรอง

วีซ่าเลือกที่จะออกวีซ่าระยะสั้นแทนวีซ่าผู้พวยพเข้าประเทศโดยการแต่งงานตระหนักดีว่าการโอนข้ามประเทศไปยังโคโรนา 19 เป็นเพราะฉันเข้าเกาหลีเจ้าหน้าที่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กล่าวว่า “การกระทำนี้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คุณสามารถยื่นขอเปลี่ยนแปลงได้แต่ไม่ได้หมาย

ความว่าคุณสามารถเปลี่ยนแปลงได้โดยการสมัคร”สิ่งนี้จะมีผลตั้งแต่วันที่ 25 พฤษภาคม 2020 จนกว่าจะมีประกาศแยกต่างหาก < 한글 기사 44면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국·영문)

□ 재입국허가 신청(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 제한)

- 대상 : '20. 6. 1. 이후 출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국적불분) 중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 ※ 단, 아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 '20. 5. 31.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출국 후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내 입국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만*에서도 신청 가능)
 - * 출국하는 공항·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일에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여 관련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사본, 재입국허가 신청서, 사유서
- 유의사항 :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체류자격·체류기간)은 말소 처리되며,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진단서 미소지자 입국불허)

- 대상 :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불분)
- ※ 단, 아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을 받거나 진단서를 소지할 필요가 없음
 -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 재입국 시 의무사항 :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국문 또는 영문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함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 진단서는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 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확인

Notice on Suspension of Re-Entry Permit Exemption and Submission of Diagnosis for Re-Entry of Long-term Stayers

1. Suspension of Re-Entry Permit Exemption and Application for Re-Entry Permit
 - Beginning June 1, 2020, registered aliens who are seeking re-entry into the ROK after departure are required to obtain a Re-Entry Perm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 of the Immigration Act, and leaving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a Re-Entry Permit will result in cancellation of Alien Registration.
 - Yet, those with Diplomats (A-1), Government Officials (A-2, A-3) or Overseas Korean (F-4) status do not need to apply for a Re-Entry Permit, and are allowed to re-enter the ROK as previously done.
 - Re-Entry Permit can be applied for at immigration offices across the nation including at the airports. (Since it may take time to apply for a Re-entry Permit at the airport, please visit the airport earlier than usual on the departure date, to complete the application)
2. Submission of Diagnosis for Re-Entry of Long-term Stayers
 - Beginning June 1, 2020, registered aliens (except Diplomats (A-1), Government Officials (A-2, A-3) and Overseas Korean (F-4) status) seeking re-entry into the ROK after departure are required to undergo a medical examination related to COVID-19 within 48 hours prior to the date of departure for the ROK and carry and present a medical certificate (diagnosis) detailing the results to re-enter the ROK.

< NOTE >

- A diagnosis must be written either in Korean or English and be issued by an authorized local medical institute.
- It must include the date of examination,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fever, cough, chills, headache, difficulty of breathing, muscle pain and pulmonary symptoms, and must be signed by a medical examiner.
- It does not have to include a COVID-19 test result (Test Negative). (A medical certificate (diagnosis) listing a COVID-19 negative result shall also be deemed as valid.)

- Failure to undergo the examination or present a written diagnosis, and forging/falsifying documents or presenting false documents will result in denial of boarding and entry, and other disadvantages.
 - Yet, those with a valid 'Isolation Exemption Certificate' issued by a Korean embassy or consular office are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submit a written diagnosis and are allowed to re-enter the ROK as an exception.
- ⇒ For detailed information, please call 1345 (Immigration Contact Center) or visit the official website (www.hikorea.go.kr)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КРАЩЕНИЕ ПОВТОРНОГО ВЪЕЗДА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И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СПРАВКИ О ЗДОРОВЬЕ ПРИ ПОВТОРНОМ ЗАЕЗДЕ С ДОЛГОСРОЧНЫМ ПРЕБЫВАНИЕМ

A. ПРЕКРАЩЕНИЕ ПОВТОРНОГО ВЪЕЗДА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ОЛУЧЕНИИ РАЗРЕШЕНИЯ НА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 С 1 июня 2020 года после въезда из страны для повторного въезд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иностранца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б иммиграции", статья 30, необходимо получить разрешение на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при въезде из страны без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я на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регистрация иностранца аннулируется.
- Но, иностранцам с визой дипломатов (A-1), госслужащих (A-2), по соглашению (A-3) и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F-4) не требуется получение разрешения на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возможен как и ранее.
-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можно во всех иммиграционных офисах страны (а также в аэропорту).

B.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СПРАВКИ О ЗДОРОВЬЕ ПРИ ПОВТОРНОМ ЗАЕЗДЕ С ДОЛГОСРОЧНЫМ ПРЕБЫВАНИЕМ

- С 1 июня 2020 года после въезда из страны для повторного въезд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иностранцам (кроме A-1, A-2, A-3 и F-4) должны при повторном въезде предоставить справку о здоровье, где указано о прохождении проверки на COVID-19 в течении 48 часов до вылета.

< Важные пункты по справке о здоровье >

- Справка о здоровье должна быть выдана действующим мед.учреждением в стране нахождения, принимается документ выданный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 В справке о здоровье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но быть указано о наличии и отсутствии симптомов, таких как температура, кашель, озноб, головная боль, удушье, мышечная боль, пневмония, а также указать дату и время прохождения проверки (принимается проверка пройденная за 48 часов до вылета), обязательно указать лицо проводившее проверку.
- В справке о здоровье не обязательно указывать, что результат проверки на COVID-19 отрицательный (Test Negative). Но, при наличии записи о том, что результат на проверку отрицательный, справка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ся как действующая.

- В случае, если проверка не пройдена или справка не действующая, если справка подделана или исправлена, пр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фальшивых документов будет отказано в посадке, во въезде в страну и другие штрафные санкции.
- Но, если предоставить действующую "справку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от изоляции", выданную посо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о в порядке исключения разрешается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без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правки о здоровье.

再入国許可免除の中断および長期滞在者の再入国の際の診断書提出に関するご案内

1. 再入国許可免除の中断および再入国許可申請のご案内

- 2020年6月1日から出国の後、韓国に再入国しようとする登録外国人は「出入国管理法」第30条によって、再入国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し、再入国許可を受けずに出国した場合は外国人登録が抹消されます。
- ただし、外交 (A-1)、公務 (A-2)、協定 (A-3) および在外同胞 (F-4) 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場合は再入国許可を申請する必要なく、既存のように再入国が可能です。
- 再入国許可は全国の出入国・外国人官署で申請が可能です。(空港でも申請可能)

2. 再入国する長期滞在者の診断書提出のご案内

- 2020年6月1日から出国の後、韓国に再入国しようとする登録外国人(外交 (A-1)、公務 (A-2)、協定 (A-3)、在外同胞 (F-4) の在留資格の保持者を除く)は、現地の出発日から48時間以内にコロナ19関連の検査を受け、該当の診断履歴が記載された診断書を所持して再入国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診断書に関する注意事項 >

- 診断書は現地の有効な医療機関が発行したもので、英語で発行された書類だけを認めます。
- 診断書には発熱、咳、悪寒、頭痛、呼吸困難、筋肉痛、肺炎の症状の有無及び検査日時(出発前の48時間以内に検査する場合のみ認定)、検査人が必ず、記載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 診断書にコロナの19の陰性(Test Negative)であることを必ず記載することを要求する訳ではありません。ただし、陰性かどうか記載されている場合は有効な診断書として認められます。

- 診断を受けてないか、有効な診断書を所持していない場合、偽・変造書類または虚偽の書類を提示する場合には搭乗及び入国が拒否されるなどの不利益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す。
- ただし、在外公館長が発行した有効な'隔離免除書'を持っている人は診断書を提示しなくても例外的に再入国が可能です。

“사회복지의 꽃이라는 사례관리사... 큰 보람 느끼지만 열악한 처우 아쉬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순덕 사례관리사 “처우 열악해도 내 일에 최선을 다할 것”

나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사이다. 얼마 전 센터 사례관리사 총원으로 사례관리사 면접이 있었다. 면접에서 늘 그러하듯 ‘사례관리란 무엇이냐 생각하시나요?’의 질문에 면접자 대부분의 첫마디는 이랬다. ‘사례관리란 사회복지의 꽃으로~’.

사례관리란 사회복지의 꽃이란단. 왜 웃음이 날까? 마냥 꽃길만 걸을 수는 없는 열악한 보수체계일까? 아니면 그 무엇 때문일까? 그저 웃음이 난다.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공중위생, 사회 보장 제도 등 복리를 향상하기 위해 힘쓰는 일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써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활과 사회복지를 돕기 위해 사정, 진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기획, 실시, 평가, 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임무라고 되어 있다. 나는 사례관리사다. 사회복지의 꽃이라 불리는 사례관리사다. 그것도 다문화가정 사례관리사다.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정 사례관리사이다.

아~ 어께가 무겁다!!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이라니~

코로나19가 지구 전역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내가 근무하는 부천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센터도 잠정 휴관 중이다. 센터가 잠정 휴관 중이지만 나는 어느 해보다도 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깨닫는다. 코로나19의 전염력보다 더 무서운 건 ‘일상의 멈춤’, 평범한 일상의 멈춤임. 센터가 잠정 휴관 중인 관계로 나의 외부 활동도 멈춤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멈춤은 저소득 다문화가족에게는 더 큰 시련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했다.

공장이 문을 닫았고, 아르바이트를 관둬야 했고, 학습 환경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자녀의 on-line 수업은 진행되었다. 그리고 줄어든 수입이 가족을 힘들게 하는 다문화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은 멈춤이 아니라 가속도 페달을 단 것처럼 힘듦으로 질주 중이다.

나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이다. 잠정 휴관 중인 센터에서 사업은 잠시 멈추었지만 나는 조용한 활동 속에 분주히 전화를 돌린다. 후원재단을 찾고,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외부 활동이 중단되어 대상자들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잡자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오늘도 전화를 돌린다.

어려운 다문화 가정이 있는지, 도움 줄 곳은 있는지, 내가 갖은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절박한 감각으로 찾고 또 찾는다.

그리고 깨닫는다. 내가 해 줄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도 힘든 다문화가족들에 혼자서 아픔을, 함께 살아가자고 힘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음을, 이 어려움 또한 잘 지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당신도 누군가의 베풀목이 되어줄 힘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이러한 마음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사회복지의 꽃인 사례관리사이며, 그것도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라고 나를 다독이며 재충전한다. 서툰 한국어로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좋아요~’ 한마디에 힘들다는 생각보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나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호봉이 없는 특성화사업! 센터사업과 달리 경력과 무관하게 초봉 월급으로 들어와 차 연도에는 센터 신입 선생님의 초봉보다도 못한 급여를 받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이지만, 나는 사회복지의 꽃이라 불리는 사례관리사이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이다.

코로나19로 사회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아무리 열악한 처우와 낮은 복지 현황에서도 사례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려 좌충우돌, 해를 거듭하며 노하우를 쌓아가는 나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이다.

오늘도 나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로서 진정한 사회복지의 꽃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상의 멈춤 속에 소리 없이 분주히 활동하는 오늘을 보내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이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더 악화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이자, 조정자로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나는 커넥팅의 귀재가 되기 위해 오늘도 달리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이다. 이제는 내가 성장하는 만큼 전문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보수체계를 관계 당국에 큰 소리로 강력하게 요청하며, 난 오늘도 묵묵히 내 할 일을 한다. 나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일터이니.

未登録外國人も強制出國されることなくコロナ19無料検査を支援

コロナ19が疑われる症状がある時に地域の保健所を訪れても、取締り対象にはならない

中央災難安全対策本部は、未登録外國人が取締りおよび強制出國措置、検査費用などへの不安なくコロナ19診療を受けられるように、外國人労働者に対する取締りを一定期間猶予すると発表した。

5月1日中央災難安全対策本部は、ビザ満了などで國內在留資格を喪失したと豫想される外國人約39萬人に対する防疫対策を発表した。コロナ19症状がある未登録外國人が、‘静かな傳播者’としての防疫死角地帯をつくらないためだ。

ブリーフィングでキム・カンリップ中央災難安全対策本部1總括調整官は、“無資格在留者とホームレスなどは不安な居住形態、身分などにより、疑わしい症状があっても選別診療所に行きにくい、死角地帯にいる”とし、“(未登

録外國人が)保健所など、醫療機關を利用する場合に残る記録を収集せずに、後日取締りが再開してもこの情報を利用しない”と明らかにした。

これは出入國管理法施行令第92條の2規定に根據する通報義務免除制度だ。未登録外國人が人權侵害および犯罪被害を受けていても強制追放が恐くて被害申告をしない場合、これを悪用した犯罪が発生するのを防止するために施行された。規定によると、未登録外國人がコロナ19症状が疑われ病院と保健所など、公共保健醫療機關で検診を受けて、も患者の身元情報が出入國・外國人官署に通報されない。

また中央災難安全対策本部は、外國人労働者雇用事業場に対する防疫環境點検を実施するとして。政府と地方

自治團體が協力し、事業場内防疫環境、住居實態および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指針順守現況を點検し、事業主には有症状者業務排除および検査の必要性が案内される。

これを事業場を含む外國人密集地域を中心に、コロナ19検査-治療體系案内を16ヶ国の言語に翻譯して広報する。必要に応じた診療ができるように、外國人密集地域対象移動型検査も行う予定だ。

保健所選別診療所には法務部、雇用労働部女性家族部所屬コールセンターのスタッフが投入され、非對面通譯サービスを支援する予定だ。

保健福祉部は5月3日に上記の内容の災難文字メッセージを國民に向けて発信し、症状がある未登録滞在外國人は電話1339、地域保健所に問い合わせるように案内した。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약속 지켜야!

부천시문화다양성조례추진위, “2020년 회기 내에 제정” 강력한 요구



부천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천시 문화다양성조례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세계문화다양성의 날’ 주관을 마무리하며 부천시의회에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를 2020년 회기 내에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6월 25일 ‘부천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부천시의회 본회의 상정 직전 발의자에 의해 철회되었음을 지적하며 “형식적으로는 철회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부 혐오 세력이, 문화다양성 조례가 동성애와 이슬람을 조장한다는 일토당토않은 이유의

공격에 부천시의회가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조례를 발의했던 시의원의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당일 아침 의원총회를 통해, 총선 이후에 하자며 조례 철회를 결정했으며, 9월에는 부천시 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가 같은 이유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문화다양성 조례는 문화적 차이로 차별받지 않은 사회를 만들자는 최소한의 우리 사회의 약속이며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를 만들어 가는 가치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다양성 조례 철회에 관련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추진위원회는 조례를 주민발의로 진행하기로 하고 수임인 명단 138명을 부천시에 제출했다. 또 1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부천시 문화다양성조례 주민조례청구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주민발의 총족 요건인 7,028명의 서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와 관련 7월이면 임기 하반기를 시작하는 부천시의회에 ‘2020년 회기 안에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총선 이후에 제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라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인천시 서구는 우리가 만든 조례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만큼 더는 조례 제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라며 “부천시의회는 평등하고 공정한 부천, 차별 없는 행복한 사회를 바라는 부천시민들의 열망을 조례로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추진위원회에는 가치소극장, 거문고자리, 경기민예총 부천시지부, 노동문제연구소, 디지커쳐,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위기청소년지원단체 아게인, 랫츠드림, 문화공간 간판도없는지하창고, 문화공간 빼지트, 민주노동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중당 부천시위원회, 부천녹색당, 부천시공무원노조,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이주민지원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시대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청년회,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YWCA, (사)청소년노동인권노랑, 산교육문화공동체 산학교, 새날지역아동센터, 세계로지역아동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약대은빛학교, 정의당 부천시협의회, 천주교인천교구부천노동사목, 과가컬처레이블, 캘리그라피 꽃비, 통합예술나눔터, 풍물굿패 타락,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 부천연대, moon&도자기가 참여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多文化家庭事例管理服务

“你现在很无助吗? 不知道从哪里获得帮助吗?”
让我们一起来解决多元文化家庭的困难吧!

- 对象: 多文化家庭, 外国人家, 脱北居民家庭等.
- 服务内容: 解决多文化家庭内复杂多样的问题及在韩国能够安居乐业支援.

区分	内容
事例管理	为个人提供针对性的福利支援服务(经济困难, 家庭暴力等紧急援助, 签证和离婚等多文化家庭内经历的各种问题解决支援).
中心内活动连接	韩国语教育, 家访教育, 语言发育教育, supporters支援, 子女教育, 自助聚会, 翻译等需要的服务连接.
咨询	- 个人及家庭咨询(婆媳沟通, 父母-子女关系)夫妇咨询 ⇨ 咨询服务预计在6月份开始进行. - 以美术为媒介的美术治疗咨询.
外部资源连接	法律咨询, 紧急支援及公共机关等其他机关连接.

※ 为了便于今后的赞助联系, 现正在进行需求调查.

需要帮助的家庭请联系中心~

- 服务时间: 09:00~18:00 (星期一~星期五) 午饭时间除外 (12:00~13:00)
- 服务方法: 中心来访咨询, 家庭访问咨询, 电话咨询.
- 咨询: 多文化家庭事例管理师
070-4457-6110, 070-4130-2149

富川市多文化支援中心

Bucheonsi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Dự án quản lý khó khăn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Bạn có gì khó khăn không? bạn có biết nơi nào giúp đỡ không?”
Chúng tôi sẽ cùng nhau giải quyết những khó khăn của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 Đối tượng: gia đình đa văn hóa, vợ chồng người nước ngoài, gia đình bác triều tiên v.v
- Nội dung: Giải quyết các vấn đề phức tạp và đa dạng của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ổn định, hỗ trợ giải quyết sinh hoạt hàn quốc

Phân loại	Nội dung
Quản lý	Cung cấp dịch vụ phúc lợi cá nhân (kinh tế khó khăn, hỗ trợ khẩn cấp như bạo lực gia đình, visa / ly hôn v.v) Hỗ trợ giải quyết các vấn đề khác nhau cho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kết nối chương trình trung tâm	Học tiếng hàn, học tại nhà, hỗ trợ ngôn ngữ cho con cái, Supporters, giáo dục con cái, hợp nhóm, thông biên dịch
Tư vấn	Tư vấn cá nhân và tư vấn gia đình(giao tiếp với mẹ chồng, bố mẹ-quan hệ con cái) tư vấn vợ chồng ⇨ khoảng tháng 6 tư bắt đầu tư vấn tư vấn điều trị tâm lý
Kết nối tự nguyện bên ngoài	Tư vấn luật, hỗ trợ khẩn cấp và kết nối với các tổ chức khác như các tổ chức công cộng

※ Chúng tôi thực hiện cuộc khảo sát sau đó kết nối tài trợ.

Nếu gia đình cần sự giúp đỡ thì hãy gọi điện đến trung tâm!

- Thời gian: 09:00~18:00 (thứ 2~thứ 6)
- Đăng ký: trừ thời gian nghỉ trưa (12:00~13:00)
- Cách đăng ký: Đến trung tâm, đến gia đình, điện thoại tư vấn
- Liên hệ: Quản lý khó khăn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070-4457-6110, 070-4130-2149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si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오산 다문화가족에게 유용한 지역사회 정보 여기!

무료 생리대 지급기 설치 및 대학생 일자리사업 안내



무료 생리대 지급기 설치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필봉산 주차장 등 공중화장실 8곳에 위생용품(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13대를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위생용품 무료 지급기가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필봉산 주차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행정복지센터 공중화장실이다.

오산시는 지난해 10월 오산대학교 학생과 오산천변 나들이 시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오산대학 앞의 여성 공중화장실에 위생용품 무료 지급기 1대를 설치해 시범운영해 왔다.

시범운영 결과 위생용품 일일 사용량이 최소 4대에서 최대 10대 정도로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산시는 이용 만족도와 일일 소요량 모니터링을 통해 여성의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서 공공시설에 위생용품을 비치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생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오산시가 코로나 극복의 일환으로 2020년 하계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우선 선발 10명, 일반 선발 40명 등 총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방향을 이용하여 시정을 체험하고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산시가 마련했다.

참여자격은 6월 24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내소재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휴학생 제외)으로 만 18~29

세 이하인 자이다.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주 5일 6시간(09:00~16:00, 점심시간 1시간 근무시간 제외)이며 근무 요일은 근무지 사정에 따라 화-토, 일-목 근무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업무내용은 부서별(위탁기관 포함) 업무 지원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및 복지관, 장난감대여점, 오색시장, 드라마세트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 및 사업 업무 지원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공공시설 방문 민원인 발열감지 및 안내 등도 할 수 있다.

급여는 시급 10,000원(2020년 오산시생활임금 적용)이며 4대보험에 가입(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선발방법은 전산추첨한다.

이지은 기자

오산지역화폐 ‘오색전’ 수상 한국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오산시(시장 곽상욱)의 지역화폐 ‘오색전’이 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10회 2020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대상’(조선비즈 주최) 시상식에서 지역화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오색전’은 오산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전국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전통적인 오방색을 기초로 오산의 상징 5가지(까마귀, 은행나무, 매화, 오산천, 독산성과 세마대지)를 담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출시됐다.

‘오색전’은 5월 20일 현재 일반발행 140억원, 정책발행 87억원이 발행되어 총 227억원이 발행됐다.

앞서 오산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최초 100%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해, 3월말 기준 2만1,837장에 불과한 카드 발급량이 5월 20일 현재 12만1,623장에 이르렀다.

이지은 기자

京畿道 & 乌山市
灾难基本收入扩大支付申请指南
(结婚移民者 / 永久居民)

支援对象	结婚移民者和永久居住权者 每人支付10万韩元 5月4日24时前至申请日期间 在京畿道和乌山市户口登记的人
支付形式	京畿道: 10万元的充值预付卡(申请当日支付) 乌山市: 五彩钱(预计7月份每人入职10万韩元) *丢失或损坏时,只有已登记姓名者才能补发
使用期	截至2020年8月31日
申请期限	6月8日 - 6月18日(周末可以申请)
申请办法	滞留地行政福利中心(09:00~18:00)访问申请
备齐文件	申请书, 身份证, 个人信息活用同意书 F-2-1, F-6以外的结婚移民者 需另提交婚姻关系证明书 * 身份证: 外国人登录证 / 永久居住证
代理申请	有大韩民国国籍的配偶 未成年人申请需法定代理人代理申请 * 保证, 代理人身份证, 委托人身份证 * 证明代理和委托人的家庭关系的文件

乌山市救灾基本收入呼叫中心 031)8036-8517-20 / 周一到周五 09:00 ~ 18:00

프로그램명	2020년 가족상담사업		
사업진행	2020년 1월~12월 상시	진행장소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사업명 : 2020년 가족상담사업 가. 상담기간 : 2020년 1월 ~ 12월 상시 나. 상담대상 : 오산시 거주 지역주민 누구나 가능 다. 상담접수방법 - 전화접수 : 031-377-9766 (가족지원 3팀) - 사이버상담 : osan.familynet.or.kr(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2. 상담사업의 필요성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자녀간, 부부간 가족관계 개선, 비혼청소년 임신갈등상담 등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족 대상 가족상담 제공			
3. 상담내용 - 일반상담 : 이혼전후상담,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그 외 가족상담, 개인상담 - 상담프로그램 : 가족집단상담(이혼전부부집단상담), 성인/아동/임대대상집단상담 등 - 심리검사 : 필요시 진행하며 실비가 발생할 수 있음			
4. 이용시간 - 주간상담 : 월 ~ 금 (09:00~18:00) / 야간상담 : 수·목 (18:00~21:00)			
5. 상담사업목적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 5px 0;">목 적</div>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상황을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집단상담 등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유도하여 개인 및 가족의 역량 강화			
6. 기타 -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전화상담 가능			

오산 '세교시특성학교' 설립 추진 미래산업사회 융합인재 양성 노력

오산시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한국생산성본부와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등 미래산업 관련기관 및 오산 교육기관들과 함께 'AI기반 특별도시 구축 및 AI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가칭)세교소프트웨어고 설립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한국생산성본부, 시공테크, 아주대학교 신산업융합 기술연구센터,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포럼, 오산상공 회의소 등 7개 미래산업 관련 기관이 참여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오산교육 지원센터, 오산교육재단 등 관련 교육기관과 함께 AI 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참여 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미래산업사회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과제를 설정하고 △산?관?학 협력을 통한 특성화고 진로?직업 연계 △특성화고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교류 및 공동이행 △학생의 개인별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및 산업체 취업 매칭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지는 기자

조재훈 의원, 인식 변화 주문 SOC 투자는 도민 복지 일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더민주당, 오산2)은 11일 제344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 중 '2019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단일산업분야에서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SOC"라며 "SOC에 대한 투자도 결국은 전체 도민이 혜택을 보는 복지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SOC 사업에 대한 현 경기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역설하며, 특히 SOC 예산 마련 및 보상비 지급 방식의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가수~갈천 도로 사업의 경우 보상이 제때 진행이 안되면서 작년까지 보상비가 1,080억에서 1,200억으로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되었음"을 지적하며, "예산낭비 방지 및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기금조성이나 지방채 발행, 특별회계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건정성 회복 역시 중요한 화두인 것에 공감하지만, SOC예산에 대한 특별회계, 기금 등 제도를 정비하여 재정운영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한 차원 진일보한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는 기자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50만원 * 3개월
150만원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https://covid19.ei.go.kr>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오프라인 접수 가능(추후 공지 예정)

신청기간 6월 1일 ~ 7월 20일

*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 중(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2 영세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형·항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 상·항공사법' (항공기제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고용노동부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1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 ▲ 교육: 학습지도사, 학원 및 교육연구기관 강사, 스코프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 운송: 자립기차(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택시운전기사 등), 공항 항공기 시장 철도 철도 관련 하역종사자 등
-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예·메이커,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 서비스: 콜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 전기 점검원, 간병인, 대리운전·픽서서비스기사, 기사·육아도우미 등
-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료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고용노동부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1구간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2억원 이하)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 1) 소득·매출 감소는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평균소득, '19.12~'20.1월 중 특정 월,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대비 '20.3~4월 평균 소득·매출의 감소 여부로, 2) 무급휴직일수는 '20.3~'20.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

고용노동부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수급 불가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저차단제 재난지원금 지급 → 지원 가능
- 저차단제 자체 소상공인 생계안정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 예) 50만원 지급 시('20.6월 지급)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 예) '20.3~4월간 60만원 지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 예) 3월~4월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지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고용노동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확인서
5. 연소득 입증서류(택)
- ① 소득금액증명원
-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③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특고·프리랜서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1. 특고·프리랜서 활동 증명서류(택)
-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 ②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영역계약서, 위촉계약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2. 소득 감소요건 증명서류(택)
-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사업주발급한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고용노동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세자영업자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1. 영세자영업자 증명서류(택)
- ① 소상공인 확인서 ② 사업자 등록증과 상시근로자 증명 자료 등
2. 연매출액 증명서류(택)
-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② 부가가치세연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 ④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3. 매출액 감소요건 증명서류(택)
-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③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④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⑤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무급휴직자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근로계약서 사본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항공사법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운전면허 따고 취창업에도 성공하세요!"

파주건가다가,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비반 운영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는 지난 6월 10일 센터 교육실에서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해 '다문화가족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진행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운전면허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취업에 필요한 기초소양이기도 하며 취업훈련 및 취창업 활동 기회를 높이는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남편 없이도 자녀와 함께 여러 곳을 이동할 수 있는 기본으로, 행동의 자유를 주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그만큼 다문화가족에게도 운전면허가 필수가 됐다는 뜻이다. 앞서 파주건가다가는 2020년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비반 교육을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6회기 실시했다.

파주 관내의 취업을 희망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결혼이민자가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

도로교통법 용어 ▲교통용어의 정의 ▲안전한 운전방법 ▲가장 위험한 상황 잘못된 운전방법 ▲운전자의 자세 ▲안전표지 ▲운전면허 제도 및 관리 ▲신호의 종류와 뜻 ▲보행자 등의 보호 등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과정에 참여했다.

필기시험 당일에는 컴퓨터 조작 방법을 상세히 배운 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통제된 환경 속에서 필기시험을 치렀다.

이번 교육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득은 결혼이민자가 취업교육을 통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사회통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취업 훈련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다문화가족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필기시험 대비반의 교재는 파주경찰서 외사과가 지원했다. 송하성 기자

학교 자체 긴급 돌봄, 파주시 함께! 위기 상황 처한 다문화가족도 지원

파주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을 '학교 자체 긴급돌봄'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학생의 1/3이하 등교 방침을 발표했다. 각급 학교는 격일, 격주, 주1회 등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 여전히 학교의 긴급돌봄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이러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의 특기 적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예산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예산 8억 2천만 원을 '학교 자체 긴급돌봄' 지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등교와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이번 지원 확대로 미등교일 교육으로 부담을 갖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파주시는 코로나19로 변하는 교육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기존 교육지원 예산인 희망교육플러스 및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을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온라인 원격수업까지 확대해 지원해 왔다.

김윤정 파주시 교육지원과장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으로 인해 소외되는 아이들이나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지원해나갈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인터뷰

캄보디아 출신 다문화가족 썸뽀니빠다 씨

한국생활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 ... 시험 합격할 때까지 도전할래요



-한국에서 생활한지 10년 정도 됐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남편이 있어서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할 때 좋지만 남편 없이 병원을 가거나 아이와 외출할 때 불편하다. 운전면허가 있으면 한국생활의 상당 부분을 혼자 할 수 있다.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 <사진 오른쪽이 썸뽀니빠다 씨, 왼쪽은 사업을 담당하는 김연 씨>

썸뽀니빠다 씨, 왼쪽은 사업을 담당하는 김연 씨

-오늘 시험을 보는데 공부는 어떻게 했나?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필기시험 대비반에 참여하고 또 집에서 따로 공부를 했다. 캄보디아어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봐야 하니까 더욱 어렵다. 영어권, 중국, 베트남 사람들은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다른 나라는 없어서 어렵다. 그래도 한국에 사니까 한국어로 시험을 보는 것이 공부할 때는 힘들어도 나중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하니 남편의 반응은 어땠나?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설득을 많이 하고 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해 보라

고 했다. '너무 어렵겠지만 열심히 해 보라'고 격려해 줬다. 지금은 남편이 응원해 주니 힘이 난다"

-운전 연수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오토바이를 많이 타봤다. 그리고 결혼 직후 남편과 운전연습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운전면허를 딸 생각을 못하고 운전도 그만 두었는데 조금 아쉽다. 하지만 그 때 운전한 경험이 있어서 자신이 있다. 도로연수를 남편이 많이 도와줄 것이다. 기대가 된다"

-오늘 필기시험을 보는 마음가짐은 어떤가?

"오늘 시험에 합격하면 너무 기분이 좋을 거 같다. 하지만 어떻게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겠나. 떨어져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불합격해도 될 때까지 다시 도전하겠다"

송하성 기자

텃밭가족봉사단모집

“ 제철채소 키우기

텃밭 수확물을 키워 지역사회 이웃과 나누세요!



다문화가족 3, 다양한가족 3
6가족 모집!

토요일, 월 2회 활동(총 8회)
6~10월 예정

가족단위 참가 필수!

봉사단 발대식(교육) 필수 참여!

활동하지 않는 가족구성원
가입불가!

3회 이상 불참 시
봉사단 자격 제외!

지역사회 행사, 센터 행사 참여!

봉사시간 발급!

접수문의: 031-949-9164 교육팀 이다빈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에도 [20살부터] 국가건강검진 시작합니다



- 저도 가면 되나요?**
20살부터 2년에 한번씩 누구나 대상이에요!
- 어디서?**
지정된 검진기관 어디서나 가능
- 어떻게?**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끝!

※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므로 미리미리 검진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건강iN홈페이지(hi.nhis.or.kr) 또는 ☎1577-1000

가족행복! 건강검진으로 시작하세요!

여성 20세, 남성 40세 암검진 시작할 나이입니다.



대상 암	주기	검사항목	대상자
위암	2년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만 40세 이상 (짙수년도 출생자)
대장암	1년	1단계: 분변잠혈검사 2단계: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검사	만 50세 이상 *본인부담금없음
간암	6개월	간 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만 40세 이상자 중 고위험군 대상자
유방암	2년	유방촬영(양측)	만 40세 이상 여성 (짙수년도 출생자)
자궁 경부암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만 20세 이상 여성 (짙수년도 출생자) *본인부담금없음
폐암	2년	저선량 흉부CT검사 검진결과 사후상담	만 54세~74세 중 고위험군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는 검진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
- 국가암 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검진비용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 국가암대상자 : 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 월94,000원 이하, 직장가입자 월97,000원 이하)

※ 암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국가암 대상자가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연 최대 200만원까지 암 의료비를 지원 해드립니다.

★주의사항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항목 건강검진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 수면내시경 수면비용 등)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6월말 종료

- '19. 12. 11부터 시행해 온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출국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당초 발표대로 올해 6월말로 종료됩니다.
- 7. 1.부터는 자진출국 하더라도 소정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신고 허용

-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항공권을 예매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4. 20. 부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 ☞ 항공권없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면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항공권이 있는 경우만 가능)

6월 말까지 신고자는 6월이 지나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기회 부여

- 코로나19로 인해 출국 항공편이 차단(축소)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6월 말까지 자진출국 신고 시 불가피하게 6월이 지나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기회 부여 등 조치 (다만, 항공편 재개 시 즉시 출국하여야 함)

‘다문화가족에도 안전한 귀갓길’

파주시, 여성안심귀갓길 안전한 도시조성



파주시는 늦은 밤 여성과 아동들의 안전한 안심귀갓길을 위해 지난 9일 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1인 거주 여성이 많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나 공원 등에 로고라이트 13개소, CS라이트 15개소, 솔라안심등 19개소, 스마트미러 4개소, 솔라표지병 1개소 등 총 52개소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야간 통행길 조도를 개선했다.

로고라이트는 ‘골목길 안심하세요 이곳은 집순찰구역’ 등의 문구를 LED등으로 투사하며 CS라이트는 태양열을 이용한 경광등으로 공원 내 청소년들의 음주 및 음란행위 등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또한 솔라안심

등은 가로등이 없는 좁은 골목길을 밝혀주며 스마트미러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국어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신고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솔라표지병은 태양광을 이용한 어두운 도로의 조도개선으로 범죄 심리 차단 효과가 있다.

유미경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증하는 분위기로, 안전시설물 설치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파주경찰서와 함께 범죄 취약지역을 발굴해 여성과 아동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파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기를 위한

파주시, 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교육 실시

파주시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위험요인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쌀, 우유, 감자, 달걀 등 최대 10종의 보충식품과 함께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개별상담 등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합교육이 원칙이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우편교육 등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돼 진행해왔으며 6월부터는 표준화된 교육자료인 ‘EBS 육아학교’의 ‘영양+’를 통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온라인 영양교육과정은

웹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이용 가능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사업 만족도 제고 및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미숙 파주시 건강증진과장은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미래건강을 위한 다양한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출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며 “임산부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다양한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체험활동”

파주다가,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체험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는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의 행복을 더하고 해체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여가시간이 부족한 가족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통한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 운영된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다문화가정 50가족, 맞벌이가정 60가족, 군인가정 90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진행된 체험활동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활동을 장려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

하여 가족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키트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센터 밖에서 워크스루(walkthrough) 방식으로 키트를 받아, 각 가정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다문화가족은 액상 향초 만들기, 맞벌이가족은 네온사인 만들기, 군인가족은 수제청 만들기가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힐링도 할 수 있었고, 스트레스도 풀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맞벌이가족의 한 참여자는 “맞벌이라 평소에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 기회를 통하여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에 맞춰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031-949-9162)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2020부모역할지원-아버지역할지원

★슬기로운 아빠생활★

아빠도 아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빠도 아빠 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집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궁금하다.
슬기로운 아빠가 되기 위한 아빠들만의 모임!

구분	일시	내용	장소
가족 공예	6월~8월 (화) 저녁 7시~	카드지갑, 소품 등	운정 가람마을 브리즈 가족공방
간식 만들기	6월~8월 (화) 저녁 7시~	떡케이크, 샌드위치 등	운정 가람마을 거성 떡케이크

- ★ 6~8월 중 5회 진행 예정입니다.
- ★ 각 모임 선착순 5명 (소그룹 모임)
- ★ 일정은 코로나19바이러스 관련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031) 949-9161~4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포건가다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미리 확인하세요”

프랑스 자수, 크리에이터, 다문화 이해교육 등 꼭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멈추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자수 배우요 '봉쥬르 몽*아미!!'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의 정보교

류 및 소통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프랑스 자수를 배우는 '봉쥬르 몽*아미!!'를 진행한다.

우리금융그룹/우리다문화장학재단 공모사업으로 오는 26일까지 전화(031-392-1811) 신청받는다. 프로그램은 7월~9월 매주 월요일 총 12회 진행되며, 10월~11월 격주 월요일에는 자조모임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16회 참여 가능한 자를 우선 접수하며 군포시 거주 다문화 10명,

비다문화 2명 대상이다. 프로그램은 센터 내 교육실 및 다가온 2층에서 진행되며 기초학습 배우기로 미니 액자, 핀 쿠션 등과 생활소품을 위한 응용으로 티매트, 손거울과 브로치 등이 예정돼 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다.

#유튜버 꿈나무를 위한 '다문화 크리에이터 ON'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유튜버 꿈나무들을 위한 군포시 청소년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크리에이터 ON'을 진행한다. 채널개설 및 영상 업로드부터 스마트폰 편집기술, 채널 운영전략, 저작권교육, 마케팅 교육 등이 이뤄지며 1기와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다문화 및 비다문화 청소년 20명 대상이며 초등학교 4학년~ 중학생이어야 한다.

다문화 콘텐츠 편집 및 제작 교육이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총 10

회기에 걸쳐 이뤄지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안정 후 센터 개관 시 시작된다.

다문화 전통음식, 의상, 문화소개 콘텐츠 제작, 채널관리 등이며 다가온 내 촬영 전문 스튜디오를 대여해 준다. 촬영 장비도 지원해준다.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다가온(070-4279-4079) 이나 센터(031-392-1811)로 하면 된다.

#다가온, 찾아오는 다문화 이해교육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인 다가온 '찾아오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진행한다.

체험내용은 다문화 이해교육 및 국·국·별 문화소개, 다문화 물품 만들기, 12개국 다문화 전시 관람, 다문화 의상체험 및 놀이공간 체험, 포토존 사진 촬영 등이다.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성인 대상이며 체험장소는 다가온(군포시 당정로 28번길 22/구 레인보우카페)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 2020 크리에이터ON 1기/2기 참여자 모집

유튜버 꿈나무들을 위한
군포시 청소년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

다문화 크리에이터ON

유튜버 첫걸음! 채널개설 및 영상업로드부터!
더욱 더 알차게! 스마트폰 편집기술, 채널운영 전략
당당하고 글로벌하게! 저작권 교육, 마케팅 교육

참여대상 다문화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심이 있는
다문화 및 비다문화가족 **청소년 20명**(초등4학년~중학생)

교육기간 다문화 콘텐츠 편집·제작교육 매주 목요일 16:00~18:00 (10회기)
1기/2기-기수당 10명 & 10회기교육 (1기 교육수료 후 2기 활동)
*** 코로나19 바이러스 안정 후 센터 개관시 시작, 신청자 별도안내 예정**

활동내용 다문화 전통음식·의상·문화 소개 콘텐츠 제작, 채널관리 등
다가온 내 촬영 전문 스튜디오 대여 / 촬영 장비 지원

활동장소 다가온 내 크리에이터ON (군포시 당정로28번길 22)

신청문의 다가온☎070-4279-4079 / 센터☎031-392-1811
담당자: 가족지원3팀 전 안 사회복지사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랑의열매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

2020 다가온 동화구연 자조모임 참여자 모집

동화구연 자조모임

《다가온 동화구연 자조모임 활동은?》
우리아이들 위한 엄마표 동화구연
전문 강의를 제공하며, 지역주민 학부모와
함께하는 자조모임 활동입니다.

참여대상 군포시 거주 학부모 10명(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족)

활동내용 동화구연 교육 & 자조모임 활동

활동기간 총 20회기, 매주 목요일 10:00~12:00
오전 10:00~11:00(전문 교육) 후 11:00~12:00(구성원 자조모임)
*** 코로나19 바이러스 안정 후 센터 개관시 시작, 신청자 별도안내 예정**

활동장소 다가온 2층 프로그램실 (군포시 당정로28번길 22)

신청문의 다가온☎070-4279-4079 / 센터☎031-392-1811
담당자: 가족지원3팀 전 안 사회복지사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시아의 창 5월

아시아의 창은 4월에 센터에 1명씩 출근하여 교대근무를 하다 5월 6일부터 사무국 식구 모두 정식 출근하였습니다. 센터 구석구석 소독을 진행하였고, 방문 상담 진행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되도록 유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진행되었던 한국어교실은 교사분들과의 미팅을 통해 8월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포시 보조금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이주민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은 학교에 외부인 방문이 어렵고, 캠페인의 주 장소였던 지역축제는 코로나로 인해 올해 개최 할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사업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한국이주민 건강협회, 토크미에서 보내온 마스크는 5월까지 약 두 달 간 배포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 센터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이주민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에 8 가정을 추천하여 2 가정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방역 중의 아시아의 창 사무실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수업 모습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은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군포시와 정부에서 내린 지침에 맞추어 휴원권고 안내, 긴급돌봄을 하고 있고 전 교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아름다운재단 이주민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하면서 여력을 맞이하려 합니다.

이런 상상 불가능할까요?

방역당국은 미등록이주민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사를 회피할 수 있으니,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으면 강제단속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미등록이주민 중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동선과 진원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미등록이주민들은 행정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 미등록이주민의 자녀들을 국내에 등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와 같습니다. 관리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의미는 아동의 출생등록의 권리적인 측면과 실태파악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간의 전파가 심각한 지금, 시스템 밖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의 취약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획기적인 조치를 상상 해봤습니다. 6월까지 자진출국 기간이지만 비행기가 멈춘 상태에서 귀국도 불가능한 지금, 20만이 넘는 미등록이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약6개월에서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 비자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등록을 열어놓는다면 모든 미등록이주민이 등록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미등록이주민과 그 자녀들까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앞에서 함께 극난을 헤쳐 갈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재단지원, 코로나19피해 이주민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지정받아 아시아의 창에서 '코로나19 피해 이주민 긴급생계비 지원'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박성희 사무국장, 군포아이쿱생협 안영신 이사장님께서 심사해주셨습니다. 추천서에 작성해주신 내용과 구비서류들을 모두 꼼꼼히 살펴보고 한부모, 5인 이상 가족, 질병 및 장애, 실적이 있는 가정에 접수 배점을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 이 시기에 추천서를 열심히 작성해 보내주셨는데 누군가는 떨어뜨리고 선정되는 것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 추천 기관별 지원자 인원을 미리 조율하여 경원이 넘지 않도록 하였고, 심사과정 중 내용이 나 구비서류가 부족한 경우 보완을 요청해 추천받은 가정들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추천서 심사하는 모습

이 사업은 전국에서 자녀를 양육중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주민 가구 총 102 가정을 선정하였고, 5월 29일 1차 생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차 생계비는 6월 19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군포시 좋은 부모를 찾습니다’

군포전가다가, 공모전 수상자 선정해 시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등 수상자에게 상품과 상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아쉽게 수상을 하지 못한 참여자들에게도 참가상의 작은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좋은부모되기 공모전 ‘군포시 좋은부모를 찾습니다’ 시상식을 지난 5월 29일 개최했다.

좋은부모되기 공모전 ‘군포시 좋은 부모를 찾습니다’는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 시민의모임에서 개발한 ‘좋은부모되기운동 7대 강령’에 맞춰 좋은부모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하는 공모전으로 군포시에 거주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청받았다.

그 결과 총 27명의 군포시 좋은부모 대상자가 추천됐으며 좋은부모되기운동 7대 강령 포함여부와 진솔성, 공감성, 모범성 등을 고려한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5명의 최종

시상식에 참석한 박성희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사회구성원들과 가족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가족이 있다는 감사함을 느끼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결속력이 끈끈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앞으로 가족이 함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코로나 19를 극복해 군포시의 모든 가족이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공모전 외에 코로나19를 가족이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https://gunpo.family.ne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우리금융그룹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공모선정 사업

봉쥬르 몽*아미!!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의 정보교류 및 소통을 통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프랑스 자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자들의 많은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간** : 2020년 6월 8일 ~ 6월 26일
 ☆ **참여 방법** : 전화 신청 가능
 ☆ **일시** : 2020년 7월 ~ 9월(매주 월요일/월 4회, 총 12회)
 10월~11월(격주 월요일/월 2회 자조모임 진행, 총 4회)
 ※ 총 16회 참여 가능자 우선접수
 ☆ **대상** : 군포시 거주 12명(다문화 10명, 비다문화 2명)
 ☆ **장소** : 센터 내 교육실 및 다가은 2층(군포시 당정로 28번길22 레인보우 다가은)
 ☆ **내용** :

시간	내용	비고
10:00~12:00	- 기초학습 배우기(미니액자, 핀쿠션 등) - 생활소품을 위한 응용(티매트, 손거울과 브로치 등)	

※ 수업 진행에 따라 작품을 변동할 수 있음
 ☆ **문의** : 담당자 송하영 031-392-1811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대한민국 통화와 물가

Mata uang dan Harga Barang di Republik Korea

나. 원의 가치

Nilai mata uang Won

▶ ‘원’의 가치, 환율

Nilai ‘Won’, Nilai Tukar Valas

환율의 결정은 어떤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환율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구분되는데, 대한민국은 1997년 말부터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환율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외환시장에서 기준 통화인 미국 ‘달러’보다 대한민국 ‘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원화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므로 원화 가치가 상승하여 ‘원-달러’ 환율이 하락합니다. 이러한 가격 결정에 따라 현재 외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한민국 ‘원’의 환율은 2016년 3월 기준으로 ‘달러’ 당 약 1153원 수준입니다. 기타 통화에 대한 ‘원’의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Penentuan harga nilai tukar tergantung pada dipakai atau tidaknya sistem nilai tukar. Secara garis besar sistem nilai tukar terbagi menjadi dua yaitu sistem nilai tukar tetap dan sistem nilai tukar bebas, Republik Korea telah menentukan untuk memakai sistem nilai tukar sejak akhir 1997 hingga sekarang.

Yang dimaksud dengan sistem nilai tukar bebas adalah sistem nilai tukar yang tidak konstan dan ditentukan secara bebas berdasarkan permintaan dan penawaran di pasar valuta asing.

Misalnya, jika permintaan akan mata uang “won” lebih banyak daripada “dolar” maka pasokan “won” di pasar valuta asing akan menjadi meningkat, sehingga nilai tukar won-dolar akan menurun.

Berdasarkan standar nilai tukar ini nilai tukar won’pada transaksi valuta asing pada Maret 2016 adalah sekitar 1.153 won per satu dolar. Nilai tukar untuk mata uang dari lainnya adalah sebagai berikut:

다. 물가

Harga Barang

▶ 물가지수

Indeks Harga

물가란, 개별 상품들의 가격 및 경제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이 반영된 시장 전체의 가격수준을 말합니다. 개별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가도 경제 전체의 생

산, 소비, 투자 활동에 의한 총수요와 총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의 움직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비자출 12개 항목의 개별 물가지수와 종합소비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의 구매력 변동을 측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가계 예산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Indeks Harga merupakan standar harga pada keseluruhan pasar yang direfleksikan dari kedudukan perkembangan harga barang dan perekonomian, Harga barang terbentuk dari proses permintaan dan penawaran. Demikian pula Indeks Harga juga ditentukan dari total permintaan dan total penawaran dari produksi, konsumsi, dan kegiatan investasi dalam perekonomian secara keseluruhan.

Bank Sentral Korea mengumumkan mengenai Indeks Harga berdasarkan 12 kategori dan Indeks Harga Konsumen Gabungan untuk memudahkan pemahaman tentang pergerakan indeks harga. Melalui cara ini dapat diketahui dinamika dari biaya hidup rata-rata rumah tangga ataupun daya beli uang, sehingga dapat memberikan bantuan besar dalam hal penyusunan anggaran rumah tangga.

[참고] 물가 이야기

과일, 화장품, 쌀 등 특정 물품의 금액을 말할 때는 가격이란 표현을 쓰지요? 우리가 소비하는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들 가격의 전체적인 수준을 얘기할 때는 물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물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물가는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말합니다. 개별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오르거나 내립니다. 개별 상품가격을 종합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전체의 총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변동됩니다.

*뉴스에서 ‘물가가 올라 걱정’이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물가는 왜 오를까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은 올라가겠죠. 수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많으니 가격을 올리더라도 팔릴테니까요. 반대로, 아이스크림이 100개 있는데 사먹는 사람이 5명 뿐이라면 가격은 내려갈 것입니다.

[Referensi] Mengenai Harga Barang

Untuk menyebutkan nilai dari barang seperti buah, kosmetik, beras dan lain sebagainya, digunakan kata ‘harga’. Saat kita berbicara mengenai standar keseluruhan dari harga barang dan produk yang kita konsumsi, digunakan kata ‘Harga Barang’. Nah, sekarang akan mulai dijelaskan tentang ‘Harga Barang’.

*Apa yang dimaksud dengan ‘Harga Barang’? Bagaimana pembentukannya?

‘Harga Barang’ adalah standar harga keseluruhan

yang dihitung dengan memperhatikan harga barang atau jasa yang diperjualbelikan di pasar dalam kehidupan perekonomian. Dinamika harga barang masing-masing ditentukan oleh hubungan permintaan dan penawaran dari barang tersebut. Demikian juga ‘Harga Barang’ yang merupakan penggabungan masing-masing harga barang. Pergerakan ‘Harga Barang’ ditentukan oleh total permintaan dan total penawaran dari keseluruhan perekonomian.

*Banyak berita bertopik ‘Khawatir karena Harga Naik’. Apa yang menyebabkan ‘Harga Barang’ naik?

Ada beberapa penyebab yang dapat membuat terjadinya perubahan harga barang dan jasa. Contohnya, kerusakan lahan pertanian yang diakibatkan angin topan di musim panas akan mengganggu jual beli hasil tani sehingga harga produk pertanian akan naik. Hal tersebut dikarenakan banyaknya orang yang ingin membeli tetapi kuantitas barang yang ada terbatas, sehingga dijual dengan harga yang tinggi. Karena barang yang demikian akan tetap terjual meskipun harganya mahal. Sebaliknya, jika ada 100 buah es krim tetapi orang yang ingin memakannya hanya ada 5 orang, maka harga es krim tersebut akan turun.

*물가가 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5000원을 들고 평소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러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원하던 장난감의 가격이 올라서 5000원으로 살 수 없게 되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1. 값이 싼 다른 장난감을 산다.
2. 장난감 대신 동화책을 산다.
3. 일단 아무것도 사지 않고 저축했다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장난감을 산다.

어찌 되었건 속상한 일이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못 사게 되었으니까요.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보신 것처럼 한 상품(장난감)의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그것을 대신해 다른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품(동화책 등) 가격이 동시에 오른다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줄어들고 결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가격이 오르기 전에 5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수량만큼 이제는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축을 했다가 다음에 다시 사려고 해도 구입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 뿐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물가가 조금씩 오른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만약 현재 장난감 1개의 값이 1만 원이고 내년에 물가가 1%(인플레이션율) 오른다면 다음해 장난감의 값은 1만 100원이 될 것입니다.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가 성장하는 부분만큼 물가가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즉, 우리나라가 작년보다 5% 더 성장했다고 가정할 경우, 물가도 똑같이 5% 오르게 되면 실질적인 물가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ที่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อิสระและอาชีพพิเศษ,
สนับสนุนความมั่นคง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

'1.5 ล้านวอนต่อคน' จ่าย 330,000 คนรวมตัวกันใน
หนึ่งสัปดาห์ของใบสมัครออนไลน์ใบสมัครออฟไลน์
ตั้งแต่วันที่ 1 กรกฎาคม

หนึ่งสัปดาห์หลังจากที่เริ่มสมัครขอแอปพลิเคชัน 'โคโรนา 19 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
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การจัดหางาน

ฉุกเฉิน' สำหรับคนงานพิเศษ (โรงเรียนมัธยมพิเศษ) ฟรีแลนซ์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
ขนาดเล็กและพนักงานที่ไม่ได้ค่าจ้าง

เช่นคนที่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การติดเชื้อมีคนมาประมาณ 330,000 คน
ตามที่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และแรงงานในวันที่ 8 จำนวนของแอปพลิเคชัน
สำหรับ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ด้านความมั่นคง

คง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ของโคโรนา 19 เท่ากับ 32,126
จากวันก่อนหน้า

กองทุนช่วยเหลือการรักษา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มีวัตถุประสงค์เพื่อ
คนงานที่มีรายได้สูงในการประกั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และจ่ายค่าครองชีพ 1.5 ล้านวอน
ต่อคน

ที่พำนักในเกาหลีเป็นผู้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อิสระหรือครูสอนหลังเลิกเรียน,ครูสอน
พิเศษ,พนักงานขายประกันชีวิต,พนักงานขายชั่วคราว,ไกด์,ล่าม,ผู้ช่วยดูแลเด็ก
และผู้ช่วยการเรียนรู้เป็นประจำดูเหมือนว่า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ที่จำกัดการจ้างงานตอนนี้
จะช่วยให้ได้มาก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ถึงแม้ว่ามันจะเป็นหลักการที่ใช้สำหรับชาวเกาหลีแต่ผู้อพยพ
เข้าประเทศโดยการแต่งงาน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และ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ได้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
ได้ยื่นขอ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รักษา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การจ้างงานฉุกเฉินผ่านเว็บไซต์
เฉพาะ (<https://covid19.ei.go.kr>) ตั้งแต่วันสุดท้าย

จนถึงวันที่ 12 มิถุนายนการสมัครจะถูกส่งโดยใช้ระบบย่อย 5 ระบบขึ้นอยู่กับ
จำนวนหลักในปีเกิดวันจันทร์เป็นวิธี

การรับคำขอจากบุคคลที่มีปีเกิดสิ้นสุดด้วย 1 หรือ 6 ในวันที่ 1 กรกฎาคมเราจะ
เริ่มรับใบสมัครออฟไลน์

ในการ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พิเศษคนทำงานอิสระและผู้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อิสระขนาด
เล็กจะไม่ได้รับการประกั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 มันควรจะพิสูจน์ว่ารายได้หรือยอดขายของ
ปีนี้จากเดือนมีนาคมถึงเมษายนลดลงมากกว่า 25% จากช่วงเปรียบเทียบ

เทียบ (เช่นเดือนธันวาคมปีที่แล้ว) วันเวลาที่ค้างชำระเป็นสมาชิกของการประกัน
การจ้างงานที่เป็นของบริษัทที่มีพนักงานน้อยกว่า 50 คนและผู้ที่ได้

ลาพักค้างชำระในช่วงเดือนมีนาคมถึงพฤษภาคมปีนี้มีสิทธิ์ได้รับ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
หากคุณได้รับเลือกให้เป็นผู้รับทุนช่วยเหลือด้านความมั่นคง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

ฉุกเฉินคุณจะได้รับ 1 ล้านวอนภายใน 2 สัปดาห์นับจากวันที่สมัครและอีก
500,000 วอนในเดือนถัดไป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ประมาณการว่าเป้าหมายการ
จ่ายเงินอุดหนุน 1.14 ล้าน

ในขณะที่เดียวกันมี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7,892แห่งที่รายงานการหยุดงานและออกจาก
แผนไปยัง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เพื่อรับ

เงินอุดหนุนการบำรุงรักษาของรัฐบาลตั้งแต่ต้นปีนี้ถึงวันที่ 5 ของเดือนนี้เงิน
อุดหนุนการบำรุงรักษาการจ้างงาน

เป็นระบบที่รัฐบาลให้การอุดหนุนส่วนหนึ่งของการลาและลาเพื่อให้บริษัทที่ใช้
มาตรการการลาและการจ่ายเงิน

แทนการลดลงเมื่อเผชิญกับปัญหาการจัดการ
<한글 기사 42면>

이아리 기자

'광명형 맘 편한 돌봄터' 이용해요

다문화가족도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
족이라면 '광명형 맘 편한 돌봄터'를 이
용해보자.

특히 영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경기육아나눔터 써밋다락방'은 광명시건
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어 접근이 더 쉽다.

#“돌봄과 교육, 한 공간에서”

광명시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
이를 맘 편히 돌볼 수 있는 '광명형 맘
편한 돌봄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방과 후 맞벌이 가정의 초등
학생 자녀를 돌봐주는 '다함께돌봄센터'
와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할 수 있는
'경기육아나눔터 써밋다락방'을 만들었다.

특히 이번에 조성한 두 곳의 돌봄터는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아파트 단지 내 어
린도서관에 설치되어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다함께돌봄센터'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육아나눔터 써밋다
락방'과 초등학생 고학년 대상 '어린이도
서관'이 모두 한 공간에 있어 영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 돌봄과 교육이 한 공간에
서 이루어지는 '광명형 맘 편한 돌봄터'
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다함께돌봄센터- 맞벌이가정 초등생 대상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 주민공동시
설, 행정복지센터 등 안전성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의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
비스를 지원한다.

광명시 1호 다함께돌봄센터인 '써밋플
레이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해 공모
를 통해 선정된 광명역 써밋플레이스 입
주자대표회가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이 위탁, 운영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은 이용할 수 있으며, 학기 중

에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할 예정
이다. 돌봄교사가 상시 근무하며 초등학
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명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전면 개원을 연기하고,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 10명
에 한해 9일부터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
다.

써밋플레이스 다함께돌봄센터장은 “정
말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돌봄 공
간이 만들어진 만큼 안전하고 따뜻한 돌
봄서비스로 아이와 학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돌봄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경기육아나눔터- 영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경기육아나눔터 써밋다락방'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영. 유아, 초등
학교 저학년 자녀와 가족을 대상으로 이
웃 간 돌봄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주민자
치 육아돌봄 공간이다.

현재 광명시에는 철산다락방, 소하다락
방, 역세권다락방 3곳의 경기육아나눔터
가 있으며 이번 써밋다락방이 4번째다.

써밋다락방은 써밋플레이스아파트 입
주자대표회가 무상 지원한 약 51㎡ 공간
을 경기도와 광명시가 리모델링했으며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
영하게 된다.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써밋다락방 운영
을 연기했으며 정상 운영되면 월요일부
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
지 운영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프로그램 진행 및 안전관리
를 위해 시간제 활동가와 관리원을 지원
하고 돌봄 활성화를 위해 부모교육, 품앗
이 활동비 또한 지원한다.

김영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며 온라인으로 한국어수업 해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대면 온라인 수업 참여자 수시모집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4월부터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주민 6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수준별 4단계 반으로 편성하여 주 3회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한국어 교육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센터에서 참가하던 집합 교육의 형태를

벗어나 ‘Cisco Webex(시스코 웹엑스)’를 활용해 각 가정 내에서 참여하는 온라인 수업형태로 변경되어 진행되었다.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생각보다 온라인 접속방법이 간단하여 수업참여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화면을 통해 보는 것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선생님의 입모양이 잘 보여 발음 공부에 도움이 된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역량을 높여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조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을 수준별로 편성해 진행하고 있다.

초급과정은 자음 모음 및 기본 문법과 생활 속 어휘, 중, 고급 과정은 지역 문화 활용, 토익준비, 특수 심화 과정 등의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임무자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의사소통에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수업을 지속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프로그램 진행 시 방역수칙에 따른 다양한 비대면, 소규모 진행방식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개인 가족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가족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2-6265-13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2020 맞벌이가족을 위한 가족문화프로그램 [우리가족사랑만들기1차]

우리가족의 행복한 시간

[코로나19 심리적 방역 Project]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우리의 마음, 가족과 자연에서의 시간을 통해 회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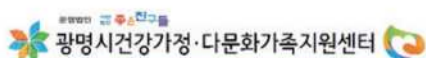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소그룹(10명이하)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코로나19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일자: 6/20(토) 10:00-12:00
- ※ 장소: 도덕산 일대 배수지공원(철산 4동 야생화단지)
- ※ 내용: 가족 숲체험 - 숲빙고, 자연물 가랜드 만들기
- ※ 신청기간: 6/10(수) ~ 6/16(화) *신청기간 지켜주세요 ★
- ※ 대상: 광명시 거주하는 6-13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10가족 (법정취약가족 우선순위 증명서류 제출 필수 ★)
- ※ 참가비: 가족당 2,000원
- ※ 신청방법 ① 센터 홈페이지(gmfc.familynet.or.kr) 프로그램 목록에서 신청서 다운
② 센터 메일발송(gmfc79@naver.com) *맞벌이 증명서류 제출 필수(*부부모두)
③ 접수확인전화 ☎02-6265-1366 (예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강사활동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맞벌이 부부모양이 증명 가능한 서류)

선정된 가족분들께 전화안내 [6/17(수)예정]를 드립니다.



Dịch vụ hỗ trợ phát triển ngôn ngữ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GwangMyeong thực hiện chương trình kiểm tra đánh giá khả năng nói và dạy nói cho các đối tượng là con em dưới 12 tuổi của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các gia đình người nước ngoài và người Bắc Hàn.

■ Trình tự sử dụng



■ Nội dung dịch vụ

Đánh giá khả năng về ngôn ngữ

- Mỗi trẻ em từ 1-4 lần (Thời gian 1 lần là 40 phút)

Dạy học nói

- Tuần 2 lần (1 lần 40 phút)
- Một kỳ học 6 tháng, có thể gia hạn thêm nhiều nhất là 3 lần
- Học cá nhân (1:1), Học theo nhóm (2 người trở lên)
- Tại phòng học của trung tâm, cơ quan bên ngoài (nhà trẻ, trường học)

Tư vấn phụ huynh(1:1)

Giáo dục phụ huynh(2 người trở lên)

■ Giấy tờ cần nộp

(Chung) Đơn đăng ký, Bản đồng ý cho sử dụng thông tin cá nhân, Bản cam kết, Bản đồng ý cho phép quay hình

- ① Đối với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 giấy chứng nhận cư trú hoặc giấy quan hệ gia đình + thẻ người nước ngoài/hộ chiếu bản sao
- ② Đối với gia đình người nước ngoài : thẻ người nước ngoài, giấy tạm trú bản sao
- ③ Đối với người Bắc hàn : giấy chứng nhận người Bắc Hàn

■ Mục hướng dẫn

- Thời hạn nhận đăng ký : Liên tục trong năm (tháng 1- 12)
- Lệ phí : Miễn phí (Bộ phụ nữ và gia đình, Tỉnh Gyeonggi, thành phố GwangMyeong tài trợ)
- Chương trình học và lịch học sẽ được tiến hành sau khi kiểm tra đánh giá khả năng về ngôn ngữ và bàn bạc với phụ huynh
- Khi sử dụng dịch vụ cần có sự đồng ý và hợp tác tích cực của phụ huynh.

“김포의 다양한 위기가정, 우리가 도와요”

김포건가다가, 긴급위기가정 지지리더&키움보듬이 파견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취약 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한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6월 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관리대상 위기가정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지지리더 및 키움 보듬이를 파견하여 심리 정서 지원 및 생활도움서비스(가사, 청소)를 지원하고 있다.

지지리더 및 키움보듬이 파견 서비스는 2020년 가족

역량강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긴급위기가정 발생 가정에 지지리더와 키움보듬이가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지를 해주고 집안정리 등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날 자원인력 파견 서비스를 받은 하성면의 대상자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장인이 입국하여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김포시 여성가족과와 하성면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팀의 도움을 받아 임시격리시설로 이동해 무사히 자가격리를 할 수 있었다.

센터 지지리더 강서연 상담사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위기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기가정 가족을 찾아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은 중위소득 72%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 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의 회복과 정서 경제적 자립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경기도시공사 LH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0일부터 19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LH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김포시의 공급 호수는 경기도시공사 50호, LH 40호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06.01.) 기준 ▲(1순위자)생계·의료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주거지원 시급가구 ▲(2순위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 ▲(기타)유공자 등이며 LH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06.01.)기준 ▲기존주택 1순위자 ▲(고령자)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이다. 다문화가정도 자격에 해당하면 신청해 볼 수 있다.

지원한도는 9,000만 원으로 경기도시공사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문의 ☎980-2416-7

이지은 기자

김포 다문화가족이 알면 도움되는 지역사회 다양한 정보, 확인!

에너지 바우처 접수,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재개, 농촌체험 참가자 모집 등

김포시, 2020년 에너지바우처 접수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접수 중이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95천 원, 2인 가구 134천 원, 3인 이상 가구 167천 원으로 작년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자동신청되며, 정보가 변경되거나 신규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2019년 지원 대상자 중 가구원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6월 26일까지 신규신청과 마찬가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사용 할 수 있으며 요금 차감은 발행 고지서에서 자동차감 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하다.

신청자격은 소득기준(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과 가구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을 모두 충족해

야하며,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수급자는 제외되고,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겨울 바우처 지원에서 제외 된다.

예비 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재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을 최근 재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결혼 전과 임신초기 건강상태 점검을 통해 감염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임신 중 모성으로 인한 태아의 수직감염을 예방해 건강한 아기를 출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검사항목은 남녀공통 항목인 CBC검사, 신장기능검사, 혈액형검사, 간기능검사, 매독검사, 고지혈증검사(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에이즈검사, B형간염항원항체검사이며 여성 추가 검사 항목은 풍진항체검사(IgG/IgM)이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월, 수, 금 오전 09:00~11:30까지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하며 김포시민에 한해 진행된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 하루 전 8시간 금식 후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김포시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강희숙 보건소장은 “체계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모성과 태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김포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농촌체험 ‘방콕놀이’ 참가자 모집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안)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내 체험농가들을 돕고 생활 속 거리두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비대면 농촌체험 ‘방콕놀이’ 프로그램을 오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3회에 걸쳐 개별 택배를 통해 체험키트를 받은 뒤 난(蘭) 심기, 허브리스 만들기, 천연염색 등의 다양한 체험을 집에서 즐길 수 있다. 또한 SNS를 통해 인증하면 추가 체험키트도 받을 수 있다.

11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하며 선착순 선발 예정이다.

이인숙 농업진흥과장은 “이번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의 호응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gimpo.go.kr/agri/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진흥과 농촌지원팀(☎980-5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정하영 김포시장, 지방자치행정대상 투명성과 청렴성, 주민 만족도 평가

정하영 김포시장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0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한다.

지방자치행정대상은 JJC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 24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체장에게 수여한다.

올해 수상자 선정은 민선7기 2년 동안의 공약이행 사항, 투명성과 청렴성, 주민 만족도, 행정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 등을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정 시장은 민선7기 공약사항인 83개 사업에 대해서 이행률과 시민과의 소통 성과 등을 인정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과 갈등 해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과 산업진흥원 설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평화도시 위상 확보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민선7기 후반 기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쉽 없이 노력해 김포시민의 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는 기자

김포 '학생 식재료 꾸러미' 발송 자녀 있는 다문화가정도 받아요



김포시(시장 정하영)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동)이 28일부터 학생 가정으로 식재료 꾸러미를 발송했다. 발송된 꾸러미에는 등교개학이 연기되면서 미집행된 학교급식 경비를 활용한 5만원 상당의 식재료가 들어가 있다.

김포시는 김포교육지원청과 신속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꾸러미 발송에 들어 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신설된 고촌고등학교를 시작으로 83개 유치원, 중·고·특수학교 3만 2,000여 학생의 가정에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재웅)에서 결정한 우수식재료 꾸러미가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김포시의 꾸러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면역력 강화 등 학생건강을 위해 선정한 김포금살 4kg, 논지엠오(Non-GMO) 전통장류, 홍삼 및 사과음료 건어물 등 8종이 담겼다. 이지는 기자

외국인 민원전화 통역 서비스 실시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협업 지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의 원활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외국인 민원 전화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어 지원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를 포함해 모두 11개 언어다. '민원전화 통역 서비스'는 외국인 민원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업무담당자가 통역 도우미에게 전화를 걸어 3자간 통화로 민원

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최영일)와의 협업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덕인 민원여권과장은 "최근 장기 체류 중인 지역 내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 등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의 민원전화 통역 서비스 관련 수혜대상자는 지난 4월 말 기준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2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이지은 기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한국어교육

김포건가다가, 한국어교육 비대면 진행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의 온라인 한국어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센터 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된 한국어 교육을 김포시 다문화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카카오투V 라이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기존에 준비했던 10개 반 중, 센터에서 진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센터 한국어 1~4반과 주말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양촌, 대곶, 평생학습관, 통진 다가온) 5개반은 온라인 개강 없이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 오프라인 개강을 진행한다.

현재 대상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한국어교육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어플 카카오투V를 통해 송출되고 있으며, 어플 내에서 센터명을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이라면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타 센터에 등록되어있는 회원은 센터에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한 이후 한국어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금융노조 김포 이주민 나눔 기증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와 나눔 강조



정하영 김포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 국회의원이 지난 2일 오후 김포시청에서 열린 '금융노조 김포지역 이주민 나눔 기증식'에 참석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동계의 사회공헌사업 확장 및 김포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나눔사업 운영을 위한 MOU 체결 추진의 뜻도 밝혔다.

나눔 기증식은 금융노조가 김포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복지센터에 PC 50대와 방역마스크 6천 장을 기증해 이뤄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임시 일용직·여성·청년·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주민 중에서도 법외 체류 이주노동자의 경우 공적 마스크 구매도 어려운 상태다.

이에 금융노조는 김포지역 이주민과 이주민단체, 법외 체류 이주노동자의 건

강권 보호와 생활 지원을 위해 PC 50대와 방역마스크 6천 장을 한국노동복지센터에 기증했다. PC는 김포시 다문화가정 이주민 30명과 이주민단체 2곳에, 방역마스크는 김포지역 이주민과 법외 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전달됐다.

통계청 자료(2018년 기준)에 따르면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은 약 3만 명으로 전체 김포시 인구의 7%에 해당한다.

김주영 의원은 "국난 극복을 위해 금융노조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모아 주셨기에 우리 지역에서 뜻깊은 나눔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며 "기증식을 계기로 나눔의 의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MOU 체결을 비롯한 연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김포시가 복지과 나눔의 최고 도시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2020년도 한국어교육 온라인개강(선 개강)

센터의 휴관으로 연기되었던 한국어 교육을 온라인으로 일부 개강합니다.
※양촌, 대곶, 사우, 통진반은 코로나19사태 종료 이후 오프라인 개강 예정

선개강과목	강의 장소	강의 일자	강사	교재
센터한국어1	온라인 (정상강의 시 구래동 센터 내 교육실2)	매주 월,수 10:00~11:00	안월순	즐거운한국어, 정확한한국어 초급1
센터한국어2		매주 화,목 11:00~12:00	정춘호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센터한국어3		매주 화,목 13:00~14:00	이정화	즐거운한국어, 정확한한국어 초급2
센터한국어4		매주 월,수 13:00~14:00	심인규	즐거운한국어, 정확한한국어 초급2
주말반		매주 토 10:00~12:00	이한형	즐거운한국어, 정확한한국어 초급1

- 수강기간 : 2020년 5월 6일 ~ 오프라인 개강 전까지
- 대 상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미가입자는 회원가입 이후 수강 가능)
- 수강방법 : KAKAO TV(추후 안내 예정)
- 비 용 : 수강료 무료 (교재비 별도)
원활한 수업 참여를 위해 교재 구입을 추천합니다(개인구매)
- 문 의 : 031)996-5920 (사회복지사 강지수, 건강가정사 신유림)

가족이 함께 유화 페인팅으로 추억 쌓고 사랑 키워요

과천건가다가, 5월 가족사랑의 날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진행하는 활동들이 어려워지면서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추억도 만들고 사랑도 확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5월 가족사랑의 날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 그리는 유화 페인팅’이 진행됐다.

센터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화 페인팅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총 20가족을 계획했으나 24가족이 모집될 만큼 호응이 높았다”라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그리는 유화 페인팅’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재직 중인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았으며 5월 18일 키트를 나눠준 뒤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 가족들은 센터 방문을 통해 유화 페인팅 키트를 받았으며, 각 가정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참여 가족들은 “가족들과 집에서 미술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있을 시간이 많아졌으나, 활동 거리가 많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가족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었으며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아이가 직접 완성한 작품을 보며 ‘예쁘다’, ‘좋다’와 같은 예쁜 말이 나와서 좋았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모도 아이도 중심의 세계에서 놀다 올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히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센터는 가족 사랑의 날은 홀수달 셋째 주 수요일에 진행하며, 과천시 가족들의 가족 사랑실천 의식을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 검사받은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과천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휴식이 필요한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들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일을 쉬지 못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미루면 지역 내 확산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손실보상금 23만원을 과천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가 지난 4월 이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대해 1인당 검사비 3만원과 3일치 보상금 20만원을 포함해 총 23만 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60여 명이다.

관련 상담과 문의는 전화(02-3677-2446-7)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과천시 다문화 가족 모여라

QR코드 스캔 or 카톡 검색

카카오 채널 채팅

이름, 핸드폰번호, 출신국 입력 전송

채팅 답신 후 센터에서 수령

Ch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모두에게 대한민국 문화유산 체험 키트 택 1 + 사은품(송월타월)을 드립니다.

선착순 센터발문자매 한해 키트 우선 선택권을 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한국어 교육, 통번역사인재 양성과정, 가족상담실
이 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 초기 정착 지원 사업
☎ 02. 503. 0070
(최원선, 최은정 다문화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문화누리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이 궁금하시면 누리집 www.mnuri.kr 고객센터 1544-3412

발급기간: 2020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지역별 당해년도 예산 소진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를 살의 힘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능, 국내여행, 체육활동용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이 궁금하시면 누리집 www.mnuri.kr 고객센터 1544-3412

문화누리카드를 살의 힘을 누리세요!

문화누리카드 꿀팁 4

우리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알고 싶다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 [사용하기] 오프라인/온라인 가맹점 검색

문화예술포럼	도서	서적, 중고서적,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전자책구독사이트
	음악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
	영화	영화관, 영상콘텐츠사이트, 영화제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국내여행	공연	공연장, 극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전시	미술관, 박물관, 화랑, 화방, 비엔날레
	공예	미술관 박물관 내 아트숍, 공예품점
	사진관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체육활동	문화체험	문화센터, 공연, 행복대여행, VR체험관, 망명승려점, 온라인화인클래스
	교통	철도, 시외/고속버스,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여행사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드투어, 게이머카페
체육활동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온천	온천
	체육관광	지역문화축제, 지역문화체험, 산업관광지
체육활동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
	숙박	호텔, 리조트, 펜션,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스포츠관광	4대 프로스포츠 및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체육용품	체육기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선기부매점
체육활동	체육시설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풋살, 탁구, 사격, 클러스케이트, 승마, 스키야드, 스키, 당구체육시설이용

카드를 우편수령으로 받았다면 Tip.1
수령등록을 해야 카드사용 가능
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카드발급/잔액확인] 메뉴
② NH농협 콜센터(1644-4000) ARS 7-5-3번 (수령등록 완료 2시간 후 사용 가능)

지원을 다 쓰고도 할인혜택을 계속 받고 싶다면 Tip.2
카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에 본인 부담 충전금을 입금하여 사용 (연간 200만원 이내 / 1회 최소 100원~10만원 이내)

카드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Tip.3
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카드발급/잔액확인] 메뉴
②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ARS 2번
③ NH농협 콜센터(1644-4000)

잠깐! 온라인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려면 Tip.4
농협카드 고객센터 누리집[민심서비스]메뉴에서 일반결제서비스 등록 절차 최초 1회 필요 (오바일 불가)

“다문화가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온라인 교육으로 함께 해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자녀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프로젝트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프로젝트- 너에게 행복을 선물할게’를 진행한다.

코로나19로 경직된 일상을 탈출해 가족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맞벌이가정 부모와 6세~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20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센터 홈페이지(<http://anyang.familynet.or.kr>)에서 신청받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프로그램은 부모 대상 ‘아이의 잠재력을 깨워라(자신감 UP!)’를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7월 4일에는 밤상머리교육으로 부모와 자녀 대상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키트를 제공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한다. 또한 창의(과학) 활동으로 부모와 자녀 대상 ‘아이의 창의력을 깨워라(창의력 UP!)’를 진행하며 보행 로봇 만들기 키트를 제공한다.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는 7월 8일까지 활동사진과 만족도를 제출해야 하며 창의(과학)활동은 7월 15일 까지 내야 한다. 031-8045-5476

#부모역할 ‘유아기 부모교육’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부모역할 지원 ‘유아기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바람직한 부모역할, 행복한 우리아이’란 주제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2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교육은 ▲23일 ‘에니어그램을 통한 아이 성향 알기’ ▲30일 ‘아이 발달과정에 따른 부모역할’ ▲7월 1일~8일 ‘놀이 활동을 통한 부모역할 실천’ 등이다.

참가비 5000원을 내야 하며 센터 홈페이지(<http://anyang.familynet.or.kr>) 또는 전화(031-8045-6392)로 신청하면 된다.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을 진행한다.

다문화자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이며 중국어와 베트남어가 대상이다. 센터 홈페이지(<http://anyang.familynet.or.kr>)와 전화(031-8045-5710/이중언어코치 조위페)로 신청 받으며 무료다.

중국어반은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주 월.수 진행되며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다. 베트남어반은 7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진행되며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을 한다.

사례관리사업은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나 문제를 함께 노력하여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 결혼이민자, 외국인,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생계문제, 자녀 문제, 일상생활 정보제공 등 개별맞춤형상담 및 취업, 주거, 법률, 생계 등 서비스 연계,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이뤄진다. 신청은 센터 방문접수 또는 전화(031-8045-6394) 받는다.

김영의 기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다문화가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해요

‘1인당 150만원’ 지급, 온라인 신청 1주만에 33만명 몰려,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약 33만명이 몰렸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는 전날 기준 32만8천126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은 자영업자를 하거나 방과후교사,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통번역가, 가사 육아도우미, 학습지교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

금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국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결혼이민자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6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신청 접수를 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가 10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7월 1일에는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

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11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올해 초부터 이달 5일까지 7만892곳에 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수고용직에서 근무하는 다문화가족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 보자.

(중국어 13면, 일본어 48면)

이지은 기자

문화다양성, 이해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어울림'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이해교육 진행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다문화 이해교육 '행복 어울림~다문화 동행'을 진행한다.

'행복 어울림~ 다문화 동행'은 유아교육기관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무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센터 관계자는 "외국인과 선주민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선주민의 긍정적 인식변화를 위해 진행된다"라며 "결혼이민자를 문화체험 강사(다문화 강사)로 활용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공무원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월 안양 일원에서 캠페인을 벌여 시민들의 다문화 이해를 높이는 한편 베트남 전통 무용 공연도 진

행한다.

'행복 어울림~ 다문화 동행'은 5월~8월 다문화사회 강의식&체험식 교육 82회기, 9월~12월 초 다문화사회 강의식&체험식 교육 82회기, 공무원 교육 1회기 베트남 전통 무용 공연 1회기, 12월 평가회의 및 결과보고 등이 이뤄진다.

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증진해 문화 간 차이 이해 및 수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다"라며 "다문화 강사의 역량 강화 및 자아실현 기회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의 기자



안양시, 생활방역 5대 수칙 전파, 다문화가족도 함께해요

안양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밀착형 5대 방역수칙을 마련, 지난 12일 시 홈페이지와 공식SNS 및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전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유흥업소와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는데 따른 시민당부사항이다.

6월 13일 현재 안양에서는 모두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다.

안양시는 5대 수칙 중 첫 번째로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기'를 정해, 마스크는 입과 코를 덮어 올바르게 착용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시 올바르게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3밀 시설 이용 안 하기'에서는 밀폐·밀집·밀접 시설이면 언제 어느 곳이든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로 '사각지대 신고하기'에서 '사각지대 시민 신고제' 도입과 함께 방역기동점검단 운영을 안내했다.

네 번째로 강조하는 '테이크아웃 식사하기'는 매장 내 식사보다는 음식을 포장해 갈 것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만의 QR코드 만들기'는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경우는 반드시 QR코드로 기록을 남겨야 함을 주지하는 사항이다.

시는 이달부터 공공도서관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시행하고 있다.

이 5대 수칙은 안양시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시의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4月12日以前に韓国に入國した短期滞在者の結婚移民ビザ變更、一時許可

法務部はコロナ19國內流入を抑制し、國際結婚家庭の便宜を図るために、2020年5月25日から短期滞在資格で韓国に入國した外國人の、國內結婚移民(F-6)資格變更を一時許可すると発表した。

元々短期ビザで韓国に入國した外國人は、出産などの人道的な事情がない限り、韓国内で結婚移民(F-6)ビザへと滞在資格を變更することができない。

今回の措置は、短期ビザで入國した外國人が出國後に結婚移民ビザの發給を受けて再入國時に發生する可能性がある、コロナ19の國內流入を抑え、國際結婚家庭の便宜を図るための措置だ。

今措置の對象は、2020年4月12日以前に短期滞在資格で入國した韓国民の外國人配偶者。

2020年4月12日以前に入國した外國人で、短期滞在資格で入國前に婚姻した者、または短期滞在資格で入國、婚姻後から90日が経過した者、また査證免除(B-1)、觀光通過(B-2)、短期訪問(C-3)などの滞在資格で入國した者。

ただし資格變更申請對象に該当しても、結婚移民ビザの發給要件をみたしていないと變更許可がないことがある。

在外公館で結婚移民(F-6)査證を申請する時に、「出入國管理法施行規則」の第9條4(結婚同居目的の外國人招請手続きなど)、第9條5(結婚同居目的の査證發給基準など)など、關聯規定による要件をみたしていることが条件となる。

基準日を4月12日にしたのは、ビザ審査強化措置が施行された4月13日以後に入國した者は、コロナ19により國家間の移動が制限されることを十分に認知していながら結婚移民ビザの代わりに短期ビザの發給を選択、韓国に入國したとみなすため。

法務部關係者は、「今回の措置は、變更を申請できるということであって、申請さえすればすべて變更できるというわけではない」とし、「未登録滞在者は申請對象とならない」とした。

今回の措置は2020年5月25日から別途告知があるまで實施する。

법무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 25일부로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국내 결혼이민(F-6) 자격변경을 일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글 기사 44면>

2020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중국어·베트남어)

- 대 상: 다문화자녀 초등학교 저학년(8-9세)
-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신청 및 전화신청
* 센터 내 강의 또는 학교 방과후 교육(중복지원 불가)
- 문의: 이중언어코치 조위태 (031-8045-5710)
- 내용: 중국어, 베트남어 이중언어 교육지원
- 참가비: 무료

◆ 센터 내 강의 시간표

강의명	기간	시간	장소
중국어반	7.1~12.30 (매주 월,수)	16:00~18:00	센터3층 희망나눔방
베트남어반	7.2~12.31 (매주 화,목)	16:00~18:00	센터3층 희망나눔방

* 올해 관내 2곳 초등학교 방과후반 새로 개설했습니다. 강의내용이 센터랑 똑같습니다. 학교장소는 아직 협의중입니다. 결정 되면 문자 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 원하는 곳에 지원 가능하지만 센터는 선착순으로 배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일정 바꿀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 비자 변경 일시 허용

재입국시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4월 12일 이전 입국자 한정



법무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 25일부터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국내 결혼이민(F-6) 자격변경을 일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원래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자녀출산 등의 인도적인 사정이 없다면 국내에서 결혼이민(F-6)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출국 후 다시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가능성을 막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2020년 4월 12일 이전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

민의 외국인 배우자이다. 즉, 2020년 4월 12일 이전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 전 혼인한 사람 또는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혼인 후 90일이 경과한 사람, 그리고 사증면제(B-1), 관광 통과(B-2), 단기방문(C-3) 등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다만 자격변경 신청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결혼이민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즉,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준일을 4월 12일로 정한 것은 비자심사 강화조치가 시행된 4월 13일 이후 입국한 사람은 코로나19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결혼이민 비자 대신 단기비자로 발급을 선택하고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신청만 하면 무조건 변경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미등록 체류자는 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5월 25일부터 별도 공지 시 까지 실시한다. <중국어 16면, 일본어 43면, 태국어 24면> 이지는 기자

화성동탄경찰서, 외국인주민 안전 위해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방역

화성동탄경찰서는 서울 외국인쉼터에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에 따른 외국인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아시아문화소통센터 방역을 실시했다.

경기도부경찰청 화성동탄경찰서(서장 유제열)는 지난 6월 9일 외국인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동장 양혜란)와 협업체계를 구축, 화성시 병점소재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방역을 실시했다.

이날 방역은 지난 8일 서울지역 외국인쉼터에서 코로나19 무더기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방역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등 내외국인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

이용근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상임이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줄곧 외국인 맞벌이 부부 자녀 30여 명이 이곳에서 공부방 운영하여왔는데 자체 방역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화성동탄경찰서와 화성시에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유제열 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및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홍보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숨어들어 방역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 치안을 통해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는 기자

www.easylaw.go.kr

외국인 여러분!! 그 동안 대한민국 법률을 몰라서 어렵고 답답하셨죠?

법제처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외국인 여러분의 법률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www.easylaw.go.kr

외국어 모바일, 생활법령 모바일, 생활법령 App

“외국인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란?
법령정보 검색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 또는 중국어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령문의를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게시판에 남기면 맞춤형으로 답변을 제공해 주는 무료서비스를 말합니다.

법제처, KLIIS 한국법령정보원,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All the foreign friends!! Having a difficult time and frustrated without knowing a sufficient Korean legal information?

"Foreign Language Customized Law Information Service"

by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ill help you out with legal concerns.

Foreign Language Customized Law Information Service inquiry can be registered on the Easy to Find Practical Law website, www.easylaw.go.kr

Foreign Language Customized Law Information Service

It is a complimentary service providing customized answers in Korean or Chinese to the practical legal questions registered on the Foreign Language Customized Law Information website for foreigners in Korea having difficulties to search law information.

Multilingual language, Practical Law mobile, Practical Law app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LIIS 한국법령정보원, 생활법령정보

登録外国人、出国時に事前に再入国許可申請が必要... 申請しないと再入国が不許可 外国人登録も抹消... 再入国登録外国人は診断書所持も義務化



韓国内に住む登録外国人が出国する場合、事前に再入国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内に長期滞在している外国人が、海外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コロナ19)に感染、再入国する事例が相次いでおり、政府が管理強化に乗り出した。

法務部は6月1日から、韓国内外国人登録をしている長期滞在外国人の再入国許可免除を中断し、これに代わって再入国許可制を施行すると明らかにした。これは海外コロナ19の新規流入を抑えるための措置だ。

以前は登録をしている外国人が出国後、1年以内(永住資格所持者は2年以内)に再入国する場合、再入国許可が免除されていた。

しかし6月からは韓国出国前に出入国・外国人官署(空港・港湾を含む)を訪問し、再入国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再入国許可を受けずに出国すると、外国人登録自体が抹消処理される。登録が抹消されると、以前許可された滞在資格と滞在期間も消滅する。

ただし外交(A-1)、公務(A-2)、協定(A-3)滞在資格を所持している外国人や、在外同胞(F-4)滞在資格居所申告者は例外だ。以前と同じように再入国が可能で、出国前に再入国許可を受ける必要はない。

また法務部は6月1日以後に韓国を出国する登録外国人を対象に、再入国者診断書所持義務化措置も施行する。

登録外国人が再入国する場合、現地の医療機関が発給した診断書を所持せねばならない。

そして現地搭乗時と入国審査時にこれを提出せねばならない。診断書を所持しないと入国が不許可となる。

診断書は現地の公認医療機関が、出国時を基準に48時間以内に発給したものである。韓国語、または英語で作成し、発熱・咳・悪寒・頭痛・筋肉痛・肺炎などの症状、検査者、検査日時などが記載されていること。

偽造診断書を虚偽提出した場合強制出国措置となり、以後ビザ発給などにおいて不利益がある。

ただし外交(A-1)、公務(A-2)、協定(A-3)、在外同胞(F-4)滞在資格所持者、在外公館が発給した'隔離免除書'所持外国人などの場合は診断書がなくても再入国が可能だ。

法務部関係者は、"措置は6月1日0時から施行され、正確に迅速に施行できるよう、関係部處と協力して後續措置を忠實に行う豫定"だとした。

<한글 기사 32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장기체류자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됩니다.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대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도 신청 가능)

재입국 장기체류자 진단서 제출 안내

-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제외)는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관련 유의사항

- 진단서는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 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됩니다.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유효한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위·변조 서류 또는 허위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탑승 및 입국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유효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사람은 진단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Notice on Suspension of Re-Entry Permit Exemption and Submission of Diagnosis for Re-Entry of Long-term Stayers

Suspension of Re-Entry Permit Exemption and Application for Re-Entry Permit

- Beginning June 1, 2020, registered aliens who are seeking re-entry into the ROK after departure are required to obtain a Re-Entry Perm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 of the Immigration Act, and leaving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a Re-Entry Permit will result in cancellation of Alien Registration.
- Yet, those with Diplomats (A-1), Government Officials (A-2, A-3) or Overseas Korean (F-4) status do not need to apply for a Re-Entry Permit, and are allowed to re-enter the ROK as previously done.
- Re-Entry Permit can be applied for at immigration offices across the nation including at the airports.

Submission of Diagnosis for Re-Entry of Long-term Stayers

- Beginning June 1, 2020, registered aliens (except Diplomats (A-1), Government Officials (A-2, A-3) and Overseas Korean (F-4) status) seeking re-entry into the ROK after departure are required to undergo a medical examination related to COVID-19 within 48 hours prior to the date of departure for the ROK and carry and present a medical certificate (diagnosis) detailing the results to re-enter the ROK.

NOTE

- A diagnosis must be written either in Korean or English and be issued by an authorized local medical institute.
- It must include the date of examination,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fever, cough, chills, headache, difficulty of breathing, muscle pain and pulmonary symptoms, and must be signed by a medical examiner.
- It does not have to include a COVID-19 test result (Test Negative). (A medical certificate (diagnosis) listing a COVID-19 negative result shall also be deemed as valid.)

Failure to undergo the examination or present a written diagnosis, and forging/falsifying documents or presenting false documents will result in denial of boarding and entry, and other disadvantages.

Yet, those with a valid 'Isolation Exemption Certificate' issued by a Korean embassy or consular office are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submit a written diagnosis and are allowed to re-enter the ROK as an exception.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法务部关于终止免办再入境许可政策以及长期滞留人员“再入境”提交诊断证明的通知

终止免办再入境许可政策以及终止后申请再入境许可的相关说明

- 2020年6月1日起, 韩国外国人登记证持有人离开韩国后“再入境”的, 需要依照《大韩民国出入国管理法》第三十条规定办理再入境许可手续。如果不办理再入境许可离开韩国, 其持有的外国人登记证将被注销。
- 但外交(A-1)、公务(A-2)、协定(A-3)、及旅外同胞(F-4) 滞留资格持有人无须办理再入境许可手续可直接“再入境”。
- 群众可就近前往出入境机关(含机场)办事大厅办理再入境许可业务。

长期滞留人员“再入境”提交诊断证明的相关说明

- 2020年6月1日起, 持再入境许可的韩国外国人登记证持有人(外交A-1、公务A-2、协定A-3、旅外同胞F-4资格者除外)须在当地出发前48小时内接受新冠病毒相关检测, 并“再入境”时持有注明其诊断内容的诊断证明。

诊断证明相关注意事项

- 诊断证明仅限韩文或英文版, 且须由在当地登记的有效医疗机构出具才有效;
- 诊断证明上必须注明: 是否有发热、咳嗽、怕冷、头痛、呼吸困难、肌肉酸痛、肺炎等症状以及检测人员和检测日期(须在当地出发前48小时内接受检测);
- 诊断证明上无须注明新冠检测结果是否为阴性(Test Negative), 但注明其内容可被视为明确有效的新冠相关诊断证明。

不持有诊断证明的、伪造变造有关材料的、提交虚假文件的, 一经发现将被拒绝登机或入境等受到不利影响。

但在入境前获发由韩国驻外使领馆出具的有效“免除隔离书”的人员例外, 无须持有诊断证明也可“再入境”。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화성시, 무상교통 시동 ... 新교통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꿈꾼다

시민의 기본권리인 '이동권' 실현의 성공적인 첫 사례될 것, 11월 아동 청소년부터



“화성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홍길동(만 48세)씨는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교통비는 내지 않는다. 화성시에서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 역시 매일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에 간다.

직장에 다니는 아내까지 전 가족이 매달 192,000원의 교통비를 절약하는데, 1년치를 모으면 2백 30만원이나 된다.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가 밀리지 않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기분 좋

게 출퇴근할 수 있다.”

화성시(시장 서철모, 사진)에서 그리는 2025년의 화성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이다.

화성시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경제산업 분야에서 핵심 축을 담당하는 교통정책이야말로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근간이라고 판단,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을 도입한다.

화성시가 그리는 무상교통은 크게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친환경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화성시에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춰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의식주에서 정보와 이동에 대한 권리로 확대하고, 수도권 최초로 무상 대중교통 정책 시행을 통한 '이동권' 실현에 나선다. 우선 아동·청소년과 노년층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하는데, 가족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는데, 이를 통해 교통 혼잡 비용 절감,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문제 해소 등 환경적 편익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사람당 대중교통 이용률을 주 1회 늘리는 것만으로도 어린 소나무 159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한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심각한 공기오염과 기후위기를 벗어나는 특효약이 될 전망이다.

그 외 사회경제적 편익 증대 효과도 큰 것으로 입증되었는데, 특히 기존에 건설된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비, 주차장 확충 및 운영 비용, 교통 혼잡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와 지역 간 상권교류가 용이해지면서 연간 최소 1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성시는 우선 올해 24억 원을 투입해 11월부터 12월 까지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만 2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까지 약 25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지는 기자

华城市从11月起针对7岁到18岁乘客免收公交车费...在首都圈首次实施“无偿交通”服务

居住在京畿道华城市的儿童和青少年预计将从11月开始免费乘坐社区小巴和市内公交车。

这一优惠政策不仅惠及多元文化家庭的儿童和青少年，还包括没有取得韩国国籍的外国人家庭的子女以及中途入境青少年。只要是在华城市居住，就可以享受优惠。华城市表示，从11月起，将向辖区内14万7周岁到18周岁的儿童和青少年提供“无偿交通”服务。在首都圈内华城市是首次引入地方自治团体落实无偿支援公交车费政策的城市。

“无偿交通”服务是华城市推进的社会保障政策之一，以保障市民移动权为目标，从今年年初开始推

进。政府向受惠者支援乘坐市内公交车和社区小巴在辖区内移动的费用并发放“华城市公共交通路径”，对每月使用的交通费进行清算后支付现金。

华城市推算为了落实该政策，到年末为止将需要24亿韩元左右的预算。

从明年开始，华城市将受惠对象扩大到23周岁以下的青年和65周岁以上的壮年层，预计受惠者人数将增加到25万人，目前正在进行与此相关的准备工作。

此前，华城市于今年2月向保健福利部申请了《新设社会保障制度的协议》，并于6月9日得到了最终

批准。华城市厅的相关负责人表示，“对儿童和青少年的无偿交通优惠服务是以居住在华城市的人为标准，因此没有取得国籍的外国子女也同样享受”。他还说：“华城市在公共交通领域上也将努力成为不歧视移民者的华城市”。

华城市市长徐哲模(서철모)说：“提供无偿交通政策是实现华城市宏伟蓝图的未来前景，也是通过交通政策的革新来扩大市民的移动圈和生活圈，以此更接近市民的环保政策。因此，它不仅能提高市民的生活质量，还可以提升华城市的地位和品牌价值。”

화성시, 7~18세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 외국인가정 및 다문화가정도 혜택

화성시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오는 11월부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가정의 자녀 그리고 중도입국청소년도 화성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화성시는 11월부터 관내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요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은 수도권에선 화성시가 처음이다. '무상교통'은 화성시가 추진하는 사회

보장 정책으로, 시민 이동권을 균일하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추진해왔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관내에서 이동하는 구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화성시 대중교통 패스'를 발급해 매일 사용한 교통비를 정산 후 현금 지급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말까지 24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에 만 23세 이하 청년들과 만 65세 이상 장년층을 포함해 수혜자 폭을 25만명 선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준비 중이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해 6월 9일 최종 승인을 받았

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무상교통 혜택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화성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철모 시장은 “무상교통 정책은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비전으로 교통정책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는 친 시민, 친환경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화성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는 기자

비대면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으로 가족관계 더 좋아졌어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놀이면 뭐하니’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현재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가족부는 가족시설의 휴관 및 서비스의 전면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주로 대면서비스로 진행되는 가족교육의 경우는 서비스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자녀의 개학 연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한 연장 등으로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고 자녀의 경우 여가활동의 제약으로 갑갑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녀들의 문화체험 활동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이에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는 비대면서비스를 구축해 키트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동활동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향상을 도모하고자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코로나19 대응 가족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놀이면 뭐하니”는 그렇게 탄생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시행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상호작용 증진 기회 제공 및 가족 간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충족시키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활동 뒤에는 프로그램 진행 소감문과 가족사진을 받아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연 2회 이상, 연인원 60명 내외(회기당 30명 내외)의 화성시의 다양한 가족들이 참여했다.

이들이 수령한 “1차 가족놀이키트”에는 가정 내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각각 달고나 세트, 화산폭발 놀이, 코인티슈, 에바알머슨 도안 등이 담겨 있었다.

“2차 가족놀이키트”에는 우주인 피자 키트, 토마토 키우기, 나만의 앞치마 만들기, 안경 만들기 등이 포함됐다.

센터 관계자는 “각 가족이 보내준 사진은 가족의 화목을 증진하기 위해 액자로 제작해 전달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시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의 교육과 복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과 행복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인 갈등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自營業者と特殊雇用職に従事する多文化家族、緊急雇用安定支援金の申請案内

‘一人당 150만 원’ 지급, 온라인 신청 1주間で 33만 명이 신청,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자영업과 특수고용직 다문화가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코로나19)流行による被害にあった学習誌教師のような特殊雇用職(特雇)従事者、フリーレンサー、零細自営業者、無給休職者のための‘コロナ19緊急雇用安定支援金’。申請受付が始まってから一週間で約33만 명이 신청した。

8日雇用労働部によると、コロナ19緊急雇用安定支援金申請件数は、前日基準32萬8千126件と集計された。

緊急雇用安定支援金は、雇用保険の死角地帯にいる特雇従事者などを対象にしており、一人당 150萬 원 づつの生計費を支援する。

韓國に居住する多文化家族は、自營業に従事していたり、放課後教師、學院講師、訪問販賣員、保險設計士、觀光サービス業、通翻譯家、

家事育児サービス業、學習誌教師などに従事しているケースが多く、今回の緊急雇用限定支援金が大きな助けとなるだろう。

労働部は1日から専用ウェブサイト(<https://covid19.ei.go.kr>)で緊急雇用安定支援金申請を受け付けている。

6月12日までは出生年度の最後の数字による5部制で申請を受け付けた。月曜日は出生年度が1と6で終わる者が申請するという方式だ。7月1日からはオフライン申請受付が始まる。

支援金を受けるためには、特雇、フリーレンサー、零細自営業者の場合は雇用保険未加入者で、今年の3~4月の所得や売り上げが、比較対象期間(昨年12月など)より25%以上減少した事実を立證すること。

無給休職者は50人未満の企業所属で雇用保険加入者、今年の3~5月の一定期間以上が無給休職の者が支給対象となる。

緊急雇用安定支援金受給者として選定されると、申請日から2週以内に100萬 원 が、次の月に50萬 원 が支給される。労働部は支援金支給対象を114萬人と推算している。

一方政府の雇用維持支援金を受けるために、労働部に休業・休職計画を申告した事業場は、今年の初めから今月の5日までで7萬892ヶ所に達した。雇用維持支援金は経営難でも、減員の代わりに有給休業・休職措置を行った企業に対して、政府が休業・休職手當の一部を支援する制度だ。

〈한글 기사 42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